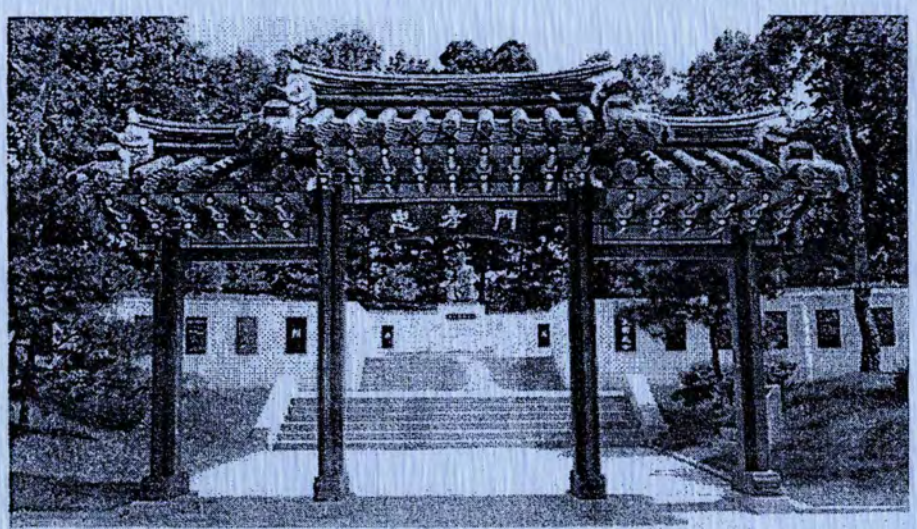
겨레의 위대한 외교관 서희선생 서거 1010주년
추모 학술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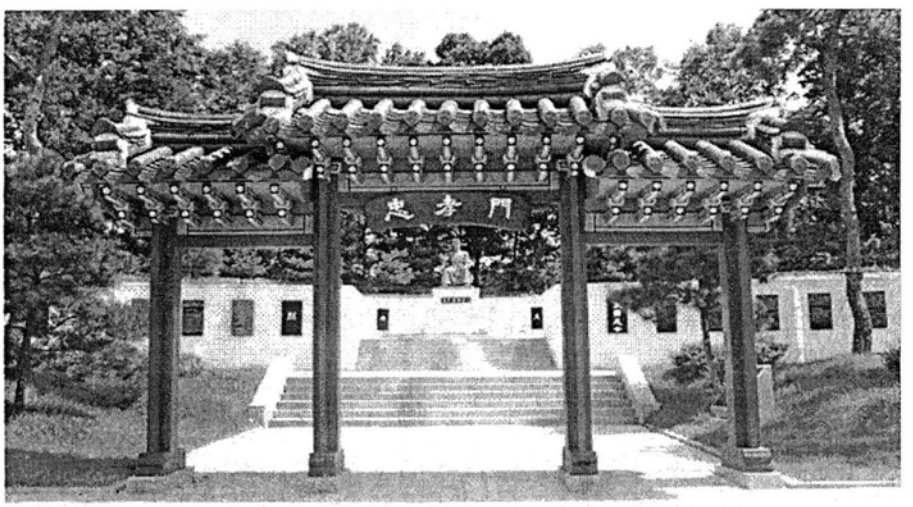
명분과 실리 서희의 외교론



□ 일시 : 2008년 10월 9일(목) 늦은 2시
□ 장소 : 이천 시청 1층 대회의실
□ 주최 : 이천시
□ 주관 : 이천시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

겨레의 위대한 외교관 서희선생 서거 1010주년
추모 학술 대회

명분과 실리 서희의 외교론



□ 일시 : 2008년 10월 9일(목) 늦은 2시
□ 장소 : 이천 시청 1층 대회의실
□ 주최 : 이천시
□ 주관 : 이천시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

대회 일정

▣ 개회 및 축사(14 : 00 ~ 14 : 30) 사회 : 이상진(이천시 예술팀장)

대회시작
국민의례
내빈소개 및 경과보고 : 사회자(참석 내빈 및 발표, 토론자 소개)
대 회 사 : 조병돈(이천시장·서희선양사업위원회위원장) 1쪽
축 사 : 이현호(이천시의회의장)
이재혁(경기도의회부의장)

▣ 보고 및 발표 사회 : 한정수(건국대 교양학부 강의교수)

◈ 제 1 부 : 서희선생선양사업 보고(14 : 30 ~ 15 : 00) 5쪽

서희 업적 선양의 역사와 미래 (이인수 : 이천시문화원 사무국장)

◈ 제 2 부 : 고려 초 국제 환경 변화와 여요전쟁(15 : 00 ~ 15 : 50) 26쪽

1. 한국 대외관계사의 흐름과 서희의 위상 (박한남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2. 고려-송-거란의 대륙질서 정립과정과 고려의 외교(김순자 : 한신대 연구교수)
3. 서희의 현실외교론의 형성과 1차 여요전쟁 (임용한 : 경희대 강사)

◈ 휴식(15 : 50 ~ 16 : 00)

◈ 제 3 부 : 고려의 영토 의식과 서희(16 : 00 ~ 16 : 50) 5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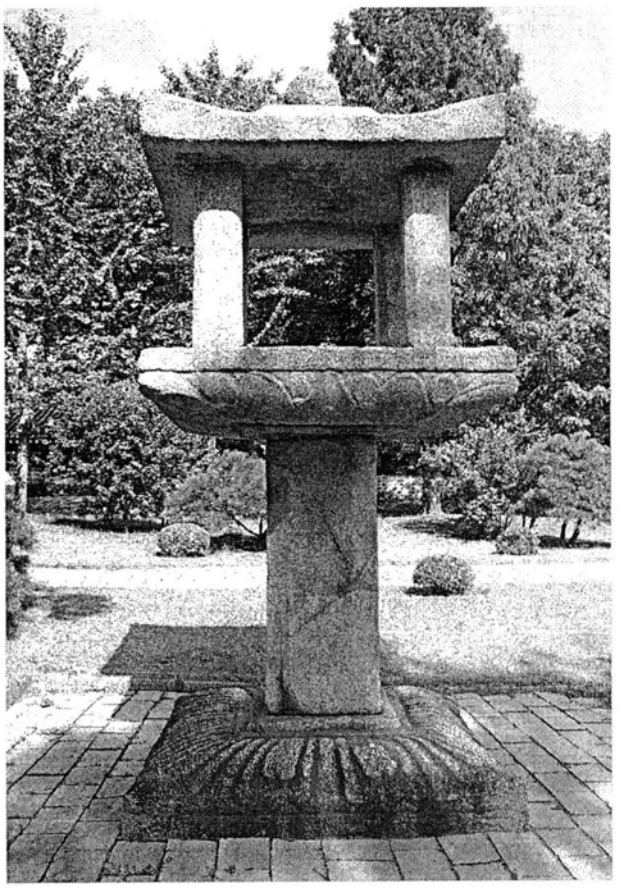
4. 고려 초기의 영토 의식과 서희의 국경론 (신안식 : 숙명여대 연구교수)
5. 고려 초기의 정치세력과 서희의 국가관 (류주희 :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사)
6. 인물사로서의 서희에 대한 재평가 (이재범 : 경기대 사학과 교수)

▣ 종합토론(17 : 00 ~ 18 : 00) 사회 : 박종기(국민대 국사학과교수·부총장) 89쪽

박종기(국민대 국사학과 교수) 서성호(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박종진(숙명여대 한국사학과 교수) 이강한(인하대 BK사업단 연구원)
채웅석(카톨릭대 국사학과 교수) 김대중(전쟁기념관 학예연구관)

방청객 질의

▣ 개회 및 축사



대 회 사 : 조병돈(이천시장·서희선양사업위원회위원장)
축　　사 : 이현호(이천시의회의장)
축　　사 : 이재혁(경기도의회부의장)

【대회사】



"대한민국에 서희가 필요합니다"
"이천시에서 서희의 후예들을 키우겠습니다"

오늘은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겨레의 위대한 스승이자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외교관이셨던 서희 선생의 서거 1010주기를 맞아 후손들이 당신의 고향에서 그 업적을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993년 거란의 소손녕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 당장이라도 고려를 집어삼킬 기세로 항복을 요구했을 때, 이 땅에 선생 홀로 태산 같은 담대함과 날카로운 예지력으로 외교 협상을 통해 대군을 물리치는 쾌거를 이룩하셨습니다. 적이 오면 무조건 싸우거나 항복해야 하는 역사시대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현대에 적용해도 전혀 손색없는 우리 역사의 보석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세계는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열강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총성없는 외교전을 치루는 현대에 와서 선생의 가치는 더더욱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지난 1960년대부터 서희선생을 선양하기 위해 동상을 세우고 업적을 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연극을 만들어 공연도 하고 해마다 추모사업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이천시민 모두의 힘으로 선생을 선양하기 위해 정식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도 조직하였습니다.

선생의 역사적 가치가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상황에서 고향의 후손들부터 선생의 참뜻을 일깨우기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선생과 같은 뛰어난 외교관을 탄생시키기 위해 중요한 사업들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그 소중한 사업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학술발표대회를 하는 날입니다. 모쪼록 여러 연구자들께서 좋은 자료들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우리 역사에서 선생의 위상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떻게 하면 이천시가 서희선생 선양사업을 보다 잘 이어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천시와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 서희선생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같은 역사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20만 이천시민들과 함께 자축하며 수고하신 연구자님들과 토론자님들, 그리고 이천시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0월 9일

이천 시장·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장

조병돈

【축사】



"복천(福川) 서희선생의 서세(逝世) 1010주년을 추모하는 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천시의회의장 이현호입니다.

오늘 복천(福川) 서희선생의 서세(逝世) 1010주년을 추모하는 학술대회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찬란한 우리 역사를 대표하는 서희선생의 얼을 오늘에 되살리고 계승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신 이천시 서희선생선양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병돈 이천시장님과 추진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발표 토론을 해 주실 여러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수많은 시련과 외부의 도전을 받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이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지략과 결단력을 지닌 우리 고장 이천이 낳은 자랑스러운 인물인 서희선생은 우리 역사상 그 짝을 찾아보기 힘든 전략가이며 외교관이셨으나, 그러한 선생에 대한 오늘날의 평가가 선생의 빛나는 업적에 비추어 미흡하다는 생각에 안타깝고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마침 1,000여 년 전 서희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역사적인 고장인 이곳 이천에서 선생의 '명분과 실리, 서희의 외교론'을 주제로 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재조명 한다는 것은 매우 뜻 깊고 감사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학술대회를 계기로 복천 서희 선생에 대한 연구가 더욱 폭넓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뜻 깊은 오늘의 서희선생 추모 학술대회를 거듭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0월 9일

이천시의회 의장

이 현 호

【축사】



"우리 역사 최고의 외교관이신 서희선생 추모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희선생 서거 1010주기를 맞이하여 선생의 업적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외교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는 요즘과 같은 시점에서 우리 이천시에서 서희선생의 역사적 업적을 재조명하고 그 교훈을 되새기는 것은 특히나 중요한 일입니다.

993년 거란군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정벌하겠다고 나섰을 때 고려 조정에서는 항복하자는 주장과 땅을 내어 주자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지만 선생은 의연하게 나서서 협상을 벌여 적장 소손녕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뛰어난 슬기를 발휘하시어 고려의 북부 지방을 위협하는 여진족을 몰아내고 강동6주까지 회복하는 영토 확장의 중요한 명분도 얻으셨습니다. 전쟁을 벌여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일 것입니다. 선생의 업적이 길이 빛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선생은 그 짧은 협상의 과정에서 후손들이 길이길이 새겨야 할 협상의 중요한 교훈들을 남기셨습니다. 비록 위기에 처한 나라의 대표로 나섰지만 적장 앞에서 흔들림 없는 기개를 보이신 것도 중요하고, 협상의 전 과정에서 명분을 잃지 않고 상대방의 논리를 역이용하는 슬기를 발휘하셨습니다.

또한 고려가 큰 이익을 얻었음에도 상대방 또한 중요한 것을 얻어 가는 분위기를 연출한 것은 협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올해만 해도 외교문제로 참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FTA협상, 쇠고기 파동, 독도 문제 등 모두가 외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서희선생 같은 외교관이 있었더라면 좀 더 슬기로운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천시가 서희선생 선양사업을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비단 이천시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희 선생은 이천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훌륭한 문화자원이자 역사의 모범이십니다. 이런 분께서 이천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후손된 입장에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오늘의 학술발표대회가 선생의 업적을 되새기는 커다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0월 9일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재혁

- 제 1 부 -

서희선생선양사업 보고

서희 업적 선양의 역사와 미래



서희 업적 선양의 역사와 미래

이 인 수(이천문화원 사무국장)

머리말
Ⅰ. 서희 선양사업의 추진 경과
1. 중리동 서희기념상 건립
2. 서희서거 1000주년 추모학술대회
3 서희선생 기념사업회 활동
4. 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Ⅱ. 서희 관련 유적과 자료 현황
1. 서희 관련 유적과 기념물
2. 서희 관련 출판물 현황
맺음말

머리말

복천(福川) 서희(徐熙) 선생은 우리고장 이천시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고려 성종조의 명신이며 뛰어난 전략가인 동시에 자주정신에 투철한 외교관이었다. 탁월한 지혜와 용기있는 결단력으로 거란 80만 대군의 침략 앞에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던 나라의 운명을 구한 겨레의 스승이다.

성종 12년(서기 993), 고려를 침입해온 거란의 장수 소항덕(蕭恒德)은 옛 고구려의 영토였던 서경 이북의 땅을 요구해 왔다. 거란이 고구려의 옛땅에서 일어나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므로 한반도의 북쪽이 당연히 자기네 땅이라는 것이다.

적의 위세에 잔뜩 겁을 집어먹은 고려 조정의 신하들은 거란의 요구대로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주고 화친을 맺을 것을 주장하였고, 임금도 신하들의 말에 따르려고 했다. 이 때 서희 선생이 결연히 나서서 굴욕적인 화친을 반대하였다. 그후 자청해서 호랑이굴과도 같은 적진으로 가서, 적장과 담판을 통해 거란을 설득함으로써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적군이 스스로 물러가도록 했던 것이다.

만일 서희 선생의 강력한 반대와 거란과 외교협상에서의 승리가 없었다고 가정해 보자. 십중팔구 고려 조정은 소신도 없이 나약하기만한 신하들의 주장대로, 서경 이북의 땅을 거란에게 떼어주고 굴욕적인 화친을 맺게 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고려는 거란의 속국이 되어 두고두고 나라의 주권을 간섭 당하는 수치를 감수해야 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북쪽을 거란이 지배함으로써 장차 국토의 보전마저 힘든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서희 선생이 힘써 이룩한 북방영토의 개척도 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적이다. 서희는 거란과의 협상을 통해, 고구려의 옛 땅인 압록강 유역이 고려의 영토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도록 했다. 그래서 쉴 틈도 없이 군사들을 이끌고 여진 정벌에 나서서 북진개척에 힘을 쏟았고, 청천강 이북의 280리 땅을 확보함으로써 이때부터 비로소 고려의 영토가 압록강까지 확장되었던 것이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몽고, 거란 같은 주변 이민족들의 수많은 침략으로 시달림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마다, 애국충정에 넘친 선열들의 뛰어난 활약으로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보존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서희 선생의 고결한 정신, 탁월한 지혜와 용기있는 결단을 통해 우리 민족사에 남긴 불멸의 업적은 이순신 장군이나 을지문덕 장군같은 위대한 선열들의 업적과 비교해도 조금도 뒤질 것이 없다. 그런데도 선생에 대한 후세 사람들의 평가는 눈부신 업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기만 하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지난 1999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천문화원과 고구려연구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던 「서희 서거 1000주기 추모학술대회」는, 학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서희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처음 조명해 본 뜻깊은 자리였다. 그런데 그때까지 선생에 관한 학계의 연구논문이 단 한편도 없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서희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알 수 있다.

2007년에 이천시가 「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선생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널리 선양하기 위한 일들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서거 1010주기가 되는 금년에는 학술발표회, 토론대회, 서예대전, 백일장 및 사생대회 등의 추모행사와 함께, 서희 선양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기념공원도 건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희 선생이 이천사람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높이고 떠받들자는 것이 아니다. 역사상 큰 업적을 남긴 인물에 대한 평가가 천 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만큼,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Ⅰ. 서희 선양사업의 추진 경과

1. 중리동 서희기념상 건립

우리 고장에서 서희 선양사업을 맨처음 주장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은 농학자인 류달영이었다. 류달영은 1911년 이천군 대월면 고담리에서 태어나 죽남공립보통학교(설성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 교수, 재건국민운동본부장, 대한가족계획협회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총재, 성천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으며, 2004년 향년 94세로 별세하기까지 평생을 농촌사랑과 농촌운동에 헌신해 왔다.

류달영은 고장의 자랑거리로 가장 먼저 내세울 것은 인물과 문화라고 보았다. 그는 '자랑할 만한 큰 인물이 없고, 자랑할 만한 두드러진 문화가 없는 고장 사람들이 권력이나 돈으로 으스대 보았자 그것은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고 하였다. 광개토대왕·을지문덕·세종대왕·이순신 등은 모두 옛날 옛적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들이 세계무대에서

버젓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이라고도 했다.[1]

류달영은 또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각 지방마다 관련있는 옛날 유명인물들을 크게 떠받들고, 그들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하찮은 것이라도 모두 소중하게 보존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고, 고향 이천에서 태어난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가슴속에 자부심을 일깨우는 이천출신의 인물선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이천태생인 나더러 이천의 자랑거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 무엇을 서슴치 않고 열거해야할 것인가. 오늘과 같은 세상에 이천쌀이나 이천도자기만을 자랑거리로 내세우기에는 너무도 가슴이 답답하다.[2]

이렇게 고민하던 류달영은 재건국민운동 본부장 시절,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같은 이천출신 유인상과 상의하여 이천사람들의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정신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서희선생 동상건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재경 이천인사들 몇분과 서희동상건립위원회를 만들고 2년동안 모금을 하였다. 책임감이 강한 유인상 간사는 약 2년 동안 가사도 돌보지 않고 이 일에 매달려 모금을 하러 다녔다. 그 당시는 경제사정이 너무나 빈약한 때였다. 국민 1인당 GNP가 몇 백 불에 지나지 않던 시절이었다.[3]

다 같이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이었으므로 모금과정은 순탄하지가 않았다고 한다. 서희의 후손인 재일교포 출신 유명한 기업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류달영은 유명한 조각가이며 그의 친구이기도 한 김경승에게 부탁하여 마침내 동상을 완성하고 1965년 11월 제막식을 갖게 되었다.

서희 기념상은 구 시청옆 오거리에 세워져서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고장의 중요한 상징물로 자리 잡았다. 서있는 자리가 서희동상 오거리이며, 동상 앞을 지나 시가지를 동서로 관통하는 중심도로의 이름이 서희로, 버스터미널에서 분수대 오거리를 지나는 도로명은 서희의 호를 따서 복천로로 명명되었다.

적은 예산에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탓에 비록 작고 초라한 느낌이긴 하지만 서희 기념상은 그 앞을 오가는 많은 이 고장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천의 자랑이며 긍지로 뚜렷이 각인되어 있다. 위용있는 새 동상이 세워지고 서희선양사업도 본격 추진되고 있는 지금, 이 기념상은 역사의 유물로서 앞으로 세워지게 될 기념관이나 기념공원 같은 곳에 옮겨서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2. 서희서거 1000주년 추모학술대회

---

1) 류달영 「나와 利川」 『설봉문화』 창간호, 1989, 이천문화원, 17쪽
2) 위의 책, 17쪽
3) 위의 책, 19쪽

1965년 서희기념상 건립 이후 한동안 지역내에서 서희 선양에 관한 움직임은 찾기 어렵다. 1984년에 이천문화원이 청소년들을 위한 향토의 얼찾기사업의 일환으로 『국난극복의 슬기, 서희』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간하여 각 학교로 배포했던 것이 거의 유일한 선양활동이었던 셈이다.

1999년은 서희 서거 1000주기가 되는 해였다. 1000주기 기념사업으로 서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적당한 사업을 구상중이던 이천문화원은 사단법인 고구려연구회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서희 서거 1000주기 추모학술대회는 '서희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을 주제로 하여 1999년 11월 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학계와 지역인사, 이천 서씨 대종회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11월7일에는 행사관계자들이 이천의 서희기념상, 설봉서원지, 효양산 서씨시조묘와 여주군에 있는 서희묘 등 관련유적지들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천문화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고구려연구회가 주관, 이천서씨대종회가 후원한 이 날 학술대회에서는, 우리 역사상 국난극복의 위대한 인물이며 특히 외교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으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문헌이나 연구실적이 미흡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서희 선생과 관련된 모두 아홉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서희의 가계연구는 물론, 당시 동북아 정세와 고려의 정치상황, 외교와 국방정책 등이 망라되어 인물에 대한 연구는 물론, 고려 왕조 초기의 역사연구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날 학술대회의 제1부는 추모식으로 이은구 이천문화원장의 개회사, 서길수 고구려연구회장의 서희 약력보고, 김대중 대통령의 메시지 낭독, 이성무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의 추모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축하메세지를 통해 서희 선생을 '우리 겨레의 위대한 스승'이라 칭송하고 '많은 역사적 기록에도 불구하고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노력은 크게 부족했던 것이 사실'임을 지적하였다. 추모식은 김학준 인천대 총장의 「서희 담판의 현대사적 의의」를 제목으로한 추모강연과 강남대학교 중창단의 서희선생찬가 제창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제2부 학술발표회는 서길수 교수의 「서희의 가계연구」를 시작으로 주제별로 아홉편의 논문이 차례로 발표되었다. 중국 연변대학의 서일범 전임강사는 「서희가 축성한 강동 6주의 성곽과 방어체계」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직접 압록강 남쪽 북한땅에 가서 찍어온 슬라이드 사진과 북한측 자료를 통해 수집한 성곽사진들을 공개하여 눈길을 끌었다. 서일범 씨는 일반적으로 강동 6주라 알려진 서희가 개척한 북방영토가, 장흥진·귀화진·안의진·흥화진·곽주·구주·선주·맹주 등 8성이라는 새로운 사실과 함께 각 성의 위치를 하나 하나 고증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윤명철 교수(동국대)는 현재 안산시 성곡동에 있는 잿머리 성황당에 전해오고 있는 서희에 얼킨 설화에 주목하고 「서희와 송나라 사행항로 탐구」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을 통해, 당시 중국과의 교류를 위한 해상교통로를 밝히면서 송과의 사신왕래를 성사시킨 서희의 외교활동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이날 학술대회의 발표자들은 서희의 외교와 북방영토 개척의 공적이, 고려왕조 초기의 외침으로 인한 국난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여기에는 당시의 국제정세를 꿰뚫어 보는 서희의 탁월한 안목과 현실적인 정세판단, 그리고 불굴의 용기와 소신있는 행동이 뒷받침이 되었던 것이며, 고려의 건국이념인 고구려 계승의식과 당시의 정치상황, 거란의 대군과 대등한 수준의 튼튼한 군사력 등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서희 서거 1000주기 추모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제목과 발표자들은 다음과 같다.

① 「서희의 가계연구」 서길수(서경대)
② 「서희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 박한설(강원대)
③ 「서희와 고려 초기의 국내정치」 김당택(전남대)
④ 「서희의 외교정책」 김위현(명지대)
⑤ 「서희의 북방정책」 최규성(상명대)
⑥ 「서희가 축성한 강동 6주의 성곽과 방어체계」 서일범(연변대)
⑦ 「서희의 담판 당시 여요 양국의 전황과 군사력 비교」 이재범(군사연구소)
⑧ 「서희의 송나라 사행항로 탐구」 윤명철(동국대)
⑨ 「근대 서양 외교사에서 본 서희」 이재석(인천대)

3. 서희선생 기념사업회 활동

1) 서희기념상 건립추진

2003년도에 접어들면서 당시 일부 문화예술단체와 지역 언론 등에 의해 서희 선양을 위한 새로운 기념상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규모가 작고 초라한 기존의 기념상 대신, 위용 있는 모습의 새로운 동상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운동 등을 통해 건립하자는 것인데, 이 운동에는 미술협회이천시지부(지부장-강신영)가 앞장서서 「서희동상 건립을 위한 기금마련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 해 7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열린 기금마련전에는 강대철 조각가, 곽석손 한국미술협회이사장, 임근우(국전대상수상)를 비롯한 초대작가 13명과 미협회원 15명이 참가하여 모두 1천1백30만원이 판매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판매액 중 전시경비를 제외한 8백8십여 만원이 기념상 건립기금으로 전달되었다.

기념상 건립사업은 당시 이천문화원이 주관해 오던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사업예산 가운데 일부인 5천만원을 기념상 제작비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10월부터 시작된 기념상 제작은 조각가 강대철의 지휘 아래 미술협회 회원인 조각가 최태훈·강명주가 함께 참여하여 주물비를 비롯한 재료비 보상 수준의 실비제작으로 이루어졌으며, 거란의 적장과 담판하기 위해 관복을 입은 자세로 위엄있게 앉아있는 서희 선생의 모습을 재현

하였다. 기념상 제작에는 좌대제작과 설치비를 포함하여 모두 7천9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 기념상 건립 추진경과 □

○서희선생동상 건립기금 마련전시회
-2003. 7. 5 ~ 7. 10, 시민회관 전시실
-주최: 미술협회 이천시지부

○서희선생 기념상 제작
-2003. 9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사업예산 중 기념상 제작비 5000만원 확보
-2003. 10 ~ 12 기념상 공동제작(강대철, 강명주, 최태훈)
-2003. 11. 25 ~ 11. 29 제작과정 일반공개
-2004. 3 기념상 제작완료
-2004. 4 ~ 5 기념상 좌대 설치공사 진행

○소리극 '서희선생' 순회공연 - 국악협회 이천시지부 주최
-1차 : 2003. 12. 5 시민회관 대강당
-2차 : 2003. 12. 7 장호원읍 청미도서관
-3차 : 2004. 1. 19 시민회관(이천아카데미 초청공연)

○서희선생 기념상 제막식
-2004. 5. 21 충효동산
-이천시 주최, 이천문화원. 예총이천시지부 공동주관

□ 건립기금 모금 내역 □

○ 이천시원목회	10,000,000
○ 이원회	12,000,000
○ 이천서씨병사공파종친회	10,000,000
○ 이천미협(모금전시회 수익금)	8,807,170
○ 하이닉스	3,000,000
○ 기타협찬금	400,000
계	44,207,170

2) 서희선생기념사업회 결성과 기념상 제막식

위엄있는 새 기념상이 완성됨에 따라 당시 유승우 이천시장의 주선으로 관내 시민·사회단체 및 이천서씨 문중이 함께 참여하는 서희선생기념사업회가 결성되어, 2004년 3월 22일 시민회관 소회의실에서 창립준비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희선생기념상 제막식 및 서희선생기념사업회 창립대회」를 5월 21일 설봉공원 충효동산에서 갖기로 하고, 대회준비위원장에 이상구 이천문화원장을 선임했다.

이천시가 주최하고 이천문화원과 예총이천시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막식 및 기념사업회 창립대회에는 유승우 시장, 유준열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관내 각 기관 및 사회단체장들과 기념 사업회 위원들, 서상일 이천서씨대종회장과 전국의 종친회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장호공고 관악부의 축하연주로 막이 오른 식전행사는 연희 극단 「배꼽」의 풍물놀이, 이천시어린이합창단의 서희선생찬가 합창으로 이어졌다. 본 행사는 경과보고에 이어, 감사패 증정과 유승우 시장의 기념사,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축사(이기수 문화관광국장 대신낭독), 이상구 문화원장의 서희선생기념사업회 창립선언문 낭독, 소리극 '서희선생' 축하공연, 기념상 제막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제막식에서는 조각가 강대철씨, 이기수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이원회, 미협이천시지부 등 기념상 건립에 공이 큰 개인 및 단체들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제막식 및 창립대회를 성황리에 마친 서희선생기념사업회는 7월 22일 시청회의실에서 총회를 갖고 회칙제정, 임원선출, 사업계획안 승인 등을 통한 운영체제를 정비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이천문화원, 이천YMCA, 이천상공회의소, 이원회, 이천예총, 이천서씨병사공파종친회, 이천청년회의소 등 38개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했으며, 유승우 이천시장을 명예회장으로, 회장에 이상구 이천문화원장, 부회장 곽병두 이천향토협의회장, 이경근 설봉신문사장, 감사에는 이교선 이천YMCA이사장, 이성근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을 각각 선출했다.

사업계획으로는 단기사업으로 전기집 발간, 추모백일장 개최, 서희선생 추모제, 추모강연회 개최 등을 추진키로 하고, 중장기 사업으로는 서희선생의 업적 재조명을 위한 학술세미나, 관련자료집 발간, 서희선생 관련 유적지 답사, 추모음악회 ㉮최, 기념관, 또는 추모공원 건립추진 등이 계획되었다.

서희선생기념사업회는 서희 서거 1006주기가 되는 이 해 9월11일을 기해, 충효동산 기념상 앞에서 이원회 주관으로 추모제를 개최하고, 문화원과 공동으로 『겨레의 위대한 스승』 전기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순수 민간기구로 출발했던 기념사업회는 그 후 눈에 띄는 활동을 보여주지는 못했으며, 이천시가 주도한 서희선생선양사업회가 발족되자 2007년 5월 긴급 임원회의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사업비 잉여금은 선양사업회로 이관하기로 했다.

3) 서희선생 추모제

서희선생 서거 1006주기를 기념하는 추모제가 2004년 9월 11일 오전 10시 설봉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거행되었다. 이천시와 서희선생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하고 이원회에서 주관한

이날 추모제는 충효동산 서희기념상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 폭우와 바람이 심한 날씨 탓에 장소를 옮겨 진행됐으며 각급 기관단체장들과 이원회 회원,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원회가 주관하는 서희선생추모제는 기일인 음력 7월 14일을 전후한 시기를 택해 2007년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진행되어 왔다. 2005년 서희서거 1007주기 추모제는 8월 31일 오전 10시 충효동산에서 열렸으며, 이날 추모제가 끝난 후 이원회 회원들은 여주군 금사면에 있는 서희선생 묘소를 함께 참배하기도 했다.

4. 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서희 선생에 대한 선양사업과 활동이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을 통해 조금씩 확산되면서, 이 사업을 단순히 이천지역의 문제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마침내 2007년 당시 이천시의회의 이현호 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이천시 복천 서희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다.

조례에 의해 2007년 8월 29일 조병돈 이천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가 정식 발족되고, 12월 31일 조례 개정을 통해 15인 이내의 추진위원과 10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29일 구 시청 회의실에서 이상욱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서희선생선양사업회의 2008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먼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희 선양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 개발'을 들 수 있다. 또 매년 10월 둘째 주를 서희주간으로 정하여 금년 10월 10일을 기점으로 서희 관련 학술논문발표대회, 제2회 서희선생 전국서예대전, 서희서거 1010주기 기념 추모제회, 서희얼계승 학생토론대회, 서희묘소순례, 기념사생대회 및 백일장 등이 열릴 예정이다.

2004년 9월 1일 이천시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평생학습활동을 통한 서희선양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서희, 협상을 말하다』의 저자인 김기홍 교수(부산대)를 이천아카데미의 강사로 초청한다거나, 청소년들을 위한 서희선생 만화집 발간 등이 평생학습활동을 통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천시 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

□ 추진위원 명단 □

조병돈	이천시장	추진원장
정백우	이천시범죄예방위원회 회장	부위원장
이현호	이천시의회의장	
권영천	이천시의회부의장	
이상구	이천문화원장	

심덕구 한국예총이천시지부장
이교선 이천YMCA이사장
윤창호 이천도자기협동조합이사장
곽수영 부발중학교교장
김경희 이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
박선기 이천시생활체육협의회장
김찬식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이순탁 한국BBS경기도연맹이천시지회장
윤동선 예스TV대표
최병주 이천기업인협회장

□ 실무위원 명단 □

이상욱 이원회 감사 실무위원장
이인수 이천문화원사무국장
김학인 이천시의회의원
김문자 이천시의회의원
최병재 자영업
김선우 시립월전미술관행정팀장
성수석 이천예총사무국장
신배섭 이천양정여고 교사
이상욱 이천한내초등학교 교사
권연주 이천YMCA청소년사업부간사

Ⅱ. 서희 관련 유적과 자료 현황

1. 서희 관련 유적과 기념물

1) 설봉서원(雪峰書院)

이천시 관고동 설봉산 기슭에 있다. 설봉서원은 원래가 삼현사(三賢祠)라고해서 명종 19년(서기 1564), 당시 이천부사로 있던 정현(鄭礥)이 안흥동 안흥지 연못 상단에 처음 건립하고 서희와 이관의(李寬義), 김안국(金安國) 3인을 제향했다. 선조 25년(1592)에 관고동 설봉호수 진입로 우측으로 이건하여 설봉서원이라 이름하였고, 철종 8년(1857) 최숙정(崔淑精)을 추가로 배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배향인물 중 이관의는 조선 성종 때 학자로 이름이 났으며 마장면 관리에서 우거하며 후학들을 가르쳤다. 최숙정 역시 성종 때의 인물로 이천사람이다. 성리학의 대가인 김종직·강

희맹·서거정 등과 교유하며 시문으로 이름을 떨쳤다. 김안국은 중종조의 문신이며 학자로 조광조·기준 등과 더불어 사림파의 중심인물이었다. 기묘사화가 일어 났을때 외직에 있었기 때문에 화를 면하고 파직 당하자, 이천 주촌(지금의 부발읍 죽당리)에 내려와 9년 동안 은거생활을 하면서 당시 향촌사회와 후학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설봉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풍기 백운동서원보다 건립연대가 20년 밖에 뒤지지 않는 이른 시기에 세워졌다. 그러나 사액서원이 아니었던 탓에 고종 7년(1870),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없어지고 그 자리에 위패를 묻은 흙무덤처럼 생긴 제단을 설치해 놓았다. 1977년 제단이 놓여있던 자리에 현충탑을 건립했다가,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봉공원 진입로를 확장하면서 현충탑마저 이전하여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지금의 설봉서원은 이천시와 이천서씨, 광주이씨, 의성김씨, 양천최씨 4개 문중 및 지역 유림들이 앞장서서 설봉서원 복원을 추진한 결과, 착공 1년 4개월만인 2007년 4월 준공식을 갖게 되었다. 부지면적 6,612㎡에 주요시설로는 대성전과 동·서재, 강당, 내·외삼문 등이 있으며, 설봉산 주봉 아래 울창한 숲과 계곡에 둘러싸여 경치가 아름답다.

2) 충효동산 서희기념상

구 시청 남쪽 서희동상오거리에 있는 서희선생기념상이 1965년에 제작되어 규모가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새 기념상 건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서희선생기념사업회가 건립하고 2004년 5월21일 제막식을 가졌다. 설봉공원 충효동산 중앙 상단에 있으며, 적장과 담판하기 위해 근엄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지역작가인 강대철, 강명주, 최태훈 3인의 공동제작이다.

건립예산은 이천문화원이 주관한 국제조각심포지엄 사업비 중 5천만원과, 미술협회이천시지부의 기금모금을 위한 전람회 수입, 이원회, 원목회, 이천서씨종친회, 하이닉스의 기부금 등 7천9백만원이 소요되었다. 이원회가 주관하여 매년 음력 7월 서희 선생 기일을 전후하여 기념상 앞에서 추모제를 갖고 있다. 충효동산에는 서희기념상 외에도 고려시대에서 구한말까지 이천이 배출한 충신, 효자, 열녀, 애국지사 72명의 행적이 전시되어 있다.

3) 중리동 서희 기념상

이천시에서 최초로 건립된 인물기념상으로 구 시청옆 로타리 중앙에 북쪽을 향해 세워져 있다. 1960년대 초 재건국민동본부장으로 있던 농학자 류달영(柳達永) 박사가 이천의 대표적인 인물인 서희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동상건립위원회를 만들고, 조각가 김경승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1965년 11월에 제막식을 가졌다.

4) 효양산 서씨시조묘역

이천 서씨들의 시조이며 서희 선생의 할아버지인 서신일(徐神逸) 묘역으로 부발읍 산촌리, 효양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묘역 진입로 중앙에 자갈을 깔아 치장했고, 묘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좌우측에 망주석을 세웠다. 30㎝ 정도의 장방형 화강석으로 기단을 구분하고, 3단으로 층을 나누어 석물을 배치했다. 묘역에는 원형의 봉분과 묘비 3기, 그리고 대소 문인석이 좌우로 한 쌍씩 있다. 그밖에 장명등, 망주석, 상석이 있다. 봉분에는 화강석 호석을 둘렀고, 작은 문인석 한 쌍은 높이 165㎝ 가량으로 특이한 모습이다. 구비와 망주석 한 쌍을 제외한 다른 석물들은 모두 근래에 후손들이 새로 조성한 것들이다. 구비는 팔작지붕의 개석과 대석이 있는데 비신은 흰빛이 도는 대리석 전면에 '신라아간서공지묘(新羅阿干徐公之墓)' 라 새겼다. 건립시기는 조선 후기로 추정된다. 중앙의 묘비는 1960년, 좌측 묘비는 1991년에 건립된 것으로 이가원(李家源)이 비문을 짓고, 서예가 김충현(金忠顯)이 글씨를 썼다.[4)]

서신일은 신라말 고려초의 인물로 효공왕 때 아간 벼슬에 있었으나 나라가 어지러운 것을 보고 이천 효양산으로 들어와 은거했다고 한다. 하루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데 사냥꾼의 화살을 맞고 쫓기는 사슴이 뛰어들자 풀더미 속에 숨겨서 목숨을 구해 주었다. 그 공덕으로 효양산 신령으로부터 나이 80세에 아들을 얻고, 후손들이 대대로 번창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유명한 일화이다. 우리나라의 서씨들은 대부분이 신일에게서 비롯되어 달성·대구·남양·장성 등 여러 이본으로 갈라졌다고 한다.

신일이 사슴을 구해준 은덕으로 나이 80세에 얻은 아들이 고려 광종 때의 명재상인 정민공(貞敏公) 서필(徐弼)이다. 필의 아들이 장위공(章威公) 희, 희의 아들인 원숙공(元肅公) 서눌(徐訥)로 이어지면서, 조손 삼대가 모두 최고 벼슬에 오르고 임금묘정에 배향되는 등 신령의 예언처럼 후손들이 크게 번창하였다. 효양산은 서희의 고향이며 모든 서씨들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또한 산촌리에는 재실과 함께 당시(1967)의 국무총리 최두선(崔斗善)이 비문을 짓고 서예가 김충현이 글씨를 쓴 신도비가 있다. 2007년 이천시 향토유적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5) 상두산 서희묘역

서희 선생의 묘는 여주군 산북면 후리 양지말의 상두산(象頭山) 자락에 위치하며, 경기도 기념물 제36호로 지정되었다. 바로 아래 부친인 서필의 묘가 있다.

묘역은 2단의 사각호석을 각각 두른 쌍분에 3단으로 된 계체석(階砌石)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좌측 봉분 앞에 상석과 고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우측의 봉분 앞에도 상석이 배설되어 있다. 원래 상석 앞에는 2기의 장명등이 있었으나, 좌측 장명등은 근래에 도난당해 지금은 높이 154㎝의 우측 장명등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장명등은 창을 내고 화문을 조각한 몸체 위에 두 개의 사모지붕을 겹쳐 올렸는데, 지붕 하나는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중간의 어느 시기엔가 첨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묘역 좌우에는 문인석과 무인석이 한 쌍씩 시립해 있다. 문인석은 높이 137㎝로, 복두공복을 착용하고 무인석(높이 150㎝)은 장검을 땅에 꽂

4) 『이천시지』 제2권 인물과문화유산, 451쪽

고 서있으나 박락이 심한 상태이다. 봉분 사이에 방부원수 양식을 한 묘표가 건립되어 있는데, 앞면에 큰 해서로 '송 검교병부상서 고려태보태사내사령 시장위서공희지묘(宋檢校兵部尙書 高麗太保太師內史令 諡章威徐公熙之墓)' 라고 써서 피장자의 신원을 밝히고 있으나, 비신의 나머지 삼면에는 아무런 기록도 없다. 아버지 서필의 묘표와 동일한 시기인 조선조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5]

부친 서필의 묘역에는 상석, 문인석, 무인석의 옛 석물이 갖추어져 있다. 쌍분으로 구성된 묘역은 1989년에 새로 개수하면서 원형이 크게 변형된 상태이다. 대리석으로 만든 높이 121.5㎝의 묘표 전면에는 큰 해서로 '고려삼중대광태사내사령 시정민서공필지묘(高麗三重大匡太師內史令 諡貞敏徐公弼之墓)' 라 새겼다. 묘표의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지만 각자의 서체와 묘표 양식으로 미루어 조선 후기로 추정된다. 묘역 좌우로는 문인석과 무인석이 각각 1쌍씩 시립해 있다.[6]

정민공(貞敏公) 서필과 장위공(章威公) 서희를 모신 상산재(象山齋)는 산북면 후리 뒷골마을 동쪽 외곽에 있으며 건너편 산등성이에 묘역이 있다. 단층의 양옥 건물로 옥상에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상산재' 라 써 놓았다. 재실의 앞쪽에는 최근에 건립한 서필과 서희의 신도비가 나란히 자리잡고 있다.

6) 숭의전(崇義殿)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 있으며, 조선시대 때 고려 태조와 7왕을 제사지내던 사당으로 1971년 12월28일 사적 제223호로 지정되었다.

태조 6년(서기 1397), 왕명으로 묘를 세우고 고려 태조에 대한 제사를 받들도록 했으며, 정종1년(1399)에는 태조와 혜종·정종·광종·경종·성종·목종·현종 등 7왕을 함께 제사지내도록 했다. 문종 2년(1452)에 이곳을 숭의전이라 이름하고, 고려 왕실의 먼 후손을 찾아내어 토지와 노비를 내리고 제사를 받들도록 했다.

이듬해 단종 즉위년에 의정부가 예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고려왕실의 개국공신인 배현경·홍유·복지겸·신승겸 4인과, 거란 소손녕의 침입을 물리친 태사내사령 장위공 서희같은 신하들은, 각 왕대에 배향된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백성들에게 공로가 있는 신하들이므로 고려 왕들의 제사를 받들 때 함께 제사하도록 해야 한다' 고 하여 이에 따르도록 했다.[7] 이 때부터 서희를 비롯한 15명의 고려왕조 공신들의 위패를 함께 모시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원래 정전을 비롯한 전사청, 후신청, 남문, 수복사, 곳간 등이 있어 조선조 멸망 이후 일제시대까지도 매년 춘·추로 향사를 이어왔으나 6·25전쟁 때 모두 불타 없어지고 근래에 와서 정전과 이안청, 배신청, 삼문 등을 새로 복원해 놓았다.

---

5) 『여주군지』 제3권, 648~649쪽, 2005, 여주군사편찬위원회
6) 위의 책 649쪽
7) 『단종실록』 즉위년 12월13일

7) 잿머리 성황당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산 76번지에 있다. 성황당의 면적은 15평, 당집에는 홍씨부인(신라 경순왕비), 안씨부인(홍씨 부인의 친정어머니), 관음장군, 마태장군, 대신, 용궁칠성 영정과 함께 칠성기 등이 보관되어 있다.

잿머리성황당이 처음 생겨나게 된 유래는 서희와 관련이 있다. 서희가 31세 되던 고려 광종 23년(서기 972), 왕명을 받아 송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바다를 건너기 위해 잿머리 포구에서 배를 타려하는데, 갑자기 잠잠하던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를 띄울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서희의 꿈속에 소복을 한 두 여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우리는 신라 마지막 임금 경순왕의 비인 홍씨와, 친정어머니 안씨인데, 나라가 망하고 비명에 죽은 것이 한이 되어 혼령이 안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배회하고 있으니, 우리 모녀의 거처라도 마련해 달라' 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꿈을 깬 서희는 이튿날 그곳에 작은 성을 쌓고 사당을 지은 후 화공을 불러 꿈에서 본 두 여인의 영정을 그리도록 해서 제단 앞에 모신 다음 정성껏 위령제를 재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바다가 잔잔해 져서 서희는 무사히 송나라로 건너가 막중한 외교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설화에 나타나듯 잿머리성황당은 왕비의 원혼을 위로하여 새로운 항로를 트고 외교임무를 완수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 후부터 중국을 드나드는 사신은 물론 이곳 백성들도 이 사당에 제물을 차려 놓고 극진히 정성을 들여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당집이 있는 산(해봉산)에는 서희가 쌓았다는 성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매년 잿머리성황제를 지내고 있다. 안산시 향토유적 1호로 지정되었다.[8)]

「서희 서거 1000주년 추모학술대회」에서 윤명철(동국대) 교수는 서희의 전설이 깃든 잿머리성황당이 있는 안산만 일대가 당시 고려의 해양전략적 요충지였다는 것을 밝히고, 서희의 사행단이 바다를 건널 때 이곳을 출발지나 중간기착지, 또는 피항지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9)]

8) 서희 8성

역사적인 담판에 의해 거란군이 물러간 이듬해인 성종 13년(서기 994)부터 서희는 군사들을 이끌고 북진개척에 나섰다. 이때부터 약 3년 여에 걸쳐 청천강 북쪽 280리 땅에 여진족을 몰아내고 8개의 성을 쌓았다. 서희가 쌓은 성을 강동 6주라고 해서 여섯 개의 성으로 알려져 왔으나, 「서희서거 1000주년 추모학술대회」에서 두 개가 더 많은 8개의 성이라는 것이 밝혀졌다.[10)]

서희가 개척한 청천강 북쪽의 땅은 고구려 멸망 이후 주인없는 땅이 되고 말아서, 여진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때로는 고려의 변방을 침입하여 약탈을 일삼는 등 문제거리가 돼 있었

8) 『안산시사』 상권 545~546쪽, 1999, 안산시사편찬위원회
9) 윤명철, 「서희의 송나라 사행항로 탐구」 『서희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 사단법인 고구려연구회 편, 1999, 학연문화사
10) 서일범 「서희가 축성한 성곽과 청천강 이북의 방어체계」 위의 책

다. 소항덕과의 담판 결과, 고려의 북진개척을 거란이 묵인하고 그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약속한 절호의 기회를 서희는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다. 여진인들을 몰아내고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아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고려 건국 이래의 숙원인 북진정책을 실현시켜 보자는 것이다.

서희는 성종에게 간하여 몸소 여진토벌에 나서서 첫 해에 장흥·귀화 두 진과 곽주·귀주 두 고을에 성과 보루를 쌓았고, 다음 해 안의·흥화 두 진에 성을 쌓았다. 또 그 다음해에는 선주·맹주 두 곳의 여진인들을 몰아내고 성을 쌓아 군대를 두어 방비토록 했다. 서희 선생이 개척한 8성의 현재 위치를 서일범(연변대) 교수는 자신이 직접 북한지역에 가서 현지를 답사한 내용과 북한측 자료들까지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비정하고 있다.[11]

①장흥진(長興鎭) - 평북 태천군 지역으로 추정
②귀화진(歸化鎭) - 알 수 없음
③안의진(安義鎭) - 평안북도 천마군
④흥화진(興化鎭) - 평북 피안군 당후리 걸망성
⑤곽주(郭州) - 평안북도 곽산군 능한산성
⑥귀주(龜州) - 평안북도 구성군 구성읍성
⑦선주(宣州) - 평안북도 동림군 동림산성
⑧맹주(孟州) - 평안남도 맹산군

이렇듯 3년 여에 걸쳐 여진족을 몰아내고 북진개척에 힘쓴 결과, 청천강 이북 280리의 땅을 확보하여 이때부터 비로소 고려의 영토가 압록강 연안에 까지 미치게 되었다. 서희가 개척한 북진은 후일 일어난 거란의 2차와 3차 침입 당시 고려의 중요한 방어진지로써 적을 물리치는데 막중한 역할을 했다.

서희가 개척한 북방영토가 강동 6주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서희서거 1000주년 추모학술대회」에서 서일범교수가 제안한 「서희 8성」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2. 서희 관련 출판물 현황

1) 국난 극복의 슬기, 서희

이천문화원이 1984년 1월에 펴낸 최초의 서희전기집이다. '우리 고장의 숨겨진 역사를 밝혀 이 고장의 뿌리를 찾아내는 일, 또 이 땅에 살다 간 우리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행적을 밝혀, 이들이 남긴 정신을 오늘의 세대 속에 심어 주는 일이 문화원이 해야 할 일중에 하나 ' 라고 책머리에서도 밝혔듯, 고장의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한 문화원의 향토의 얼찾기운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의 목숨을 구해 준 은공으로 효양산 신령의 도움을 받아 나이 80

11) 서일범, 위의책 150~157쪽

세에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효양산 전설을 담은 '은혜 갚은 사슴' 을 시작으로 서희의 가계, 서희의 생애, 거란 고려침략의 배경, 거란의 2차침략, 거란의 3차침략, 거란의 1차침략과 서희, 적장과의 담판, 국난극복의 슬기, 북진을 개척하다 등 모두 열 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 서희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하고 있다. 이천문화원 이인수사무국장이 글을 쓰고 조각가 강대철이 삽화를 그렸다.

2) 서희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

1999년 11월8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장에서 열린 「서희서거 1000주기 추모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논문들을 한데모은 논문집이다. 사단법인 고구려연구회 학술총서 2집으로 1999년 12월, 학연문화사에서 발행하였다. 「서희의 가계연구」 등 9편의 논문과 토론문, 김대중 대통령의 메시지, 김학준(인천대) 총장의 추모사 등을 수록하였다.

「서희의 가계연구-서길수(서경대)」에서는 가계의 특성과 함께 '서희는 장군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흔히 '서희장군' 이라고 부르지만 이 표현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서희의 벼슬을 보면 무관 벼슬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서희와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을 발표한 김당택(전담대) 교수는 성종 때 최승로를 대표로 하는 신라계와, 천추태후를 대표로 하는 황해도 지역 출신이 세력을 주도하였으나, 서희가 거란을 물리치고 정치적 두각을 나타내면서 지역성을 탈피한 과거합격자 출신의 인물들이 정계를 주도했다고 주장하였다. 「서희의 외교정책」을 발표한 김위현(명지대) 교수는 서희가 담판에서 승리한 것은 국제적 감각, 국제정세 파악력, 조리 정연한 주장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지만, 고려-거란-송-여진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간접적인 원인도 크게 작용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서희의 북방정책」에서 최규성(상명대) 교수는 서희 선생이 소손녕과의 담판을 통해 얻어낸 고구려 고토의 회복이라는 본래의 구상대로 북진의 기회를 끝까지 활용하지 못하고 고려가 영토확장을 강동 6주에서 그친 것은, 당시 거란의 강대한 군사력에 겁먹고 있던 할지론자들의 조급한 관계 정상화 건의를 성종이 채택한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서희가 쌓은 성곽과 청천강 이북 방어체계」를 연구한 서일범(연변대) 교수는 최근 북한에 가서 직접 답사한 자료와 북한 측 사료들까지 검토해서 서희 선생이 쌓은 8성에 대한 정확한 위치 비정과 성의 현황을 밝히고 있다.

이재범(군사연구소) 박사는 「서희 담판 당시 여·요 양국의 전황과 군사력 비교」 논문을 통해 고려가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양국의 작전을 상세하게 비교하고 있다. 윤명철(동국대) 교수의 「서희의 송나라 사행항로 탐구」는 서희 선생이 송나라 사신으로 갈 때 이용한 항로를 탐구함으로 해서 고려와 송의 해양 외교 및 교역을 조명하였다.

이재석(인천대)교수의 「근대 외교사적 입장에서 본 서희」는 역사학자가 아닌 정치외교를 전공하는 학자로서 서희의 외교적 의미를 재해석해 본 흥미 있는 내용이다. 서희의 외교는 융통성 있는 고려 외교력의 한 모델이며, 고려를 약소국이라 할 수 없지만 현대에서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국가가 취할 외교정책 원칙의 선구적인 사례가 된다고 하였다.

발표된 아홉 편의 논문들이 모두 서희에 관한 학계 최초의 논문들이라는 점에서 서희 연구에 중요한 지침서가 되는 책이다.

3) 서희, 협상을 말하다.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김기홍 교수가 '위대한 협상가로서의 서희' 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한 책이다. 2004년 6월 「새로운 제안」에서 출판하였다.

> 세치 혀로 강동 6주를 획득한 고려의 재상 서희, 만약 그가 지금 한국의 협상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극한 대립과 갈등만을 반복하는 후손들의 모습은 그의 눈에 어떻게 비쳐질까? 이전투구만 일삼는 이익단체들, 극한으로 치닫는 노사관계, 우유부단한 정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국회를 본다면 또 어떤 생각을 할까?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저자는 이 책에서 1천년전 서희의 협상을 거울삼아 오늘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협상이란 관점에서 풀이하고 있다. 『한국인은 왜 항상 협상에서 지는가』라는 책을 쓰기도한 저자는 이번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서 이 정도의 협상가와 협상의 경험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새로운 흥분이었고, 내가 느낀 그 흥분을 가급적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 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인물이던 서희를 대립과 갈등으로 가득찬 오늘의 세계로 끌어내어 서희의 협상 내용을 새롭게 분석하고, 오늘날 우리의 협상이 항상 실패로 끝나고 마는 이유와 협상에서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설명해 놓았다.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서희, 거란과 협상을 하다」는 과거의 역사의 현장으로 되돌아가 서희의 협상을 살펴보고, 거란과의 협상의 진행과정과 성공요인들을 현대의 협상론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부-서희가 지금 살아있다면」은 서희의 눈에 지금의 한국사회가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본 뒤,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내용이며, 「3부-서희가 되기를 꿈꾸다」는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협상 상황에 대비해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또 '서희의 협상가적 덕목' 을 ①시대에 대한 소명의식 ②지적능력 ③국제감각 ④통찰력 ⑤원칙준수와 용기 ⑥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 ⑦대화능력 등 일곱가지로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덕목들을 갖추었기에 서희가 역사속에 빛나는 위대한 협상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며, 단순히 말을 잘한다거나 외형적인 협상 기술만 익혀서는 결코 훌륭한 협상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인생의 8할이 협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직장과 사회, 국가는 물론이고 개인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매끄럽고 윤기있게 하기 위해서도 올바른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희 한 사람의 탁월한 협상이 우리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고, 수백만 국민을 전쟁의 참화로부터 보호하였으며, 평양 이남으로 국한될 뻔 했던 고려의 영토를 압록강변까

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겨레의 위대한 스승으로서 서희 선생이 정당하게 평가되고 마땅히 추앙받아야 할 이유인 것이다.

4) 겨레의 위대한 스승, 서희

서희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정리한 소책자로 이천문화원 이인수 사무국장이 글을 쓰고 이천문화원과 서희선생기념사업회가 2004년 9월에 공동으로 발행하였다. 1984년 발행 『국난극복의 슬기, 서희』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후 학술대회 논문 등을 통해 발표된 새로운 내용들을 보완하여 새롭게 구성했다. 은혜갚은 사슴, 서희 선생의 가계, 서희 선생의 생애, 고려의 북방정책과 거란, 거란의 2차 침입과 3차 침입, 거란의 1차 침입과 서희, 고려의 큰 별이 지다 등 모두 9편으로 구성됐으며, 서희 선생 약력, 서희선생찬가, 서희 관련사료, 서희선생기념사업회 창립선언문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5) 서희의 외교담판
-고구려 영토수복 어떻게 가능했나-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교부 동남아과장, 대변인, 주중국대사관 공사, 주라오스 대사 등을 지낸 직업외교관 출신 장철균 씨가 외교 전략의 측면에서 서희의 업적을 재조명하였다.
북방 유목민족 거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태조 왕건의 북방정책을 비롯한 고려초의 상황을 다루면서, 중국 중심의 한·중 관계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역사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 역사를 살펴보고, 거란의 대군이 침입했을 때 적장을 설득하여 옛 고구려의 영토를 수복한 지혜로운 외교전략가 서희의 업적을 되짚어 본 내용이다.

> 서희는 고려초 거란의 대군이 침입했을 때 '세 치 혀'로 적장을 설득해, 압록강 하구로부터 청천강에 이르는 평안북도의 서편 280리에 해당하는 옛 고구려의 영토를 수복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실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군사적으로 월등한 적대국이 다른 나라를 침입해 이해관계가 큰 요충지를 자신이 차지하지 않고 상대측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돌아간 사건은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또 '전쟁에서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은 더 큰승리' 라고 하면서 '시대를 이용해 고구려 영토를 수복한 위대한 외교전략가 서희' 를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에 버금가는 역사의 위인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 서희와 소손녕의 외교 담판은 '칼' 을 들지 않은 '전쟁' 이었다. 배수진을 친 한판의 결전이었던 것이다. 이 결전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연상케 한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다윗의 승리이며 지혜의 승리였던 것이다. 우리는 흔

히 역사의 위인으로서 한글을 창제하여 민족의 영원한 정체성을 확립시킨 세종, 그리고 임진왜란 시에 거북선을 만들어 나라를 구한 이순신을 내세운다. 이제 우리 역사에 있어 조선시대의 세종과 이순신에 버금가는 인물로 고려 초 왕건과 서희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제1장-동아시아 역사의 재조명, 제2장-고려의 북방정책, 제3장-서희외교, 제4장-영토분쟁과 협상, 제5장-역사는 반복하는가 등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2004년 10월, 현음사 발행이다.

6) 황희처럼 듣고 서희처럼 말하라

청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박성희 교수가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하는 위인의 삶과 사상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의 고민을 풀어주는 청소년을 위한 책이다. 황희와 서희, 유성룡과 김성일, 이이와 허목, 이황, 김상헌, 최명길, 이항복, 황진이 등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하는 위인의 생애와 사상을 통해,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우정, 연애, 진로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황희와 서희의 장에서는 두 사람의 일화를 통해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그 위에서 나의 논리를 전개시키는 대화의 올바른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2007년 5월 출판사 「이너북스」 발행.

7) 만화로 보는 인물이야기-서희 선생

만화로 보는 인물이야기 『겨레의 위대한 스승 서희선생』은 이천시와 서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가 청소년들에게 서희 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청강만화스튜디오(글-박인하, 그림-김광옥)에 의뢰하여 만화로 제작하였다.

제1장, 「은혜갚은 사슴」에서는 화살에 맞은 사슴을 살려줘 아들을 얻은 서희선생의 할아버지 서신일 처사의 이야기에서부터 서희 선생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제2장「어린 시절」은 염윤이란 이름으로 불리던 선생의 어린 시절 일화가 펼쳐진다.

제3장-서희, 관직에 나가다, 제4장-올바른 일에는 목숨을 건다, 제5장-젊은 외교관 서희, 제6장-위기의 고려, 제7장-80만 대군과 홀로 맞서다. 등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희 선생묘소, 설봉서원, 서희기념상 등 서희관련 유적도 소개하고 있다. 2008년 1월에 발행.

만화적인 특성상 이 책에는 특히 서희의 어린 시절에서 청년 시절에 이르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닌 상상력에 의해 꾸며낸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사료에 나오는 사실적인 기록과 혼돈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맺음말

요즈음 우리나라는 갈수록 복잡하기만 한 국제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로 남북이 아직도 서로 대치하고 있으며, 이 같은 한반도의 정세를 각자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 이용하려 드는 미국·러시아·일본·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외교 전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쇠고기 협상과 독도문제로 온 나라가 한바탕 들썩이며 극심한 진통을 겪었고, 뒤틀어진 남북관계 역시 대화통로가 꽉 막힌 상태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수년전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납치피살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터넷상에서 약소국의 한계와 정부의 무능한 외교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들과 함께 '내각드림팀' 이란 것이 등장하여 관심을 끌었었다. 고금을 망라한 역사상 위인들로 최고의 이상적인 정부를 구성했는데, 외교부장관에는 서희, 국방부장관에 이순신, 해양수산부장관에 장보고가 뽑혔다. 우리 역사상 최고의 외교관을 한사람 들라면 단연코 서희인 것이다. 세계무대에서 외교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서희 선생의 업적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다.

최근에 와서 중국이 소위 '동북공정(東北工程)' 을 추진하면서 고구려사를 비롯한 노골적인 역사왜곡을 시도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동북공정에서 중국측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서희의 담판 때 거란이 주장했던 내용들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북공정이란 중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 직속기관인 변강사지연구중심(邊疆史地研究中心)이 2002년 2월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연구 과제를 말하는데 '동북변강의 역사와 현상에 대한 연구연속공정' 의 줄임말이다. 옛 고구려의 영토였던 중국 동북지방의 역사와 현실에 관한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인 것이다. 한중수교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진 한국과 조선족 사회를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 정부가, 조선족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국경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통일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까지도 미리 대비하겠다는 것이 중국측의 속셈이라고 본다.

중국은 56개나 되는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13억 인구중 한족들이 93%를 차지하여 나머지 55개 소수민족들의 인구비율이 십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만주와 티베트, 신장 위그르 등 소수민족들이 차지한 땅덩어리는 중구 본토보다도 훨씬 더 넓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서남·서북공정을 추진하여 티베트와 몽고, 위그르민족 등에 대한 지배체제를 강화해 왔다. 지난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티베트 유혈사태에서 보듯, 현 체제에 반기를 든 소수민족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태도는 가혹하리만큼 단호하기만 하다.

그동안 밝혀진 동북공정의 중요내용 가운데 고구려사와 관련된 중국 측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고구려는 중국 영역 내의 민족이 건립한 중국의 지방정권' 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역사는 당연히 중국역사의 일부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평양 천도 이전의 고구려는 중국사의 일부이고, 평양 천도 이후의 고구려는 한국사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제는 평양 천도 이후까지를 포함하는 고구려의 역사 전체를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의 역사라고 강변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중국의 주장처럼 고구려사가 우리 것이 아닌 중국의 역사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고구려뿐만이 아니라 고조선도 발해도 모두 중국 역사가 되고 말아서 우리의 고대사 및 중세사는 반쪽만 남게 되고 만다. 1천년 전에 거란이 그러했듯, 중국이 장차 평양 이북에 땅도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고구려가 중국 영토 안에서 일어난 나라이므로 고구려의 역사가 곧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하는 중국측의 논리는, 거란이 고려 침략의 구실로 내세웠던 '거란이 고구려 땅에서 일어나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므로 평야 이북의 땅도 자기네 영토' 라는 당시 거란의 억지주장과 매우 비슷한 논리이다. 이에 맞서서 서희 선생은 '고려' 라는 나라 이름에서도 나타나듯 고려야 말로 고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한 나라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설득하여, 거란이 꼼짝 못하고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중국의 역사왜곡 뿐만이 아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독도문제, 약탈문화재 반환문제, FTA와 무역마찰 등 산적한 주변국들과의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을 볼 때마다, 서희 선생의 탁월한 판단력과 외교적 협상능력이 아쉽게만 느껴진다. 뛰어난 정세 판단과 소신 있는 행동으로 상대방을 설득하여 마음으로부터 감복시켰던 서희의 자주외교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힘을 발휘할 때인 것이다.

제 2 부

고려 초 국제 환경 변화와 여요전쟁


列傳卷第七　高麗史九十四

徐熙　詡　恭

徐熙小字廉允內議令弼子也性嚴恪光宗十一年年十八擢甲科超授廣評員外郎累遷內議侍郎二十三年奉使如宋時不朝宋十數年熙至容儀中度宋太祖嘉之授檢校兵部尚書成宗二年由佐丞拜兵官御事從

高麗史卷九十四　一

辛酉京成宗欲徵行遊永明寺熙上疏諫乃止賜鞍馬以賞之後改內史侍郎十二年契丹來侵熙爲中軍使與侍中朴良柔門下侍郎崔亮軍于北界備之成宗欲自將禦之辛酉京進次安北府契丹東京留守蕭遜寧攻破蓬山郡獲我先鋒軍使給事中尹庾顏等成宗聞之不得進乃還熙引兵欲救蓬山遜寧辭言大朝既已奄有高勾麗舊地今爾國侵奪疆界是以來討又移書云大朝統一四

한국 대외관계사의 흐름과 서희의 위상
고려-송-거란의 대륙질서 정립과정과 고려의 외교
서희의 현실외교론의 형성과 1차 여요전쟁

한국 대외관계사의 흐름과 서희의 위상

박 한 남(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머리말
1. 10-14세기 중국 대륙의 정세와 고려의 대응
2. 993년 담판에서 보인 서희 외교의 실리와 명분
3. 대외관계사 속의 서희의 위상

머리말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 '외교의 귀재'를 들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고려시대 서희(徐熙)를 드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올 봄 미국과의 소고기 협상, 일본과의 독도문제, 냉각되고 있는 대북협상 등 국제간의 외교마찰과 국내적으로는 새로 선출된 18대 국회였으나 여야 간의 협상실패로 오랫동안 정기국회 개원이 늦어지는 일들을 접하자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서희'를 그리워하는 사설을 읽을 수 있었다.[1]

뿐만 아니라 최근 일반 서점에도 『서희, 협상을 말하다』 「어떻게 80만 대군을 물리쳤을까?」 「펜은 칼보다 강하다」[2]등 『고려사』 기록을 통해 서희의 소손녕과의 외교담판 과정과 압록강 유역 280리 확보라는 쾌거를 자세히 풀어놓은 책들이 출판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계속 재판되고 있을 정도로 서희를 통해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얻고 있는 것 같다. 굳이 전문적인 학술 연구서의 주장을 들지 않더라도 서희의 외교 협상 성공이 오랫동안 기억되고 회자 되는 것은 그가 단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서희를 기억하고,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 고려군의 군사력 우세에 대한 자신감,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배짱을 가지고 '실리'와 '명분' 두 가지 모두를 획득한 '위대한 외교가'이기 때문이다.

당초 오늘 이 발표는 우리나라 전근대 대외관계사의 흐름을 개괄해보고, 외교사상의 서희의 위상을 살펴보는 시간이다. 하지만 본 발표에서는 전근대 한국사의 대외관계사를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다.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외교사를 작은 지면에 함축 할 수 없는 발표자의 능력부족과 함께 잘못하다가는 주마간산의 천착으로서 고대부터 개항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 상황에 따라 내적 요인과 외적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러한 외교정책을 내

1) 『국민일보』 2008년 7월 16일자 뉴스룸 사설.
2) 김기흥, 2004, 『서희 협상을 말하다』 새로운 제안.
김갑동, 2003, 『옛사람 72인에게 지혜를 구하다』 푸른역사.

린 일선 담당자의 역할을 오역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고려 500년간의 중국 대륙 중심의 외교추이를 살피고, 성종 12년(993) 10월 서희와 소손녕과의 담판을 중심으로 당시 서희가 거둔 실리와 명분이-강동 6주 확보와 고구려 계승의식- 이후 고려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1. 10-14세기 중국 대륙의 정세와 고려의 대응

고려왕조 474년간(918-1392)의 국제정세는 복잡다난의 격동의 시대였다.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할 무렵 한반도에서는 후삼국이 정립하고 있었고, 중국 대륙에는 300년간 통일 정권을 유지해 왔던 당나라가 주전충에 의해 멸망됨으로써(907), 960년 송 태조에 의해 중국이 재통일되기 전까지 5대 10국의 분열 상태는 계속되었다. 더구나 후진 석경당은 후당(後唐)을 무너뜨리기 위해 거란을 만리장성 너머로 끌어들임으로써 북방민족이 중원을 차지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따라서 960년 송에 의해 중국이 재통일되었다 하더라도 연운 16주는 이미 거란에게 빼앗긴 상태였다. 이에 송은 이 지역 회복을 위해 거란과 싸움을 벌여야 했다. 그러나 거란의 군사력 또한 만만치 않아 오랜 전쟁을 치러야 했고, 결국 두 나라는 1004년 전연의 맹약(澶淵之盟)을 맺고 외형적으로 평화관계를 유지하게 되기까지 고려는 상충하고 있는 두 중국(남조의 송와 북조의 거란)과의 외교노선을 둘러싸고 실리와 명분의 노선을 놓고 고민을 해야 했다.

이러한 고민은 12세기 초 야만시하던 여진족에 의해 금이 건국되어 거란을 무너뜨리고 송나라가 양자강 남쪽으로 쫓겨감에 따라 국제외교노선을 둘러싼 실리와 명분의 선택은 사대와 진보로, 국풍파와 화풍파로의 구분이 심화되면서 정국을 대립시켰다. 즉, 그동안 송과 거란을 놓고 등거리 실리외교를 폈던 고려는 원병을 요청하는 거란이나 가도(假道)요구를 해온 송측의 요청, 모두를 거절하며 그동안 번국(藩國)으로 하대해 왔던 여진, 즉 금에 대한 사대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물론 금에 대한 사대외교 수립에 대해 고려 조정은 이전 거란과의 항쟁을 놓고 대립하던 때보다 훨씬 강력한 분열상을 내보이며 정국이 분열될 조짐을 갖게 된다. 하지만 김부식(개경파, 화풍파)에 의한 묘청난(서경파, 국풍파) 진압으로 금에 대한 사대외교 수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말았다. 하지만 이에 노출된 문신집권층의 분열과 무신에 대한 차별 등은 결국 서경파이든 개경파이든 모든 문신들이 숙청되는 무신난을 성공케 하였으며 이후 100년간 고려 조정은 무인의 시대를 맞게 된다. 국왕을 허수아비로 세운 무신정권은 대금정책(금에 대한 사대외교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고려시대 중국대륙 정세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13세기 북아시아에서 일어난 몽고는 강력한 군사력을 이용하여 금을 공격하여 무너뜨리고 이어 고려에 침입해 왔다. 이로써 고려는 몽고와의 36년 전쟁을 치러야 했다. 고려 무신정권은 몽골과의 장기전에 대비해 강도(江都)로 수도를 옮기면서까지 항전하였으나 계속된 전쟁으로 농지가 황폐화되고 수만의

백성들이 사망하거나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전쟁을 주도하는 무신정권에 반대하여 강화를 주장하는 왕실과 문신들은 몽고와의 강화를 맺고 왕정복고를 달성함으로써 개경으로 환도를 단행하였다.(1260년) 이는 100년간의 무신정권의 몰락을 뜻하는 것이며, 새로 몽골의 속국으로서의 100년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1231년(고종18) 몽골의 침입을 받을 당시 침략군 몽골에 대해 미개하고 흉악한 오랑캐라 하여 적개심을 갖고 몽골과의 항전을 촉구하던 고려 지식인들이었지만 개경환도 이후 원 간섭기에 이르자 고려 지식인들은 반드시 중국의 정통왕조는 반드시 한족이 아니어도 되는 형세론적, 문화적 화이론으로 원에 대한 사대관계를 당연시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중국대륙에 한족과 북방민족이 대치하고 있었을 때 북방민족과의 사대외교 채택 여부를 놓고 줄곧 정국을 대립시켰던 사대와 진보의 갈등은 사라지고 중국 전체를 지배한 원(元)의 존재를 기정사실화 하고 천명을 받은 중국의 정통왕조로 이해하며 나아가 문화 문명국으로 원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3)]

하지만 14세기 후반 한족 주원장에 의한 명 건국(1368년; 고려 공민왕 17)으로 중국대륙이 다시 요동치자 고려의 대중국 정책 또한 바뀌게 되었다. 더욱이 즉위초부터 반원정책을 추구하던 공민왕은 명에서 건국 이듬해(공민왕 18) 4월 홍무제의 국서를 지참한 명 사신 설사(偰斯)가 오자 이에 응대하는 사신을 파견하여 책봉을 청하는 대명 사대정책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공민왕의 외교노선에 대해 신진 사대부들이 이에 동조함으로써 향후 고려 조정은 친명파와 친원파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당시의 친명파와 친원파의 대립은 단순하지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왕조 교체로 이어졌다. 즉 사대외교 수립 초기 순탄하던 고려와 명의 관계는 명나라가 내외체제를 정비하고 요동경영의 기반이 다져지자 고려에 대해 위압적인 자세를 보이지 시작했다. 이에 우왕과 최영은 요동정벌을 단행하여 명과 맞서고자 하였다. 하지만 명과의 결전을 거부하며 위화도회군을 단행한 신흥무신과 이들과 의기 투합하고 있던 개혁파 사대부들에 의해 조선이 건국됨으로써 고려가 추구해왔던 등거리 대중국외교 정책은 사라지고 소위 말하는 조선와 명의 일원적 전형적 조공책봉의 사대관계를 갖게 되었다.

고려 918-1392(474년간)/ 34왕		
신라하대 780-935	5대10국 907-960	거란(요) 916-1125 /10대
후백제 892-936	송 960-1279	금 1115-1234/9대
발 해 698-926	명 1368-1662	몽골(원) 1206-1367/12대

2. 993년 담판에서 보인 서희 외교의 실리와 명분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고려 시대 중국 대륙은 한족의 왕조만이 아니라 거란과 여진, 몽골

3) 도현철, 2000,「원명교체기 고려 사대부의 소중화 의식」『역사와 현실』37, 105-109쪽.

의 북방민족이 돌아가며 제국을 세워 국제 무대의 중심에서 위력을 과시했던 시기라 하겠다. 이러한 북방민족의 흥기의 시발점은 바로 거란에서부터였다. 하지만 중국 왕조와의 교류를 통해 왕권의 안정과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자 했던 고려는 자연스럽게 송나라와 정치적, 경제적인 교류를 택하였지만 국제무대에서의 고립을 벗어나고자 거란은 먼저 고려에 사신을 보내기도 하였다.[4] 하지만 거란이 926년(고려 태조 8년) 발해를 멸망시키자 고려는 무도한 나라와 화친을 맺어 이웃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방하고 태조 25년(942) 거란과의 단교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대거란 강경책은 태조 26년「훈요10조」를 통해 후대 왕들에게 주는 외교정책의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연운16주 회복을 둘러싼 송의 공격을 막아낸 거란은, 태조 25년(942) 10월 거란에서 보낸 사신 30명과 예물 낙타 50마리가 고려 땅에서 죽은 지, 거의 50년이 지난 성종 12년(993년) 고려에 쳐들어왔다. 이때는 거란이 발해 유민이 세운 정안국과 압록강 하류의 여진을 복속시킨 후(991)로서 이제 서쪽의 송과의 결전을 앞두고 동쪽 방면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고려의 변수에 대비하고자 미리 사전 정리 작업의 일환이라고도 하겠다.[5] 성종 12년(993년) 8월 거란 동경 요양부를 출발한 소손녕은 80만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왔다. 그해 5월 거란이 침입할 것을 전하는 여진의 전갈에도 무시로 일관하던 고려 조정은 80만 대군의 침입 소식에 수세적인 대책만 강구하고 있었다. 즉 당시 나온 대책은 두 가지였다. 우선 중신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항복을 청하도록 하자는 투항론(投降論)과 서경 이북의 영토를 거란에 떼어 주고 황주(黃州)로부터 절령(岊嶺: 자비령)에 이르는 선까지를 국경으로 삼자는 할지론(割地論) 이었다. 논의 끝에 국왕은 할지론을 택하기로 하고, 거란군이 서경을 장악할 것에 대비해 곡식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는 것은 대동강에 버리기로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당시 서희가 넘어야 할 산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싸우지도 않고 침략군에게 백기를 들고 서경 이북의 땅을 거란에 주자는 국내여론을 반전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반전의 대가로 치러야할 80만 침략군을 쫓아내는 일이었다. 우선 서희는 "식량이 족하면 성도 가히 지킬 것이요,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부는 군사력의 강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적의 동태를 파악하여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이거늘 갑자기 식량을 버리게 하나이까. 하물며 식량은 백성의 명맥이라 차라리 적의 식량이 될지언정 헛되이 강물에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며 국왕을 설득하였다. 이 주장에 대해 성종이 받아들여 곡식을 대동강에 버리는 것을 중지하였다. 서희는 다시 대거란 전략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거란의 동경으로부터 우리 안북부에 이르기까지의 수백리 땅은 모두 생여진이 살던 곳입니다. 광종이 그것을 빼앗아 가주(嘉州) 송성(松城) 등의 성을 쌓은 것인데 이제 거란이 온 것은 그 뜻이 이 두 성을 취하고자 함에 지나지 않습니

4) 『고려사』 세가 1, 태조 5년 2월.
5) 이홍두, 2005, 「고려 거란 전쟁과 기별전술」 『사학연구』 80.

다. 그들은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겠다고 소리치고 있으나 실제로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군대의 세력이 강성한 것을 보고 갑자기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더구나 삼각산(三角山) 이북의 땅도 또한 고구려의 땅인데 저들이 끝없는 욕심으로 한없이 요구한다면 가히 다 주겠습니까. 더구나 땅을 떼어 적에게 주면 만세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원컨대 임금께서 도성으로 돌아가시고 신 등으로 하여금 한번 더 싸우게 하신 뒤에 의논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고려사』 권94, 열전 7, 서희)

서희는 요가 고려를 침공한 실제 의도는 여진의 땅을 찾으려는데 있으니 그들의 허세에 겁을 먹을 필요도 없으며, 일단 땅을 떼어 주게 되면 끝없는 요구에 시달리게 될 우려도 있으므로 일단 한번 싸워 본 뒤에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전 민관어사(民官御事) 이지백(李知白) 역시 토지를 떼어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여 서희의 주장에 동조하였다.[6]

이렇게 조정에서 논의를 거듭하며 즉각적인 고려측 회답이 없자 소손녕은 안북부의 북쪽에 있는 안융진(安戎鎭)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거란은 중낭장 대도수(大道秀)와 낭장 유방(庾方)이 이끄는 고려군에게 커다란 패배를 당하여 소손녕은 감히 더 전진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 항복해 오기만을 재촉하였다.[7] 안융진 전투에서의 패배로 거란은 청천강 이남으로의 진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고려와의 회의를 서두르게 된 것이다. 이제 군사력을 동원한 전투가 아닌 외교전으로 양측의 전쟁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다급해진 쪽은 고려가 아니라 거란이었다. 조정의 수세적인 여론을 잠재우며 거란과의 일전을 주장하고 있던 서희는 소손녕이 요구하는 책임 있는 대신(大臣) 자격으로 거란 군영에 나아가 소손녕과의 회담을 자청하였다.

서희와 소손녕간의 회담은 크게 3가지 단계로 전개되었다. 제1단계는 예비협상이라 할 수 있는 상견례 과정에서의 신경전, 두 번째 단계는 본협상으로 침략의 이유를 둘러싼 공방전, 제3단계는 협상이 끝난 뒤의 후속 협상단계로 연회 참석 여부를 둘러싼 공방전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8]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희는 모든 단계의 협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다.

상견례 절차를 묻자, 소손녕은 자신은 대국의 귀인이니만큼 서희가 뜰에서 자신에게 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희는 그것은 군신간의 예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두 나라의 대신이 만나는 예절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거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손녕이 절을 고집하자 서희는 아예 숙소로 돌아와 며칠씩 회담을 연기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비록 소손녕이 거란을 대표해서 회담에 임하는 것이었을지 몰라도 서희와 소손녕 사이에는 군신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소손녕은 서희의 요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본협상을 시작하게 되었다. 소손녕은 먼저 자신의 출병의 명분과 요구조건을 말

6) 김용선, 2002, 「서희」, 『한국사시민강좌』 30, 일조각, 58쪽.
7)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2년 10월.
8) 김기흥, 2004, 『서희, 협상을 말한다』 새로운 제안. 37쪽.

하였다.

> 소손녕 : "귀국은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는 우리의 소유인데 귀국이 이를 침범하고 있다. 또 우리의 국경과 마주하고 있는데도 바다를 건너 송을 섬기고 있으므로 이번에 군대를 내게 된 것이다. 만일 땅을 떼어서 바치고 국교를 맺는다면 가히 무사할 것이다."
>
> 서희 :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야 말로 곧 고구려의 땅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 까닭에 나라이름도 고려라 하였고 평양을 서울로 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땅의 경계로 논한다면 귀국의 동경조차도 모두 우리 영토에 속할 것이니, 어찌 우리가 침범했다고 이를 수 있겠는가. 또 압록강 안팎도 역시 우리의 영토인데 지금 여진이 그 사이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교활하고 간사하게 길을 막고 통하지 못하게 하여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되었다. 국교를 맺지 못하는 것은 여진 때문이다.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 옛 영토를 회복하여 성보를 쌓고 길을 통하게 한다면 감히 국교를 맺지 않겠는가. 장군이 신(臣)의 말을 천총(天聰: 거란황제)에게 알린다면 어찌 받아들이지 않겠소"(『고려사』 권94, 열전 7, 서희)

소손녕은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게 된 것은 신라를 계승한 고려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의 옛 땅을 주인인 거란에게 돌려주라는 것이며, 동시에 거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왜 멀리 바다를 건너 송과 교통하고 있는가의 문제였다. 이에 대해 서희는 고려라는 국호와 평양을 서경으로 정한 사실을 들면서 고려야말로 실질적인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거란 동경조차도 오히려 고려의 영토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과거 고구려의 영토를 지금 누가 더 많이 점령하고 있느냐는 문제만 따진다면 고려보다 거란이 더 유리하다고 하겠다. 당시 고려는 압록강 유역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희도 이미 국왕에게 한 말에서도 "거란의 동경으로부터 우리 안북부에 이르기까지 수백 리의 땅은 다 생여진의 땅인데 광종이 그것을 빼앗아 가주송성 등에 성을 쌓은 것인데 이제 거란이 온 것은 바로 이 두 성을 취하고자 함에 불과하다"고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소손녕이 먼저 '고려는 신라를 계승한 국가'라는 계승론을 들먹이자 서희는 고려 초부터 추진해온 북진정책을 거론하며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주장하고 나아가 현재 거란이 차지하고 있는 요동까지도 고구려의 옛 땅이므로 고려가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서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소손녕이 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였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당시 소손녕이 입으로는 신라 계승 운운하였지만 당시 거란측은 고려는 고구려를 이은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비록 성종 당시에 보낸 조서는 아니지만 문종 11년(1057) 3월 고려에 보낸 국왕 책봉 조서에도 보면, "그대 왕휘(王徽; 문종)는 … 주몽(朱蒙)의 나라를 습작함으로부터 현도(玄菟)의 고을에 풍교를 선양하였다. 관맹으로 웅사(雄師)를 독려하고 혜화(惠和)로 아속(雅俗)을 빚냈다.…(이하 생략)"[9]라 하였듯이 고려가 주몽의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언급하고 있다.[10] 따라서 서희는 고려가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압록강 안팎이 우리 땅인데 현재 여진이 차지하고 있어 거란과 왕래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니 여진을 제거해 준다면 거란과 왕래하고 국교를 맺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거란과 교통하지 않고 있는 것은 거란을 정치적 의도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거란 휘하에 있는 생여진이 국경지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니 이를 제거해 준다면, 고려는 당연히 거란과 통교하겠다는 것이다. 송과의 결전을 앞둔 시점에서 그 지원세력으로 고려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던 거란으로서는 고려에 대한 의심을 버릴 수 있는 발언이었다. 나아가 서희는 자신의 이러한 요구를 거란 황제에게 전하라는 말까지 함으로써 소손녕으로 하여금 귀국의 명분까지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소손녕은 거란 본국으로 협상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거란 성종은 '고려가 이미 화호를 청하니 이를 받아들여 마땅히 철군하라'는 명을 내리었다. 결국 이로써 거란 소손녕은 안융진 전투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고려와의 통교를 맺고자 했던 거란 황제의 제1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귀국의 명분을 갖게 되었다. 그렇기에 협상을 끝낸 소손녕은 "양국 대신이 서로 만났는데 어찌 환호(歡呼)의 예가 없을 수 있겠느냐"며 잔치를 파하고, 개경으로 돌아가는 서희에게 낙타 10마리, 말 100필, 양 1000마리와 비단(면기라환; 綿綺羅紈) 500필의 예물까지 주었다. 협상 조건에 따라 드디어 고려에서는 성종 13년 4월 시중 박양유를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거란의 묵인 하에 고려는 군사를 내어 장흥진, 귀화진, 곽주, 구주, 선주 맹주 등의 여진을 내쫓고 압록강 동쪽 280리의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다.

요컨대 성종 12년 10월 서희의 소손녕과의 담판에 승리함으로써 고려는 인명의 희생없이 고려 국경을 청천강에서 압록강 유역으로까지 확장시키는 실리와 국제적으로는 고구려 계승국으로서의 고려의 위상을 천명하고 고토를 회복할 수 있는 명분을 모두 확보했다고 하겠다. 나아가 향후 고려는 거란이든, 송이든, 금이든 강온의 외교노선을 구사하며 외교 주도권을 쥐며 고려의 국제적 지위를 공고히 하여 갔다 하겠다.

3. 대외관계사 속의 서희의 위상

거란의 제1차 침입 당시 서희의 담판으로 압록강 동쪽의 영유권을 인정받은 고려는 북방개척에 박차를 가하였다. 994년부터 996년에 이르는 짧은 기간 동안 고려는 청천강에서부터 압록강까지의 280리 지역에 웅거하고 있던 여진인들을 몰아내고 장흥진, 귀화진, 안의진, 흥화진 등 4진과 곽주, 귀주, 선주, 맹주 등 4주에 성을 쌓고 의주에는 압록강구당사(鴨江渡勾當使)를 설치함으로써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였다. 비록 압록강 이북 만주와 요동지방을 포함하지 못한 실지회복이지만 소손녕이 80만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는 소식만을 듣고도 청천

9) 『고려사』 권 8, 세가 문종 11년 3월 을유.
10) 박용운, 2006, 「고려의 고구려계승에 대한 동북아 사람들의 이해」, 『고려의 고구려 계승에 대한 종합적 검토』, 일지사, 132-133쪽.

강 이북의 땅을 떼어 주자는 논의가 대세였던 당시에 오히려 서희의 일관된 담판에 의해 청천강 이북까지 고려의 방어체계가 확대되었다.

물론 이후 이 지역 고려 할양에 대해 뒤늦게 후회한 거란 성종은 강조(康兆)의 정변을 구실로 현종 원년(1010)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려에 쳐들어 온 제2차 침입과 고려 국왕의 친조 불이행을 이유로 단행된 현종 5년(1014)의 제3차 침입의 실질적인 목적이 모두 강동6주 반환이었다는 점에서 서희의 담판을 통해 영토 확장의 역사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할 것이다. 강동6주 회복에 실패한 거란은 대신 강동 6주 회복의 교두보로서 그들의 내원성을 마주하고 있는 압록강 동쪽 보주(保州; 거란측에서는 抱州) 지역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며 국경 분쟁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고려는 초지일관 외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다가 예종 9년(1114) 생여진의 완안 아골타가 거란에 반기를 들며 쳐들어오니 이들을 소탕해달라는 요의 동경병마도부서의 통첩과 이어서 요의 래원·보주 2성이 여진의 공격을 받아 성중의 식량이 모두 고갈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고려는 바로 이때가 이 지역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요의 내원성과 보주성에 식량 1천석을 보내 성중의 실상을 살피는 한편, 금 장수 철갈(撒喝)로부터 이 지역 통군 야율령(耶律寧)이 도망가려 한다는 급보를 받고는 바로 금에도 사자를 보내 "보주는 원래 우리의 옛 땅이니 돌려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였다. 이것은 바로 보주를 실질적으로 소유해 오고 있던 거란의 약점을 확인하는 한편 또 만일 고려가 보주를 얻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 하여도 금측이 반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중하며 적절한 조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요와 금 교체기를 이용해 고려는 거란과의 최접경지 보주지역 확보를 위해 보여준 주도면밀한 대응은 정확한 정세판단과 상대방의 허점을 이용한 외교술로서 서희의 담판 때 보여준 전략과도 일치한다. 그 결과 예종 12년(1117) 고려는 큰 희생 없이 보주성을 획득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압록강 지역을 고려 경내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서희에 의한 강동 6주 확보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그치고자 한다.

대신 서희의 담판 중에는 "우리나라야 말로 곧 고구려의 땅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 까닭에 나라이름도 고려라 하였고 평양을 서울로 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땅의 경계로 논한다면 귀국의 동경조차도 모두 우리 영토에 속할 것이니, 어찌 우리가 침범했다고 이를 수 있겠는가"라는 대목이다. 물론 고려와 조선 시대에 걸쳐 요동지역을 확보한 적은 없다. 하지만 고려 후기 동녕부 정벌에 나선 서북면상원수 지용수(池龍壽)는 공민왕 19년(1370) 11월 압록강을 건너 그 지역사람들에게 고유(告諭)한 말에

> 요양(遼陽)과 심양(瀋陽)은 우리나라 경계요 백성은 우리 백성들이라. 이제 의병(義兵)을 들어 위무하고 편안케 하고자 한다. 만약 도피하여 산채에 숨는다면 혹 지부군마에 해를 당할까 하니 곧 군전(軍前)에 나와서 실정을 고하라.(『고려사』 권 114, 열전 27, 지용수)

라고 하였듯이 요양과 심양은 우리나라 경계내의 지역이며,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바로 고려 백성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고려 후기 무장 지용수가 동녕부에 남아 있는 부원세력(附元勢力)을 소탕하기에 앞서 그 지역민을 위무코자 한 말로서 고려 말까지도 고려인의 의식속에는 이곳은 옛 고구려의 영토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심지역의 '고려 영토 운운'은 단지 우리 고려 사람들만의 주장은 아니었다고 하겠다. 공민왕 20년(1371) 요동 지역에 남아 있던 원의 관료와 유장(遺將)들은 북원(北元)과의 유대가 끊어져 반독립적인 상태에서 꽤 많은 병력을 거느리고 때로는 고려의 북쪽 경계를 어지럽히는가 하면 때로는 사절을 보내와 화호의 뜻을 표하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요양행성평장 유익(劉益)은 같은 해 윤3월 고려에 사절을 파견하여 요양지방은 본래 고려의 땅이므로 만약 자기들이 명에 귀부하였을 때 고려에서 후원해 주면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11] 한 사례에서 볼 때 비록 10세기 서희가 언급한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과 그 명분은 국제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겠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태조는 즉위하자마자 "평양은 고도(古都)인데 황폐한 지 오래 되어 형극이 무성해 번인(蕃人)이 그 사이에 사냥하면서 인하여 침략하니 사민하여 이곳을 채움으로써 번병을 굳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패서지역 인호를 이주시켰고, 평양을 대도호부(大都護府)로 삼고 당제 왕식렴(王式廉)과 광평시랑 열평(列評)을 보내 지키게 하였다. 이처럼 태조 왕건이 고려로 국호를 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경 우대정책은 바로 고구려 구강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고려 말 이제현은 '태조는 …동명왕의 옛 땅을 내 집에서 쓰던 청전(靑氈)같이 생각하고 반드시 석권하여 이를 차지하려 하였다…'는 말로서 고구려 계승의식은 고려 말까지도 변함이 계속되고 있다.[12] 이로써 성종 12년(993년) 10월 서희가 소손녕과의 담판에서 한 발언은 태조의 유지를 철저히 계승하고 이런 의식의 바탕위에서 거란을 굴복시켜 고토 회복을 단행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서희 이후 고구려 계승의식은 명종 23년(1193)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왕 곧 주몽의 신이(神異)한 자취를 장편의 서사시 「동명왕편(東明王篇)」을 지은 이규보(李奎報)를 거쳐 원간섭기 이승휴(李承休)의 『제왕운기(帝王韻紀)』와[13] 고려 말 이제현(李齊賢)의 『국사(國史)』 등 사서를 통해 계승되고 있는 바처럼 외교사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고려인들의 역사관 속에서 계승되고 있다고 하겠다.

---

11) 『고려사』 권 43, 세가 공민왕 20년 4월 무술.
12) 『고려사』 권2, 세가 태조 말미 이제현 찬.
13) 박용운, 2006, 「고려시기 사람들의 고려의 고구려계승의식」 『고려의 고구려계승에 대한 종합적 검토』 참조.

고려-송-거란의 대륙질서 정립과정과 고려의 외교

김 순 자 (한신대학교 연구교수)

1. 10세기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
2. 동아시아 각국의 국제관계--고려, 오대십국(五代十國), 송(宋), 거란
3. 거란의 고려 침입(993)과 전쟁 이후의 고려-중국의 관계

1. 10세기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

10세기 초에 이르러 동아시아세계는 오랫동안 중심축 역할을 해오던 당(唐. 618~907)이 붕괴하면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기 위한 혼란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북중국에서는 거란족이 거란제국을 건립하면서 군사적, 정치적 면에서 강력한 국가로 등장하였다. 한편 남쪽의 중국대륙에서는 북중국에서는 오대(五代)의 다섯 왕조(梁→唐→晉→漢→周)가, 남중국에서는 10국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숨가쁘게 흥망을 반복하는 혼란기가 왔다. 중국대륙의 동북지방에서는 옛 고구려 지역에서 699년 이래 왕조를 유지해오던 발해(渤海)가 거란에 망하면서(926) 동단국(東丹國)이라는 새로운 정권으로 변모하기도 했지만, 동단국이 요양(遼陽: 요녕성 요양시)으로 이동해감에 따라 거란의 직접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발해인, 여진족은 정세에 따라 거란이나 고려에 귀부하면서도 독립적인 세력으로 존재하였다. 한반도쪽에서는 9세기말 신라가 혼란하게 되면서 후삼국시대가 전개되었다. 태봉의 후신으로서 918년 건국한 고려가 신라의 귀부를 받고 후백제를 멸망시킴으로서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한반도쪽에서 후삼국이 존재하던 시기와 중국에서 오대, 십국이 존재하던 시기는 겹친다. 각 나라들은 원교근공(遠交近攻),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 등을 쓰면서 혼란의 시기에 생존하고 패권을 장악하려고 노력하였다.

960년 중국대륙에서 오대의 뒤를 이어 송(宋)이 건국되고 남중국의 10국까지 포괄하게 되면서 중국대륙에는 남,북에 송과 거란이라는 두 개의 강대국이 분립하여 경쟁하게 되었다. 송, 거란의 좌우에는 고려와 서하가 세력의 한 축을 차지함으로써 이 4개의 국가가 어떻게 제휴하고 대립하느냐에 따라 정세는 매우 유동적이었다. 거란은 오대시기에 연운16주 지역(현재의 북경 근방)을 할양받아 차지하게 되었다. 당을 계승한 정통 한족왕조를 자처하는 송은 연운16주를 수복하는 것을 시대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거란과 여러 차례 전쟁을 일으켰다. 고려와 서하는 거란과 송에 비교해볼 때 약소국이었지만, 거란과 송 중에서 어느 쪽과 우호관계이고 적대관계인가에 따라 동아시아의 정세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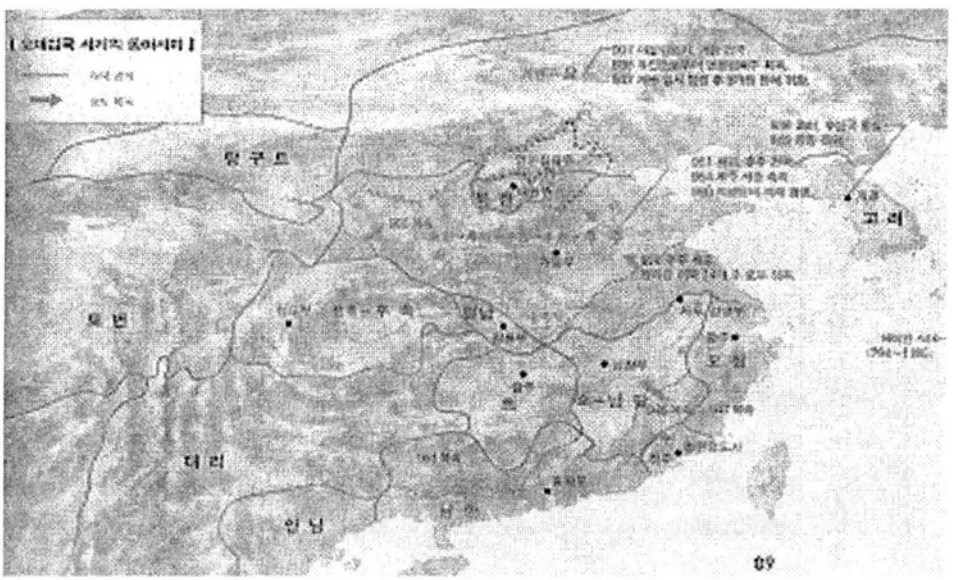
10세기 동아시아세계에는 당에 필적하는 강력한 중심이 없었다. 중국 대륙에서 오대왕조,

혹은 송과 거란은 각각 천하의 중심이라는 천자(天子)의 국가를 자처했다. 한편 송과 거란은 주변 국가에 대하여도 유일한 '세계의 중심'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고려와 서하도 천자의 나라를 자처했다. 고려가 '해동천자(海東天子)를 자처한 것은 이러한 국제정세, 시대정신의 영향이 크다. 천자국가는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번방국가[藩邦]를 갖게 된다. 송과 거란은 각각 고려와 서하를 번방으로 생각했지만, 한편 스스로 천자국가인 고려는 자신보다 국력, 문화력에서 뒤처진 여진족이나 탐라 등을 '고려의 천하'에 속하는 번방으로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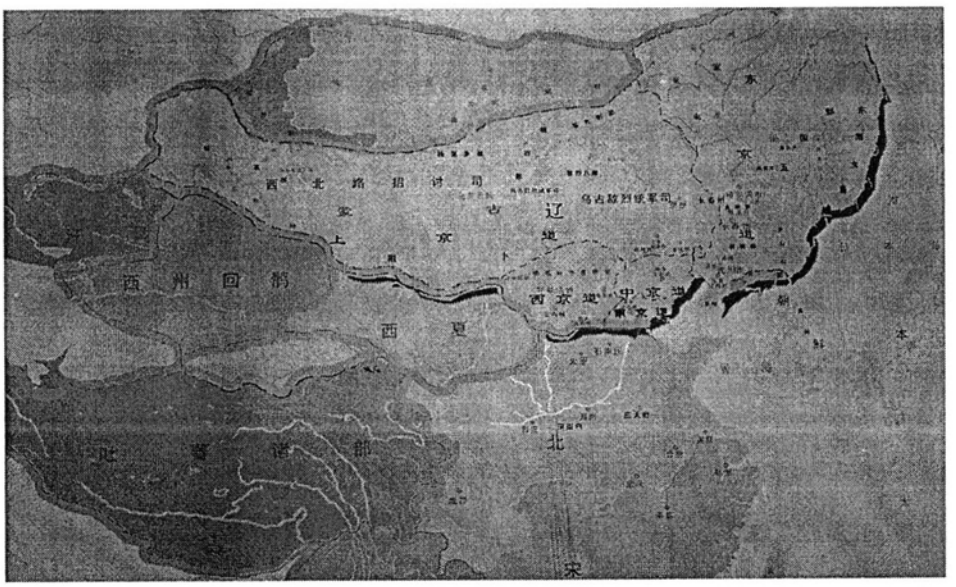
<표1> 10세기 동아시아 국가의 변천

	892 907	960	993
중국대륙	거란 오대(五代:梁→唐→晉→漢→周) 십국(十國)	거란 송(宋)	거란 송
요동	→ 발해 멸망926 → 동단국	정안국→ 여진	(거란,고려에 귀부)
중국서부		서하(西夏)	서하
한반도	후삼국 고려918→	고려	고려
고려의외교정책	친오대,反거란	친송,反거란	송과 외교 단절 거란과 조공책봉

<그림1> 오대십국시기 동아시아정세도



<그림2>송 건국 후 10~11세기 동아시아 정세도



2. 동아시아 각국의 국제관계--고려, 오대십국(五代十國), 송(宋), 거란

후삼국시기와 중국의 오대십국시기는 겹친다. 따라서 후삼국 각국과 오대십국 각국은 패권경쟁에서 유리하도록 서로 사신을 왕래하면 정치적으로 협조하고, 때로는 군수물자를 무역하기도 했다. 태봉의 뒤를 이은 고려는 제일 먼저 남중국의 오월(吳越)에 사신을 파견했으며, 남당(南唐)과도 교류하였다. 고려가 중국왕조부터 책봉받음으로써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한 것은 933년 후당으로부터가 처음이었고, 이때부터 오대의 각 왕조와 조공-책봉관계를 유지하였다. 오월은 전쟁 중이던 후백제와 고려에게 화의를 맺으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중국과 후삼국의 여러 나라가 사신을 왕래하는 것은 정치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았다고 이해된다. 그 외에 고려는 중국에서 선진 문물을 도입하는 것에 노력하였고, 중국제도를 이용하여 국내의 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다. 중국 나라들은 고려에서 전적(典籍)을 수입하기도 하고 때론 군수물자를 수입하기도 했다. 960년 송이 건국함으로써 중국에서는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하였다. 고려는 962년에 방물사(方物使)를 파견하고, 이듬해에 광종(光宗)이 송으로부터 고려국왕으로 책봉받은 이래 친송외교정책을 유지하여 993년 거란의 침략을 받기까지 지속되었다.

반면 고려는 북중국의 강대국인 거란에 대하여는 태조대부터 적대정책을 유지하였다. 거란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기 전인 926년 발해를 멸망시켰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고려의 반거란정책은 보다 확고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발해 유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발해 유민은 2회에 걸쳐 대거 고려로 이주해왔다. 처음은 발해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거란이 세운 동단국(東丹國)이 요양(遼陽)으로 옮겨간 이후였고, 둘째는 압록강 일대의 정안국(定安國)을

정벌하기 시작한 979년이었다. 고려의 반거란정책은 만부교사건으로 유명하다. 거란은 고려와 친선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942년 사신을 파견하면서 낙타 50필을 선물로 보내왔는데, 이때 태조 왕건은 거란을 '사귈 수 없는' 나라라고 하면서 사신을 섬으로 귀양보내고 낙타는 만부교 아래에 묶어서 굶겨죽일 정도로 거란 적대정책을 대내외에 선명하게 표방하였다. 거란을 북중국을 차지한 강대국이기보다는 '금수와 같다'고 생각한 고려의 반거란정책은 후대에 계속 이어졌다.

960년 건국하여 오대와 십국의 남은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중국 남부를 통일한 송은 중국대륙에서 당을 계승한 정통국가라고 자임했다. 따라서 북쪽 오랑캐인 거란에게 빼앗긴 조상의 땅, 즉 연운16주를 수복하는 것을 시대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태조대(960~975)를 이어 태종대(976~994)에도 주전론이 득세하였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거란보다 세력이 약하던 송에게 있어서 거란의 동쪽에서 거란을 견제해줄 수 있는 고려는 군사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외교 대상국이었다. 송은 고려와 정치,군사적으로 동맹하여 요를 제압한다는 이른바 연려제요책(連麗制遼策)을 거란이 망하는 12세기초까지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고려의 입장에서는 압록강 일대의 여진족을 사이에 두고 바로 군사적,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거란을 견제하고, 더하여 중국 본토로부터 선진문물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송과의 친선관계가 필요했다.

거란은 북중국의 강대국이지만 동아시아정세를 일방적으로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936년 후진으로부터 할양받은 연운16주를 계속 지배하고 있고, 서하를 우호국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경제적 문화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송과의 계속된 전쟁은 국가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더구나 동쪽의 '강대국' 고려가 적대국인 송과 조공-책봉관계로 맺어진 상황에서 고려와 송이 군사적으로 연합한다면 대륙에서의 승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거란이 중국대륙에서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고려를 송과의 친선관계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었다. 1004년 거란은 송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연의 맹약을 맺고, 거란이 송보다 우위에 서는 숙질(叔姪)관계로 공식관계를 정하였다.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송은 해마다 은 20만냥, 비단 20만필에 해당하는 세폐(歲幣)를 거란에 제공해야 했다. 그러나 거란이 송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보다 앞서 993년 고려를 침략하여 고려와 송의 친선관계를 와해시켰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고려와 거란 사이는 발해 옛 지역으로서 주로 여진족의 생활무대였다. 발해가 멸망한 이후 이 일대의 여진족을 하나로 통솔할 정치세력은 없어졌다. 여진족은 생산성이 낮아 고려든 거란이든, 혹은 송이든 무역을 통해서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아야 했다. 송과 거란, 거란과 고려 사이에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은 어느 쪽에 귀속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존에 연관된 문제였다. 고려가 건국 이후 대동강선을 넘어서 청천강, 압록강선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터전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반면 태조 야율아보기 이후 요양으로 후퇴했던 거란이 980년대 들어 압록강 일대의 여진을 정벌하기 시작하자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었다. 993년 거란이 처음으로 고려를 침략하려고 할 당시 고려에 거란의 침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여진족이었다. 그런가 하면 993년 거란이 고려를 침략할

때 군마(軍馬) 1만 필을 조공했고, 또 군사 1만 명을 참전시키기도 했다. 1010년 거란이 2차로 고려를 침략할 때는 거란을 상대로 고려 침략을 요청하기도 했다.

3. 거란의 고려 침입(993)과 전쟁 이후의 고려-중국의 관계

거란은 993년 고려로 쳐들어왔다. 이보다 10여년 전부터 거란은 고려를 정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었지만, 침략 당시 고려는 거란의 침략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926년 발해가 멸망된 이후 정종대(946~947년)에는 전국적으로 30만 명 규모의 광군(光軍)을 조직하여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기도 했었지만, 건국 이후 75년여 외적의 침략을 받지 않았던 고려는 거란의 침략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군사적으로 대비하지도 못했었다.

거란은 고려를 침략하는 이유로 부당한 영토 점유, 송과의 친선, 반거란정책 등을 들었다. 아래 표는 거란 침략 당시 거란과 고려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표2> 993년 고려-거란 강화회담시 양국의 입장

거란(蕭遜寧)의 주장	①송과 국교 단절 + 거란에 귀부하여 조빙(朝聘)할 것 ②백성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정벌하는 것이니 항복할 것 ③고구려 땅은 거란 소유이므로 서경(西京) 이북을 할양할 것
고려(徐熙)의 주장	④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영토는 고려에 속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면 고려가 거란의 땅을 침식한 것이 아니라 거란의 東京(遼陽)도 고려 영유권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압록강 내·외는 고려의 영토인데 여진이 점거하고 있어서 고려가 거란에 조빙하지 못한 것이다. 여진을 축출하고 영토를 되찾는 것에 협조하면 거란에 조빙하겠다.

당시 고려 정부는 거란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요구한대로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서 주자(할지론), 국왕이 신하를 이끌고 항복하자(항복론)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거란군을 퇴각시키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상사절로 파견된 서희가 거란원정군 사령관인 소손녕과 회담한 결과 두 가지 사항에 합의하였다. 첫째, 고려는 송과의 조공-책봉관계를 단절하고 새로 거란과 조공-책봉관계를 맺는다는 것, 둘째, 고려가 압록강 내·외의 여진족을 축출하고 영토로 확보하는데 거란이 동의하고, 그 이후에 고려는 거란에 조공한다는 것 이었다. 거란군은 회담 이후 곧 철수하고 994년초부터 고려와 거란은 각각 압록강 이동, 이서에 성을 쌓으면서 영토를 확보하고, 고려는 거란으로부터 책봉받음으로써 고려와 거란의 국교는 성립되었다.

서희-소손녕 강화회담 이후에도 고려와 거란 사이에는 주로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분

쟁이 항상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거란이 멸망하는 1110년대까지 고려-거란의 조공-책봉관계는 유지되었다. 영토분쟁은 거란이 강화회담의 약속을 깨고 압록강 남쪽을 강제 점령하여 자기네 군사행정구역인 보주(保州:현재의 신의주 일대)를 설치한 것에서 기인하였다. 거란과 외교분쟁이 격심해질 때 고려는 일시 송에 다시 사신을 파견하기도 했지만, 국가 수준의 정식외교를 유지하지는 않았다. 송과는 민간 수준의 경제 교역이 매우 성하였다. 이는 당시 송의 경제 발전과 송의 경제정책에 연유하였다. 송대에는 중국의 강남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송 정부가 정치적 군사적 국교 외에 민간의 상업, 무역을 장려하였으므로 조공-책봉관계를 벗어나서 고려는 물론 일본,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와도 무역이 매우 번성하였다. 고려는 정치적으로는 거란과의 국교를 기본으로 하면서, 무역을 통해 중국 남부와도 교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희의 현실외교론의 형성과 1차 여요전쟁

임 용 한(경희대 강사)

머리말
1. 10세기의 국제정세와 고려의 불간섭주의
2. 1차 여·요 전쟁의 발발과 고려의 대응
3. 서희와 소손녕의 회담과 그 의의
맺음말

머 리 말

993년에 발발한 거란의 1차 침공에 대해 고려는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최초의 전투였던 봉산전투에서 패배하자 고려 조정에서는 절령 이북의 땅을 떼어주고 화친하자는 할지론이 등장하게 된다.

이 할지론을 강력하게 반대한 인물이 서희였다. 그는 적장 소손녕을 만나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며, 압록강 유역은 물론 거란의 동경(요양)도 고구려의 고토임을 밝혀 거란군을 철수시키고, 송과 단교하고 거란에 조공하는 조건으로 강동육주를 할양받는데 성공한다.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 두가지 관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첫째는 고구려 계승의식과 고구려의 구토에 대한 영유권이라는 관점이다. 둘째는 당시의 국제정세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실리를 추구하는 현실적 외교를 전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다. 우선 압록강 이북 지역이 고구려의 영토라는 명분이 거란측 입장에서 철군의 이유가 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거란군이 철수한 실질적, 현실적 이유로 송과의 단교와 거란과의 수교가 거론된다. 하지만 5년 후에 거란의 침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만으로는 거란이 순순히 철군하고, 강동육주까지 할양한 이유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서희의 상징처럼 된 현실적 또는 실리 외교의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이 용어는 '명분에 구애받지 않는', 또는 '순이익을 남기는 외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냉엄한 국제정치의 실상에 적합한 개념이 아니다. 나아가 이러한 인식이 서희의 공적을 1차 여·요 전쟁의 종결과 외교적 성과에 국한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지금까지 연구가 고구려 계승의식이나 외교사적 관점에 치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술적, 군사적 관점에서의 고찰이 부족했던 탓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차 여·요 전쟁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전쟁사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서희의 현실외교론의 의미와 그의 공적을 재평가 해보고자 한다.

1. 10세기의 국제정세와 고려의 불간섭주의

926년 발해의 멸망과 942년의 만부교 사건 이후로 고려는 거란과 단교하고 5대 10국의 후진이나 송과는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거란은 이 관계를 매우 부담스러워 했다. 거란이 중원을 공격할 때 발해, 여진, 고려로부터 배후를 습격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1] 이러한 전략구도는 거란이 요를 건국하고, 금나라에게 망할 때까지도 변하지 않았다.

고려의 성종이 즉위하던 981년을 전후해서 이 긴장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거란은 947년에 태종이 사망한 후로 정치적 내분에 휩싸였다. 982년에 성종(聖宗)이 즉위하면서 중흥기를 맞이한다. 그러나 즉위 당시 성종은 겨우 12세였고, 태후의 섭정을 받아 아직 변화의 징조는 보이지 않을 때였다.

반면 중국을 통일한 송은 거란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면서 연운16주의 탈환을 노리고 있었다. 실제로 송은 979년에 거란을 침공했으며, 986년에는 송 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거란을 공격하였다.

거란이 침체기에 빠지는 동안 거란과 고려 사이에는 동단국, 정안국, 후발해 등이 건립하면서 다시 완충지대를 형성했는데,[2] 이들 국가의 영향으로 거란에 대한 여진족의 저항도 상당히 거세게 진행되었다.

송과의 결전을 앞두고 있던 거란은 먼저 서쪽의 배후를 안정시키기로 결정한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은 과거 모용씨가 세운 전연(前燕)에서부터 만주족의 후금과 청나라까지 변함없이 반복되는 것이었다. 거란은 984년과 986년 2차에 걸친 여진정벌을 감행해서 압록강변에 있던 정안국을 멸망시켰다.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던 이 시점에서 주변국에 대한 고려의 인식과 대응방식은 어떠했을까?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985년(성종 4)에 있었던 거란에 대한 송나라의 연합공격 제의이다.

> ① 송나라에서 장차 거란을 쳐서 연주(燕州), 계주 지방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거란과 접경해 있어 자주 그의 침략을 받게 된다 하여 감찰어사 한국화(韓國華)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주어 보냈다.
>
> ② 왕이 조서를 받고 시일을 끌면서 출병하지 않으니 한국화가 한편 위협하고 또 한편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권유했다. 왕이 부득이 군사를 출동하여 서방에서 서로 만날 것을 허락하니 한국화가 그제야 돌아갔다.
>
> ③ 거란이 여진을 칠 때에 우리 나라 영토를 거쳐갔으므로 여진은 우리가 거란을 유인하여 사단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하고 송나라에 말을 바치러 갔을 때에 우리를 무고하여 "고려가 거란과 결탁하여 여진 사람들을 납치하여 갔다"고 하였다. 송나라 황제가 여진이 고변한 문건을 내보이면서 "본국에 이 말을 전달하여 여진 포로들을 돌려보내도록 하라"고 하였다.

---

1) 서성호, 「고려 태조대 대거란 정책의 추이와 성격」, 『역사와 현실』 34, 19쪽.
2) 동단국은 거란의 세력이 왕성하던 926년에 요양으로 천도하였다.

④ 한국화가 오게 되자 왕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진은 욕심이 많고도 교활하여 지난 겨울에 두 번이나 우리에게 글을 보내 거란 군대가 곧 자기네 국경으로 쳐들어오니 구원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국은 그것이 허위인 것으로 의심하고 즉시 구원을 하지 않았었다. 그 후 과연 거란군이 쳐들어와서 많은 여진인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여 갔다. 당시에 죽기를 모면한 여진인들이 본국의 회창(懷昌), 위화(威化－평북 운산), 광화(光和－평북 태천) 등지로 도망하여 왔는데 거란군이 그들을 추격하여 잡아가면서 우리 수비병을 불러서 말하기를 여진인들이 늘 자기네 변방에 와서 침략을 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복수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⑤ 그때에 여진인으로서 우리나라에 도망쳐 들어온 자가 2천여 명이나 되었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다 노자까지 주어 돌려보냈다. 그런데 여진인들은 가만히 군대를 거느리고 갑자기 와서 우리 관리와 백성들을 학살하고 장정들을 몰아다가 노예를 만들 줄은 뜻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여진이 대대로 중국을 섬겨 오는 터이므로 하여 원수를 갚지 못하였었다.

⑥ 거란은 요해(遼悔) 밖에 위치해 있고 우리와의 사이에 두 강이 막혀 있어 그와 상통할 길이 없을 뿐더러 여진인으로서 피난하여 와서 현재 본국의 관직을 받고 있는 자도 10여 명에 달하고 있는 형편이다.

①과 ②는 거란전쟁에 고려를 동맹국으로 끌어들이려는 송 태종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런데 그 근거는 고려가 거란의 침공을 받을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이었다.(①) 사료 ②에서 한국화가 한편으로는 위협하면서 이해관계를 따져 권유하기도 했다는 것 역시 이러한 전략적 구도에 대한 설명이었을 것이다. 송 태종은 고려와 여진의 화해를 권유하기도 했는데(③) 이 기사에는 거란이 고려의 땅을 지나간 것 때문이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984년에 있었던 고려군 압록강 진출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시 고려는 거란이 여진을 공격하는 틈을 타서 압록강 유역을 점령하고 관방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여진군의 공격을 받아 대패하고, 사령관 이겸의가 포로가 되는 바람에 실패했던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송 태종의 개입은 전통적인 중화사상에 의한 의례적 개입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동쪽과 서쪽에서 거란을 협공하려는 대거란전략에서 나온 행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고려와 여진의 화해 없이 고려의 출병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여진은 거란의 여진공격에 고려가 협력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송나라에 탄원하기도 하고(③), 거란에 대한 연합전선을 건의하고(④), 고려를 공격하기도 했다(⑤) 이러한 모순된 행동은 여진이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부족으로 분할되어 있던 데다가 거란의 침공이라는 비상상황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고려의 태도를 보면 송과는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거란에 대한 군사행동에는 절대 동참하지 않고자 했다. 그 이유는 송나라의 생각과는 달리 고려는 당장 거란이 고려에 위협이 된다고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거란은 요해 밖에 위치해 있고, 우리와의

사이에 두 강이 막혀 있어 그와 상통할 길이 없다"는 말은 송나라의 의혹에 대한 외교적 수사일 수도 있지만, 여진의 거란 침공에 대한 구원요청을 허위로 의심했다거나(④), 993년 여진족의 소손녕 군대의 침공첩보도 허위로 간주했던 사례[3]를 보면 고려가 거란의 침공위험을 긴박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사실은 송과의 관계도 그리 긴밀하지는 않았다. 972년 서희가 송에 사신으로 갔는데,[4] 고려 사신이 송에 간 것이 10년만이었다고 한다.[5]

더욱이 ⑤의 기사에 의하면 고려는 여진을 추격하여 평북 지역으로 진입한 거란군과 어떤 형태로든 접촉했던 것 같은데, 여진인을 수색해서 잡아가는 거란과 충돌을 피했고, 이 사태를 거란과 여진의 갈등으로 이해했던 것 같다.

고려의 외교노선은 일종의 불간섭주의로서 송과의 교류조차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었다. 대신 고려의 관심은 여진족에게 쏠려 있었는데, 거란의 침공으로 밀려드는 여진족을 막고, 이 기회에 평북 지역의 여진족을 소탕하고 압록강으로 진출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래서 984년 거란의 여진공격을 틈 타 숙여진을 공격 압록강에 장성을 쌓아 국경으로 확정하려고 했다. 이 시도는 실패했지만 991년에는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을 축출하고 백두산을 경계로 정했다. 이것은 평북 지역을 완전히 탈환한 것은 아니고 일부 여진족에 대한 공세였다고 보여진다.

거란에 대한 고려의 안이한 태도는 성종 6년에 올린 최승로의 상소에서 거란과의 수호를 주장하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상소에서 최승로는 기존의 거란단교 정책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도 거란과의 수교를 주장하는데, 이는 차마 태조의 정책을 비난할 수가 없었던 사정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거의 정책을 옹호하면서도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상황이 그때와는 달라졌다는 의미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거란의 위협이 과거와는 달리 현실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종 4년의 상황을 보면 최승로의 지적이 그리 영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것은 당시 고려 정부가 고려와 거란, 송의 3국이 야기하는 전략 구도를 이해하지 못해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3각 구도를 과신하고, 거란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탓이 아닌가 한다. 더욱이 고려와 거란의 사이에는 여진이 존재하고 있어서 고려는 이 3각 구도를 구성하는 축이 아니라 그 축의 외곽에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2. 1차 여·요 전쟁의 발발과 고려의 대응

1) 1차 침공과 봉산전투

993년(성종 12) 8월 동경(요양) 유수 소손녕이 이끄는 거란군이 침공했다. 소손녕은 80만 대군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과장이다. 거란의 군제에 기병 6만 이하의 군대는 도통을 임명하

3)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3년 5월
4) 『고려사』 권2, 세가2, 광종 23년 2월.
5) 『고려사』 권94, 열전7, 서희.

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므로 소손녕군은 기병 6만 이하의 규모인 것은 분명한데,[6] 총병력이 어느 정도였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기병 6만 이하의 규모이며, 거란군을 거국적으로 징발한 것이 아니라 동경의 군대가 주축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군대의 질적 수준도 거란군 주력보다는 미흡했을 것이다. 동경은 한족과 발해민을 이주시켜 재건한 도시였기 때문이다.

소손녕은 자신의 침공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① 거란이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서 구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② 고려가 귀순치 않아서 ③ 고려가 백성을 돌보지 않아서[7] 등이라고 하였는데, 말에 일관성이 없고 명분적 요소가 강해서 이것만으로는 구체적 목적을 파악하기 힘들다.[8]

그런데 거란이 고려침공을 시도한 것은 1차 여진정벌을 시도하기도 전인 983년이었다. 985년에도 침공을 준비하다가 중지했다.[9] 처음에 거란은 여진과 고려를 한꺼번에 굴복시켜 일거에 서쪽 지역을 안정시킬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여진과 고려를 구분하는 2단계 정복작전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고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고려 정복이 만만치 않은 병력과 비용을 소비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듯 하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고려 정복을 시도하는 2차 침공에서 40만을 동원했다. 마지막 침공이자 거란군의 참패로 끝난 6차 침공에서 소배압은 10만을 동원하는데, 이 작전이 거란군으로서도 대담하고 모험적인 작전이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거란군은 고려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만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 분명하다.

또한 991년 거란은 압록강 유역으로 진출해서 위구, 진화, 내원성을 수축하면서 요양-압록강 루트를 개통했지만, 전체 지역을 평정하지는 못했다. 또 압록강에서 청천강 유역에도 여진족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란군이 고려 점령을 시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전술적으로 보면 이 시점에서 거란이 가장 꺼려하는 것은 고려와 여진의 연합이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중원진출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여진 및 고려정벌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했다.[10] 1단계 목표인 여진족을 신속하고 빠르게 제압하기 위해서는 고려와 여진의 연합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따라서 소손녕의 침공은 고려에 대한 탐색전인 동시에 고려를 위협해서 거란의 여진정벌에 간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거란의 침공보고를 받자 고려는 병마제정사(兵馬濟定使)를 파견하여 전국의 병력을 동원하게 했다. 10월에 고려군이 편성되자 시중 박양유와 서희, 최량을 각기 상군사, 중군사, 하군사로 삼고, 성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서경을 거쳐 안북(안주)까지 진격했다.

한편 고려군 선봉군은 구주 남쪽 25리 지점인 봉산군으로 진격했는데,[11] 이곳에서 거란군

---

6) 안주섭, 2003, 『고려 거란전쟁』, 경인문화사, 102쪽. 안주섭은 이 군거에 기초해서 6만 이하라고 보았다. 그러나 6만은 기병만을 지칭한 숫자이므로 총동원 병력은 그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

7) 『고려사』 권94, 열전7, 서희.

8) 안주섭은 이 침공의 목적이 ①고려의 북방진출 차단, ②대송교역 차단, ③숙여진 정복, ④생여진의 남방진출 차단에 있었다고 보았다.(안주섭, 『고려 거란전쟁』, 90쪽)

9) 『요사』 권10, 본기10, 성종 통화원년 10월, 통화3년 7월 갑진, 8월 계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고려시대 군사전략』, 84쪽)

10) 실제로 거란의 2차 침공 당시 성종은 국내가 안정되지 않았다는 대신의 반대를 무릅쓰고 친정을 감행했으며, 이후에도 대 고려전쟁을 무리할 정도로 서둘러서 진행했다.

에게 대패하여 군사(軍使)와 급사중(給事中) 윤서안(尹庶顔) 등이 포로가 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고려군은 당장 저항의지를 포기하고 강화를 모색하게 된다.

2) 강화론의 배경에 대한 전술적 고찰

1차 여요전쟁에서 최대의 의문점은 봉산전투에서 패배하자마자 고려정부가 왜 그렇게 성급하게 절령 이북의 헌납까지 감수하면서 강화론을 주장했느냐는 것이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이 문제는 80만이라는 허세에 겁을 먹은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전쟁에서 병력은 늘 과장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고려 정부가 이 말을 그냥 믿었을 리는 없다. 상대의 전력과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은 직접 부딪혀 보는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파견한 윤서안 부대가 패전했지만 거란군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한 것은 아니었다. 삼국시대 이래 한국군의 전통적 전술은 산성에서의 수성전을 토대로 지연작전을 펴면서 상대병력을 분산시키고, 보급로와 후퇴로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고려군으로서는 아직 본격적인 전술을 사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항전포기를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강화에 할지론까지 제시한 것이다.

정부의 강화결정에 대해 서희의 다음과 같이 반대했다.

> "식량이 넉넉하면 성을 가히 지킬 수 있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병력이 강하고 약한 데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적의 약점을 잘 알고 행동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략) 원컨대 어가를 도성으로 돌리시고 신등으로 하여금 한번 싸우게 한 연후에 의논해도 늦지 않습니다."

성을 지킬 수 있고, 적의 약함을 공격한다는 것은 얼핏 교과서적인 언급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서희는 전통적 전술에 의한 전쟁수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전쟁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고려의 축성망은 청천강까지만 설치되어 있었다. 평북 지역에는 유명한 전략요충인 구주성, 곽주성 등도 방치되어 있었는데, 윤서안 군은 이 지역으로 진격했다가 야전에서 패배한 것이다.

그런데 성종과 다른 관료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항전을 포기했던 것은 고려의 전쟁수행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① 먼저 당시 고려군의 병력규모이다. 이때 고려군의 수는 기록에 없다.[12]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이 성종의 친정이다. 국왕의 친정은 고려시대에도 매우 드문 사례이다. 단 후삼국 시대는 친정이 빈번했는데, 왕건과 견훤이 뛰어난 무장이기도 했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국가를 설립한 후에도 군의 주력이 친위군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성종 때에도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다. 당시 고려는 지방행정망이 매우 부실해서 효율적인 병력 동원

11) 봉산군의 위치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기존의 연구서는 모두 이곳으로 비정하고 있다.(국방군사연구소, 1993, 『한민족전쟁통사2』, 33쪽)

12) 안주섭은 상군사, 하군사라는 직제에 착안하여 3-6만 정도로 추정했다.(위의 책, 91쪽)

이 어려웠다. 동원을 위해 파견한 사신을 '병마제정사'라고 명명한 것에서도 병력을 고르게 동원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느낄 수 있다. 1010년 2차 여요 전쟁 때 현종이 개경을 포기하고 남하할 때 겪었던 일화를 보면 지방관들도 현종에게 경호군을 붙여주지 못했다.

그런데 당시 중앙군의 사정도 어려웠다. 광종은 광군사를 설립하면서 친위군을 크게 확충했다. 하지만 경종과 성종대를 거치면서 이들은 삭감되었다. 성종 6년 최승로의 상소 이후 성종은 중앙군의 교체와 개혁을 서둘렀다. 이것은 당시 중앙군이 국왕의 친위군적 성격이 강했던 데도 원인이 있다. 그래서 성종은 혜종대에 군적에 올렸던 병사까지도 방환했던 것이다.[13]

소손녕이 침공하던 시기는 중앙군의 개편이 진행되던 때였다. 990년에 성종은 좌우군영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고려의 중앙군인 이군육위의 모태가 되었다고 본다.[14]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군육위를 기준으로 볼 때 993년의 중앙군은 과도기였다. 이군육위제가 본격적으로 완비되는 것은 994년에서 1008년(목종 11) 사이로 1차 여요전쟁에 자극받아 다급하게 정비한 것이다. 이군육위의 상비군의 수는 전성기에도 3만 정도였다.[15]

중앙군의 수는 부족하고, 지방군의 동원체제는 부실하고, 지방군의 충성도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북계의 토병을 징집한다고 해도 이들을 운용하려면 믿을 수 있는 주력군이 중심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부족한 중앙군을 분리할 수도 없었으므로 성종이 직접 중앙군을 인솔하고 출정해야 했던 것이다.

② 또 하나의 이유는 평남 지역의 방어역량이다. 이후에 벌어지는 2~6차의 여요전쟁, 대몽항쟁, 고려 후기의 거란 유민 및 홍건적과의 전쟁을 보면 고려의 주방어선은 강동육주를 포함한 평북 지방이었다. 평남 지역에는 안북과 서경이 주요한 군사거점이었고, 서경은 특히 강력한 수비력을 자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쟁에서 두 성이 버텨도 진격을 저지하지는 못했다. 이는 주변 산성들의 저지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평북 지역이 돌파되면 안북도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16]

또한 안북이나 서경방어선이 돌파되면 방어선은 바로 절령(자비령, 황주 남쪽) 라인으로 후퇴했다. 강화회의에서 절령 이북이라는 기준이 제시된 것은 청천강에서 절령 사이에는 대군을 막을만한 저지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령 라인도 실전에서는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다. 조선시대에 이곳에는 정방산성이 설치되지만 고려말까지도 이곳에는 목책 이상의 방어시설이 없었다. 유일하게 실전을 벌였던 것이 1361년 홍건적의 침공 때였는데, 이 방어전은 엄청난 비극으로 끝났다.[17]

결국 청천강 라인이 뚫리면 개경까지 제대로 된 저지선이 없는 셈이었다. 이것은 고려의

---

13) 홍승기, 「고려초기 중앙군의 조직과 역할」, (육군본부, 1983, 『고려군제사』)

14) 이기백은 이것이 좌우위의 설치기사라고 보았고(이기백, 1968, 「고려경군고」,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65쪽), 홍승기는 태조대부터 국왕의 친위군이었던 左綱과 右綱을 계승한 좌군, 우군의 설치기사라고 이해했다.(홍승기, 위의 글, 38쪽)

15) 서긍, 『고려도경』 권11, 장위(丈衛)1. 고려의 군제로 보아도 개경에는 2군6위, 총 38령(1령은 1,000명)의 상비군이 있었다.

16) 2차 여요전쟁과 몽골의 1차 침공, 홍건적의 침공 때도 안북성은 함락되었다. 그러나 서경은 여요전쟁 내내 한번도 함락되지 않았다.

17)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2, 공민왕 10년 11월 기유, 계해.

전쟁사에서 심각한 약점이 되었는데, 고려가 국초부터 압록강을 이상적인 국경선으로 생각하고,[18] 광종대부터 압록강 라인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데는 바로 이와 같은 현실적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성종대 역시 압록강 진출을 추진해 왔던 만큼 성종을 위시해서 조정의 관료들은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성종이 몸소 안북까지 진군했던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할지론이라고 해서 거란에 대한 완전한 항복과 영구적인 영토의 포기를 결심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청천강 방어선을 지킬 수 없다면 절령 이북의 땅은 어차피 없는 셈이었다. 일단 절령 이남으로 후퇴하고 내정과 군제를 정비해서 탈환하자는 방안이었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서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종이 할지론을 채택했다가 안융진 전투의 승리 이후 바로 서희의 의견에 동조하게 된 사정도 설명해 준다. 안융진은 안북 서북쪽 26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토성으로 청천강 하류의 나루터를 감제하는 기지이다. 고려의 진 중에서는 중급 수준의 기지로 1200명 정도의 병력을 배치하는 곳이다.[19] 광종 25년에 축성했는데, 토성이었다.[20]

이 전투를 발해 왕자 대광현의 아들인 중랑장 대도수(大道秀)와 낭장 유방(庾方)이 지휘한 것으로 보면 당시에는 고려의 정규군과 발해군 부대가 증원되어 있었지만, 작은 토성에서 거란군을 저지했다는 것은 고무할만한 일이었다. 청천강 방어선을 지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그렇다면 서둘러 절령 이남으로 후퇴할 필요도 없었다.

3. 서희와 소손녕의 회담과 그 의의

강화회담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고려에는 두가지 과제가 있었다. 첫째는 거란군의 철수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압록~청천강 지역의 탈환이었다. 당장 거란군이 철수하고, 그 사이에 고려가 군제 정비에 노력한다고 해도 2차 방어선이 없다시피한 청천강 방어선만으로 거란을 상대하기는 너무 위험했다. 다음 해 고려가 송에 사신을 보내 거란에 대한 협공을 뒤늦게 요청하는 것을 보면[21] 이 강화회담이 성공한다고 해도 거란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 같다. 서희는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회담에 대한 연구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며, 구토에 대한 소유권이 고구려에 있다는 영토의식과 거란에게 송과의 단교와 거란에 대한 조공이라는 명목상의 이득을 주고 강동육주라는 실리를 획득했다는 의의가 강조되어 왔다. 이것은 이 회담의

18) 신안식, 2004, 「고려전기의 북방정책과 성곽체제」, 『역사교육』 89, 76~78쪽, 2005, 「고려전기의 양계제와 변경」, 『한국중세사연구』 18, 224~225쪽.

19) 『고려사』 권83, 지37, 병3, 주현군. 여요 전쟁 이후의 기록이지만 안융진의 주둔 병력은 다음과 같다. 진장 1명, 낭장 1명, 별장 2명, 교위 4명, 대정 8명, 행군 2백 6명, 정용 2대, 좌군 3대, 보창 1대, 신기 11명, 보반 27명, 백정 33대. 이는 장교 15명에 병사 394명과 백정 825명에 해당한다.

20)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안북대도호부, 안융진, 병2 성보조에는 광종 21년에 쌓았다고 한다.

21)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3년 6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간과한 것이다.

서희는 소손녕이 고려 점령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찍 간파했다. 그 이유는 침공 목적에 대한 소손녕의 일관성 없는 주장과 초전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진격과 전투를 주저하고 있는 소손녕의 태도, 그리고 거란과 고려 사이에 여진족이 있다는 전술적 상황이었다.

> 거란의 동경에서 우리의 안북부에 이르는 수백리의 땅은 모두 생여진이 점거하고 있었는데, 광종이 취하여 가주, 송성 등의 성을 쌓았습니다. 지금 거란이 온 것은 그 뜻이 북쪽의 두 성을 취하려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22]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거란군의 목적이 청천강 이북 지역의 획득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23] 할지론의 핵심인 청천강 방어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동경에서 청천강까지 이르는 거란의 점령지역은 아직 선의 영역에 불과하다는 통찰이 숨어 있다. 그렇다면 전술적 입장에서 거란측의 중요한 목표는 여진점령을 달성하는 것이다. 고려의 조공을 요구하는 이유도 당장의 목표는 여진점령의 묵인 내지는 협조였다고 보아야 한다.[24] 따라서 이 회담에서 핵심적 내용은 다음의 내용이다.

> 만약 여진을 축출하고 우리의 고토를 돌려주어 성보를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한다면 감히 조빙을 닦지 않겠는가?[25]

이후의 상황을 보면 서희와 소손녕은 압록강을 경계로 거란과 고려가 남북에서 여진족을 협공하자는 밀약까지 맺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소손녕이 예상하지 못하던 성과였다. 거란은 여진족을 압박하면 위기를 느낀 고려는 당연히 여진과 협력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고려 정벌이 만만치 않다고 보고 여진과 고려의 동시 점령 전술까지 포기했던 거란으로서는 이 사태에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고려가 자진해서 여진에 대한 협공을 제안한 것이다.

소손녕은 서희에게 낙타 10두, 말 100필, 양 1천 마리와 비단 5백 필이라는 막대한 물량을 예물로 주었다. 이것도 강자인 거란이 철군하는 회담이라고 본다면 이해하기 힘든 액수였

---

22) 『고려사』 권94, 열전7, 서희.

23) 안주섭은 이 말을 거란이 말하는 고구려의 구토에 대한 소유권이란 여진족이 살던 청천강 이북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지칭하는 것이지, 청천강 이남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해석하였다.(안주섭, 앞의 책, 106쪽)

24) 당시 거란의 목적을 송과의 국교단절과 거란과의 국교개설이라고 대부분 설명하고 있다.(이재석, 1999, 「근대외교사적입장에서 본 서희」, 『통일문제와 국제관계』, 165쪽)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구체성이 부족하다. 국교설정이란 어떤 경우에도 1차적인 과정 밖에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국가관 관계의 내용인데, 거란이 이미 고려침공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거란의 본래적 목적은 거란의 배후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거세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외교관계 개설이라는 것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25) 『고려사』 권94, 열전7, 서희.

다. 더욱이 서희는 거란에 대한 조공을 분명하게 약속한 것도 아니었다.

> 성종은 서희가 화의에 성공한 것을 알고 대단히 기뻐하며 강가에까지 나가서 맞아 주었으며 즉시로 방양유를 예폐사(禮幣使)로 삼아 거란에 파송하여 친선의 뜻을 표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때 서희가 다시 왕에게 아뢰기를 "제가 소손녕과 약속하기를 여진을 소탕하고 옛땅을 회복한 연후에 국교를 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겨우 강 이쪽 땅을 회복했을 뿐이므로 금후 강 저편의 땅까지 회수될 때를 기다려서 국교를 통하여도 늦지 않다"고 말했으나 성종은 말하기를 "오랫동안 왕래가 없으면 또 무슨 후환이라도 생길까 염려해서 파송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사신을 보내었다.[26]

즉 조공 약속조차도 조건부 약속이었는데, 그 조건은 여진에 대한 양국의 협공이었다. 그리고 성종 3년, 14년에 서희는 이 지역을 탈환하고 축성작업을 지휘했다.

> 성종 13년에 서희는 군사를 영솔하고 여진을 구축하여 장흥(長興), 귀화(歸化) 두 진(鎭)과 곽주, 구주 두 고을에 성을 쌓고 이듬해에는 또다시 군사를 영솔하고 안의, 흥화 두 진에 성을 쌓았으며 또 그 다음해에는 선주, 맹주 두 고을에 성을 쌓았다.[27]

서희의 최대의 공로는 소손녕의 군의 철군이나 영토적 의미에서 강동육주의 회복이 아니라 평북 지역에 구축한 고려의 방어선이었다. 이 방어선은 6차까지 진행된 여요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거란군은 2차와 6차 단 2번만 이 방어선을 통과했는데, 2차 침공에서도 상당히 불완전하게 통과를 했고, 양규가 통주와 곽주를 탈환하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입으며 철군해야 했다. 6차 침공은 소배압이 이 지역 공략을 아예 포기했기 때문인데, 회군하는 길에 이 방어선에 걸려 궤멸되면서 여요전쟁이 종식된다.

맺음말

여요 전쟁이 임박한 당시 고려는 불간섭주의를 고수하면서 거란의 위험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정도 어려워서 성종대에 지방행정망의 정비를 겨우 시작하고, 중앙군도 재편작업에 들어가 있었다.

거란 전쟁이 시작되자 부실했던 병력동원 체제 덕분에 중앙군에 의지하는 성종은 최전선까지 출정해야 했다. 더욱이 청천강 유역의 방어선을 고수할 자신이 없자 고려는 절령으로의 후퇴하고 강화를 요청하게 된다. 이것이 외교적으로는 할지론이라고 표현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희는 탁월한 분석 능력으로 거란군의 전술적 입장과 고려군의 전략적

---

26) 『고려사』 권94, 열전7, 서희.
27) 위의 주.

약점을 분명하게 파악하였다. 그리고 소손녕과의 회담을 통해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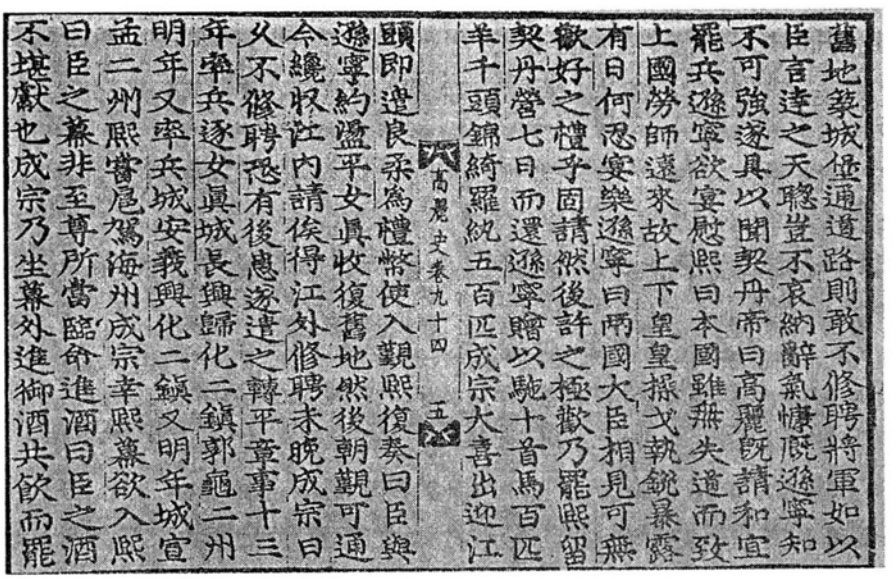
그 결과 고려는 다가올 전쟁에 대비할 시간을 벌었을 뿐 아니라 전쟁을 감당할 주 방어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흔히 서희의 공로를 강화회담의 성공과 철군에서 찾지만, 고려가 여·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자체가 서희의 탁월한 판단력의 결과였다. 그런 점에서 여·요전쟁 전체에 걸쳐 최고의 공신은 서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서희의 업적을 명분을 주고 실리(영토)를 획득했다는 의미에서 현실외교론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더욱이 이런 해석은 사회적으로 외교협상과 조약을 당장의 손익으로 평가하고, 테이블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 서희의 외교의 교훈이며, 실리외교라는 방식으로 설명되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

서희의 현실외교의 핵심은 국제관계는 물론 국내 정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여진족에 대한 협공이라는 협상전략을 창출하게 했던 것이다.

제 3 부

고려의 영토 의식과 서희


舊地築城堡通道路則敢不修聘將軍如以
臣言達之天聰豈不哀納辭氣慷慨遜寧知
不可強遂具以聞契丹帝曰高麗既請和宣
罷兵遜寧欲宴慰熙曰本國雖無失遵而致
上國勞師遠來故上下皇皇操戈執銳暴露
有日何忍宴樂遜寧曰兩國大臣相見可無
歡好之禮予固請然後許之極歡乃罷熙留
契丹營七日而還遜寧贈以駝十首馬百匹
羊千頭錦綺羅紈五百匹成宗大喜出迎江

頭即遣良柔爲禮幣使入覲熙復奏曰臣與
遜寧約盟平女眞收復舊地然後朝覲可通
今纔收江內請俟得江外修聘未晩成宗曰
又不修聘恐有後患遂遣之轉平章事十三
年率兵逐女眞城長興歸化二鎭郭龜二州
明年又率兵城安義興化二鎭又明年城宣
孟二州熙嘗扈駕海州成宗幸熙纂欲入熙
曰臣之纂非至尊所當臨命進酒曰臣之酒
不堪獻也成宗乃坐纂外進御酒共飲而罷

고려 초기의 영토 의식과 서희의 국경론

고려 초기의 정치세력과 서희의 국가관

인물사로서의 서희에 대한 재평가

고려 초기의 영토 의식과 서희의 국경론[1]

신 안 식(숙명여대 연구교수)

머리말
1. 영토의식과 성곽축조
2. 서희의 국경론과 '강동 6주'
맺음말

머리말

고려전기에는 개경 이북의 양계(兩界, 北界·東界) 지역에 대한 성곽축조가 꾸준하게 이루어졌다.[2] 성곽축조의 목적은 양계 지역의 군사적 운용뿐만 아니라 고려의 국경[3] 즉, 왕조적 영토의식을 구현해 나가는 상징성을 담고 있었다. 국경은 국가 대 국가의 영토 주권과 자국민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경계선이다. 고려의 국경 관념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에는 관방(關防) 설치가 있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1033년(덕종 2)에 축조된 '고려 장성(高麗長城)'이었다.[4] 이는 고려초기부터 형성된 영토의식의 실천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숙종대 이후 동북 지역의 영토를 확대하는 데에도 작용하였다. 따라서 고려의 국경 획정은 개국이후 압록강(鴨綠江)을 사이에 둔 북방정책과 치열한 대외적 투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

1) 필자는 고려전기의 영토의식과 국경 획정에 관한 연구성과를 낸 적이 있었다(2004 「高麗前期의 北方政策과 城郭體制」 『歷史敎育』 89, 歷史敎育硏究會 ; 2005 「高麗前期의 兩界制와 '邊境'」 『한국중세사연구』 18, 한국중세사학회). 이 논문의 논지 또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을 미리 밝혀둔다.

2) 고려전기 북방지역의 성곽 축조에 주목한 연구성과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尹武炳, 1953 「高麗北界地理考(上)」, 『歷史學報』 4 ; 尹武炳, 1953 「高麗北界地理考(下)」, 『歷史學報』 5 ; 李基白, 1958 「高麗 太祖 時의 鎭에 대하여」 『歷史學報』 10(1968 『高麗兵制史硏究』 一潮閣, 재수록) ; 李基白, 1977 「高麗의 北進政策과 鎭城」, 『東洋學』 7 ; 姜性文, 1983 「高麗初期의 北界開拓에 대한 硏究」, 『白山學報』 27 ; 김명철, 1992 「고려시기 성의 위치와 년대에 대한 고증」, 『조선고고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李在範, 1999 「麗遼戰爭과 高麗의 防禦體系」, 『韓國軍事史硏究』 3, 국방군사연구소 ; 申安湜, 2004 「高麗前期의 北方政策과 城郭體制」, 『歷史敎育』 89.

3) 『고려사』에서 보면, '國境'은 나라의 地境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였다. 후삼국 통일 이전 고려 왕조의 군사적인 행동 방향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후백제와의 대결을 위한 남방 전선이고, 둘째는 북방 개척을 위한 북방전선이었다(李基白, 1968 「高麗 太祖 時의 鎭」 『高麗兵制史硏究』, 一潮閣, 232쪽). 때문에 고려초기의 국경인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었지만, 이 글에서의 '國境'은 주로 북방 민족과의 '영토 경계'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4) 『고려사』 권5 세가5, 덕종 2년 8월 戊午 "命平章事柳韶 創置北境關城".

고려 건국 이후 태조 왕건은 신라와 후백제를 무너트리며 고려 왕조의 영역적 기틀을 세웠지만 북방의 국경을 획정하지는 못했다. 그것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契丹)의 강성과 여진(女眞)의 존재가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후백제와의 오랜 전투로 인하여 북방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도 작용하였다. 고려 왕조가 북방 지역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918년(태조 원년) 태조 왕건이 즉위하면서 평양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5] 표방하면서부터였고, 919년(태조 2년)에 개경 정도(開京 定都)가 이루어지면서 거의 동시에 서경(西京)과 더불어 양경제(兩京制)가 실시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또한 고려 왕조의 적극적인 영토의식의 표출로도 이해할 수 있다. 고려초기 국경 획정과정에는 거란과의 마찰이 불가피하였다. 특히 993년(성종 12) 윤10월, 서희와 거란 장수 소손녕과의 강화회담은[6] 압록강을 중심으로 서북지역의 국경이 획정되는 역사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고려 국경에 대한 연구 성과는 꾸준하게 이루어진 편이고,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에 따른 대외관계사 연구가 활발해 지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7] 특히 고려전기의 북방 영토 경계에 있어서 압록강 유역의 실효적 지배가 언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관심이[8] 여전히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려초기의 국경 획정과정을 우선 왕조적 영토의식의 전개과정과 그 구현으로서의 북방 성곽축조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회담 과정에서 나타난 서희의 국경론과 '강동 6주(江東六州)'의 실체를 통해 고려초기 국경 획정의 의의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1. 영토의식과 성곽축조

고려초기의 국경 획정에는 개국이후부터 꾸준하게 형성된 왕조적 영토의식이 크게 좌우하였다. 이런 점은 태조대의 북방지역에 대한 잦은 순행(巡幸)에도[9] 반영되었는데, 이를 고려후기의 이제현은 "우리 태조께서는 왕위에 오른 후에 김부(金傅)가 아직 귀순하지 않았고 견

5)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원년 9월 丙申 "諭群臣曰 平壤古都荒廢雖久 基址尙存 而荊棘滋茂 蕃人遊獵於其閒因 而侵掠邊邑 爲害大矣 宜徙民實之 以固藩屛 爲百世之利 遂爲大都護 遣堂弟式廉 廣評侍郎列評 守之".

6)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2년 윤10월.

7) 고려전기 영토의식에 주목한 연구성과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池內宏, 1918 「高麗成宗朝に於ける女眞及び契丹との關係」 『滿鮮地理歷史硏究報告』 5 ; 尹武炳, 1953 「高麗北界地理考(上)」, 『歷史學報』 4 ; 尹武炳, 1953 「高麗北界地理考(下)」, 『歷史學報』 5 ; 金九鎭, 1976 「公嶮鎭과 先春嶺碑」 『白山學報』 21 ; 方東仁, 1997 『韓國의 國境劃定硏究』 一潮閣 ; 申安湜, 2004 「高麗前期의 北方政策과 城郭體制」, 『歷史敎育』 89 ; 李基東, 1976 「新羅下代의 浿江鎭—高麗王朝의 成立과 關聯하여」 『韓國學報』 6 ; 李基白, 1977 「高麗의 北進政策과 鎭城」 『東洋學』 7 ; 金光洙, 1977 「高麗前期 對女眞交涉과 北方開拓問題」 『東洋學』 7; 姜性文, 1983 「高麗初期의 北界開拓에 대한 硏究」 『白山學報』 27 ; 신안식, 2005 「高麗前期의 兩界制와 '邊境'」 『한국중세사연구』 18 ; 김순자, 2006 「10~11세기 高麗와 遼의 영토 정책」 『북방사논총』 11 ; 李美智, 2008 「고려 성종대 地界劃定의 성립과 그 외교적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24.

8) 김순자, 앞의 논문 ; 李美智, 앞의 논문.

9) 태조대의 북방지역에 대한 巡幸 기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훤이 포로가 되지 않았는데도 자주 서도(西都)에 행차하여 친히 북방의 변경에 순수하였다. 그 의도 또한 동명왕(東明王)의 옛 영토를 내 집의 대대로 전해지는 전통[世傳之物]로 알아 반드시 취하여 차지하려 하였으니, 어찌 다만 계림(鷄林)을 취하고 압록강만을 칠[操鷄搏鴨] 뿐이었겠는가?"라고[10] 하여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을 통한 보다 확대된 영토의식을 보여주는 빌미로 삼았다. 이 또한 『고려사』 지리지에도 반영되어 있다.[11]

고려초기의 국경 획정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무엇보다 압록강 연안이었다. 압록강 연안이 고려의 영토의식에 포괄된 것은 관념적인 것과 실제적인 지배의 의미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압록강 연안이 고려의 실제적인 지배권으로 들어온 것은 성종 12년의 거란 침략 및 이로 인한 서희와 거란장수 소손녕과의 강화회담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은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

> 가-① 우리나라의 군현(郡縣)은 ·도적(圖籍)에 나타난 것이 대략만 있고 자세하지 못하여 상고할 수 없었다. [후삼국] 통일 이후에 비로소 고려도(高麗圖)가 생겼으나 누가 만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 산맥을 살펴보면, 백두(白頭)로부터 구불구불 내려오다가 철령(鐵嶺)에 이르러 별안간 솟아올라 풍악(楓岳)이 되었고, 거기서 중중첩첩하여 태백산(太白山)·소백산(小伯山)·죽령(竹嶺)·계립(鷄立)·삼하령(三河嶺)·추양산(趨陽山)이 되었다. 중대(中臺)는 운봉(雲峰)으로 뻗쳤는데 지리와 지축이 여기에 이르러 다시 바다를 지나 남쪽으로 가지 않고, 청숙한 기운이 서려 뭉쳤기 때문에 산이 지극히 높아서 다른 산은 이만큼 크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 등의 서쪽으로 흐르는 물은 살수(薩水)·패강(浿江)·벽란(碧瀾)·임진(臨津)·한강(漢江)·웅진(熊津)인데 모두 서해로 들어가고, 그 등마루 동쪽으로 흐르는 물 중에서 가야진(伽倻津)만이 남쪽으로 흘러갈 뿐이다. 원기가 화하여 뭉치고, 산이 끝나면 물이 앞을 둘렀으니, 그 풍기(風氣)의 구분된 지역과 군현의 경계를 이 그림만 들추면 모두 볼 수 있다.[12]

北界			西京		
3년	是歲 王 巡北界而還	節	4년 10월	壬申 幸西京	史
11년	是歲 巡幸北界	史	5년	幸西京 新置官府員吏 始築在城	史
15년 7월	辛卯 親征一牟山城 遣正胤武 巡北邊	史	8년 3월	幸西京	史
* 契丹滅渤海(태조 8년 12월) → 節 * 史→『고려사』 권1, 世家 1·2, 太祖 1·2 節→『고려사절요』 권1, 太祖			9년 12월	癸未 幸西京 親行齋祭 巡歷州鎭	史
			12년 4월	幸西京 歷巡州鎭	史
			13년 5월	壬辰 幸西京	史
			13년 12월	庚寅 幸西京 創置學校	史
			14년 11월	辛亥 幸西京 親行齋祭 歷巡州鎭	史
			17년 1월	甲辰 幸西京 歷巡北鎭	史
			18년 9월	甲午 幸西京 歷巡黃·海州	史

10) 『고려사절요』 권1, 태조 26년 5월.

11)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序 "我海東三面阻海 一隅連陸 輻員之廣 幾於萬里 高麗太祖興於高句麗之地 降羅滅濟 定都開京 三韓之地歸于一統 … 其四履西北 自唐以來 以鴨綠爲限 而東北則以先春嶺爲界 盖西北所至 不及高句麗 而東北過之".

12) 『동문선』 권92 서, 「三國圖後序(李詹)」

이 내용은 1396년(조선 태조 5)에 이첨(李詹)이 고려초기에 그려진 고려 지도[高麗圖]를 본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이 지도의 존재유무 혹은 사실유무를 지금으로선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 정황을 통해 그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고려초기 영토의 주축이 백두산으로부터 설정된 것은 왕조적 영토의식의 정통성과 그 이해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등의 서쪽으로 흐르는 물은 살수·패강·벽란·임진·한강·웅진인데 모두 서해로 들어가고, 그 등마루 동쪽으로 흐르는 물 중에서 가야진만이 남쪽으로 흘러갈 뿐이다"라고 하여, 큰 강줄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고려 서북 국경의 중요한 기준이었던 압록강이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압록강에 대한 문제는 고려 성립으로부터[13] 대외적 마찰 특히, 거란과의 국경 분쟁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위의 '高麗圖'는 광종대 청천강 이북 지역에 성곽이 구축되기 이전의 영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에 비해 압록강을 포함한 고려의 영토의식을 보여주는 자료는 다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가-② '먼저 계(鷄)를 잡고, 뒤에 압(鴨)을 칠 것'이라고 한 것은, 왕시중(王侍中, 태조 왕건)이 나라를 얻은 뒤에 먼저 계림(鷄林, 신라)을 얻고 뒤에 압록강을 되찾는다는 뜻이다.[14]

③ 우리 국가가 삼국을 통일한 지 47년이 되었는데 사졸은 편안히 잠을 자지 못하고 군량이 허비됨을 면치 못하는 것은, 서북 지방이 오랑캐와 닿아 있어 방비해 지키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컨대 성상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소서. 마헐탄(馬歇灘)을 경계로 삼은 것은 태조의 뜻이요, 압록강가의 석성(石城)을 경계로 삼은 것은 대조(大朝)가 정한 것입니다. 바라건대 요해지를 가려 국경을 정하고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하는 토인을 뽑아서 방어하고 지키는 데 충당하고 또 그 가운데 2, 3명의 편장(偏將)을 뽑아서 이를 통솔하게 한다면, 경군(京軍)은 번갈아 수자리하는 노고를 면하게 되고 마초와 군량은 운반비용을 덜게 될 것입니다.[15]

④ 서희가 국서(國書)를 받들고 거란 진영에 가서 소손녕과 대등한 예를 차리고 조금도 굴하지 않으니 소손녕이 마음속으로 기특히 여겼다. (소손녕이) 서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다. 고구려는 우리의 소유인데 너희 나라가 이를 침식하고 있으며 …"라고 하였다. 서희가 말하기를,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옛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다. 그런 까닭으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고 평양(平壤)에 도읍을 정했으니, 만약 땅의 경계를 논한다면 상국(上國, 거란)의 동경(東京)도 모두 우리 지경에 있는데, 어찌 우리를 침식했다고 이르느냐. …"라고 하였다.[16]

---

13) 『고려사』 高麗世系 "先操鷄後搏鴨者 王侍中 御國之後 先得鷄林 後收鴨綠之意".
14) 『고려사』 高麗世系.
15) 『고려사절요』 권2, 성종 원년 6월.
16)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2년 윤10월.

사료 가-②의 내용은 고려의 영토의식이 확립되기 이전의 사실을 설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고려의 영토가 신라와 구고구려의 영역까지를 포괄하였고, 북방의 경계지역으로 압록강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왕조적 영토의식의 출발이자 구현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였고 이후 국경 분쟁에서의 명분이 되었다. 사료 가-③에서는 982년(성종 원년) 최승로에 의해 제시된 '시무(時務) 28조'의 일부로서 고려의 북방 경계에 대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그 근거 지역으로 마헐탄과 석성이 거론된 것은 이 두 지역의 위치 여부가 고려초기의 국경을 이해할 수 있는 관건이다.

마헐탄의 위치는 일찍이 압록강으로 비정되었다가 이후 청천강일 것이라는 견해들이 제시되었고,[17] 후자의 견해가 유력하게 받아들여지는 형편이다. 그런데 태조대의 성곽분포가 청천강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마헐탄과 청천강을 연관시킨[18]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서 가-②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태조대의 국경 인식이 청천강으로 고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고려초기의 국경 인식에서도 압록강이 중요한 지역적 근거로 상정되고 있었다.

석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위원진(威遠鎭)은 현종 20년에 유소를 보내 옛 석성[古石城]을 수리하여 이를 설치하였고, 진(鎭)은 흥화진(興化鎭)의 서북에 있다"라는[19] 것과 운중도 역참(雲中道 站驛) 중에 석성[平虜鎭]이[20] 확인되는 등의 사례가 있다. 평로진은 북계 지역이긴 하지만 동북쪽에 가까운 지역이었고, 위원진은 압록강 유역의 의주(義州)와 가까운 지역이었다. 따라서 석성이 고려와 거란의 경계였음을 고려하면 위원진이 아니었을까 한다.[21]

한편 사료 가-③에서 마헐탄 혹은 석성이 거란의 남방 경계선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마헐탄과 압록강가의 석성'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마헐탄과 압록강이 전혀 다

---

17) 李基白 등, 앞의 책, 79쪽. 즉, 馬歇灘을 압록강 중류로 비정한 것은 池內宏(앞의 논문, 8~9쪽)·金庠基(『高麗時代史』 서울대출판부, 1985, 65쪽)·朴賢緖(「北方民族과의 抗爭」 『한국사』 4, 1974, 258쪽) 등이고, 청천강으로 비정한 것은 尹武炳(앞의 논문, 48~49쪽)·李丙燾(『韓國史』 中世篇, 震檀學會, 1961, 58쪽)·姜性文(앞의 논문, 35~37쪽)·서성호(「고려 태조대 대(對)거란 정책의 추이와 성격」 『역사와 현실』 34, 1999, 36쪽) 등이다.

18) 尹武炳, 앞의 논문, 48~49쪽.

19)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北界 安北大都護府 寧州, 威遠鎭條.

20) 『고려사』 권82 지36 병2 站驛, 雲中道條.

21) 압록강가의 石城이 주목받는 이유는 '大朝'가 누구를 지칭한 것이냐는 문제인데, 이는 압록강을 중심으로 한 고려의 영토의식 형성에 시기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이기 때문이다. 이를 중국(혹은 거란)·고려 경종(혹은 성종) 등으로 보기도 한다(李基白 등, 1993 『崔承老上書文硏究』 一潮閣, 79~80쪽). 大朝를 어느 쪽으로 인식하든 간에 石城이 고려 국경의 근거였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고려사』 등에서 발견되는 大朝라는 용어는 事大의 대상을 주로 지칭한 것이었고, 石城이라는 용어 역시 고려의 다른 지명 혹은 성곽 명칭과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大朝를 거란으로 추정하면, 성종 즉위 무렵부터 거란을 大朝라고 부를 정세였는지가 문제이겠고, 또한 태조대로부터 이루어진 거란에 대한 인식 및 송나라와의 관계 등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를 '고려 성종'을 의미한 것으로 이해하였다(2004 「高麗前期의 北方政策과 城郭體制」, 『歷史敎育』 89). 이는 곧 "命刑官御事李謙宜 城鴨綠江岸以爲關城 女眞以兵遏之 虜謙宜而去 軍潰不克城 還者三之一"(『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3년)라는 자료에서 성종 3년 關城을 쌓고자 했던 배경으로 이해한 것이다.

른 명칭이었는지도 의문이다.[22] 이런 문제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고려초기 거란과의 관계에서 여진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과 최승로의 주장은 압록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고려와 거란의 국경 인식에서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었던 지역이라는 것이다. 사료 가-④의 내용이 그러한 실례가 될 것이다. 즉 거란의 1차 침략에 대한 고려의 대응 과정에서 두 나라의 영토의식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도 고려가 구고구려의 영역을 계승했음을 강조하였고, 그 중심적인 축을 압록강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23]

이렇게 압록강을 기준으로 한 국경 개념을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로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것은 고려가 고구려 역사계승을 강조하면 할수록, 고려의 영역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宋 나라를 압박할 정도의 강력한 거란은 고려의 국경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점들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양국의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에서 고려초기에는 서북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국경 인식에 비해, 동북면 지역의 국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려사』 지리지 서문에서는 "서북은 당나라 이후부터 압록강을 국경으로 삼고, 동북은 선춘령(先春嶺)으로 경계를 삼으니, 대체로 서북의 경계는 고구려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동북은 이에서 지났다"라고[24] 하여, 서북 국경의 접점이 압록강으로 인식되었던 반면, 동북 국경은 1108년(예종 3) 윤관의 9성 건설[25] 이후로 설정되고 있었다. 하지만 동북 국경에 대한 문제는 예종대 윤관의 여진정벌 이전까지는 서북 국경에 비해 적극적으로 거론되지 못했다. 이러한 고려전기의 영토 문제는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 그 역사적 대강을 이해할 수 있다.

> 가-⑤ 고려는, 남쪽은 요해(遼海)로 막히고 서쪽은 요수(遼水)와 맞닿았고 북쪽은 옛 거란 땅과 연속되고 동쪽은 금나라와 맞닿았다. … 옛적에는 봉경(封境)이 동서는 2천여 리, 남북은 1,500여 리였는데[舊封境 東西二千餘里 南北一千五百餘里], 지금은 이미 신라와 백제를 합병하여 동북쪽은 조금 넓어졌지만 그 서북쪽은 거란과 연속되었다. 옛적에는 대요(大遼)와 경계를 했었는데[昔以大遼爲界], 뒤에 대요의 침략을 받게 되어 내원성(來遠城)을 쌓아 요새로 삼았다. 그러나 이것은 압록강을 믿고 요새로 한 것이다. … 고려에서는 이 강물이 가장 크다. … 이로써 전고에는 일찍이 이 강을 믿어 요새로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이래서 고려가 물러 들어가 압록강의 동쪽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는가?[26]

---

22) 압록강은 '馬訾水'라고도(『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北界, 義州條) 불려 마헐탄과 비슷한 용어로 파악되고, 청천강은 주로 '薩水'로(『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安北大都護府) 불려 왔기 때문에 압록강과는 차이가 있다고 여겨진다.

23) 서희의 영토의식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24)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序.

25) 『고려사』 권12, 세가12, 예종1, 예종 3년 3월.

26) 『고려도경』 권3 城邑, 封境.

이 내용은 1123년(인종 원년)에 송나라 사신 서긍이 편찬한 『고려도경』 중에서 고려의 강역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고려의 서북 지역에 대한 것은 자세한 반면, 동북 지역에 대한 것은 그렇지가 못하였다.[27] 그런데 동서의 길이가 2,000여 리라는 것은 '고려 장성'이 1,000여 리[延袤千餘里]였다는[28] 것과 차이가 난다. 거리상으로 약 2배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동북 국경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윤관의 9성 지역 혹은 공험진의 선춘령까지를 아우른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 또한 앞서 『고려사』 지리지 서문에서 "그 사방의 경계가 서북은 당나라 이후 압록강을 한계로 하였고, 동북은 선춘령으로 경계를 삼으니, 대체로 서북은 고구려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동북은 이에서 지났다"라는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의 영토의식은 1101년(숙종 6) 고려의 지형을 참조하여 만들었다는 화폐 '은병(銀甁)',[29] 1107년(의종 2)에 발견된 '고려지도(高麗地圖)',[30] 공민왕 때의 지도,[31] 그리고 앞서 조선초기 이첨이 보았다는 '고려도(高麗圖)'[32] 등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것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고, 다만 고려초기부터 꾸준하게 구축한 양계 지역의 성곽 축조를 통해 그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33] 고려전기 양계 지역의 성곽 축조

역 / 도 / 시기	흥교도	흥화도	운중도	삭방도
태조대 (918~943)	龍岡縣 咸從縣 鎭國城 安定鎭 永淸鎭 安北府 肅州 平原郡		雲南縣(撫州) 成州 安水鎭(連州) 興德鎭 朝陽鎭(連州) 馬山 連州城 順州 陽岳鎭 大安州(慈州) 殷州	
정종대 (945~949)	德昌鎭(博州) 通德鎭(肅州) 博州		鐵甕(猛州) 德城鎭(渭州)	
광종대 (949~975)		濕忽(嘉州) 寧朔鎭 泰州 信都 嘉州 安戎鎭	威化鎭(雲州) 撫州 安朔鎭(延州) 樂陵郡(渭州) 雲州	長平鎭 和州 高州 博平鎭
경종대 (975~981)			淸塞鎭	
성종대 (981~997)		表興鎭 歸化鎭 郭州 龜州 安義鎭 興化鎭 靈州 宣州(通州)	樹德鎭 猛州	陰守鎭 文州
목종대		德州 嘉州 光化縣 郭州	平虜鎭 威化鎭	永豊鎭 鎭溟縣 金壤

27) 서긍이 고려의 지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자세한 고려 지도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고려는 遼東에 있어서 아침에 명령을 내리면 저녁에 와서 바칠 수 있는 侯甸近服 같지 않기 때문에 圖籍의 작성은 더욱 어렵다"라고(『고려도경』 서문) 고충을 털어놓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28) 『고려사절요』 권4, 덕종 2년 8월.

29) 『고려사』 권79 지33 식화2 貨幣, 숙종 6년 4월 "是年 亦用銀甁爲貨 其制 以銀一斤爲之 像本國地形 俗名闊口".

30) 『고려사』 권17 세가17 의종1, 의종 2년 10월 丁卯 "以其書 及柳公植家藏高麗地圖 附宋商彭寅 以獻檜".

31) 『고려사』 권114 열전27 諸臣, 羅興儒傳 "撰中原及本國地圖 敍開闢以來帝王興廢疆理離合之迹 曰好古博雅君子覽之 胸臆閒一天地也 遂進于王 王見而嘉之".

32) 『東文選』 권92, 「三國圖後序(李詹)」 "本朝郡縣 載於圖籍者 略而不詳 無以考驗也 統合以後 始有高麗圖 未知出於誰手也".

(997~1009)		龜州 興化鎭 通州		縣 龍津鎭 翼嶺縣 登州
현종대 (1009~1031)		德州 龍州 鐵州 安義鎭 永平鎭 威遠鎭 定戎鎭 麟州 寧德鎭	淸塞鎭	長州 金壤縣 雲林鎭 宜州 耀德鎭 霜陰縣 顯德鎭 龍津鎭城 高州
덕종대 (1031~1034)		朔州 靜州鎭		
덕종 2년 (고려 장성)		威遠鎭 興化鎭 靜州 寧海◆ 寧德鎭 寧朔鎭 定戎鎭 朔州	雲州 安水鎭 淸塞鎭 平虜鎭 寧遠鎭 孟州	耀德鎭 靜邊鎭 和州
정종대 (1034~1046)			寧遠鎭 平虜鎭	長州 定州 元興鎭 永興鎭
문종대 (1046~1083)		寧朔鎭 龍州	渭州	德州 元興鎭

<표 1>은 북계·동계에 구축된 성곽들을 흥교도(興郊道)·흥화도(興化道)·운중도(雲中道)·삭방도(朔方道) 지역의 역도(驛道)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34] 태조대 즉, 고려 성립기에는 청천강을 중심으로 흥교도와 운중도 지역에 성곽들이 주로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흥화도 지역의 성곽이 축조되기 이전까지는 운중도와 청천강 이남의 흥교도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평안북도를 에워싸는 형세로 성곽을 축조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광종대의 흥화도 지역이 개척되면서부터 흥화도 – 운중도 – 삭방도 지역으로 이어지는 국경 구축이 진전되었고, 성종대 이후 거란과의 3차례에 걸친 전쟁을 치르면서 양계 지역의 성곽들이 좀 더 공고하게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전기의 성곽 구축이 덕종 2년 '고려 장성' 축조의[35] 결실로 나타났다고 하겠다. 이들 성곽의 위치는 맨 뒷장의 <지도>를 참고할 수 있다.

양계의 성곽체제는 지방제도의 정비과정을 통한 양계제의 안정과[36] 덕종 2년 고려 장성의 축조로 일단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 창성의 축조는 대외적으로 국경 획정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고려의 국경이 선의 개념으로 형성될 수 있는[37] 상징성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고려 장성의 구축은 국경 획정을 위한 경계선을 의미하기 이전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의미하고 있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는 곧 1107년(예종 2) 여진을 정벌한 지역에 9성을 구축하여[38] 동북면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토대였던 것이다. 따라서 양계의 성곽 구축은 대내외적으로 고려의 국방력과 왕조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상징성을 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려전기 거란(요) – 여진(금) 등 북방세력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33) 이 표는 『고려사』 권82 지36 병2, 城堡條와 『고려사』 권83 지37 병3 州縣軍, 北界·東界條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 는 추정하기 곤란 것을 표시한 것이다.

34) 북계·동계에 구축된 성곽들을 興郊道·興化道·雲中道·朔方道의 驛道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은 전적으로 양계 성곽체제의 지리적 위치를 쉽게 설명해 보려는 필자의 편리성에 따른 것이다.

35) 『고려사』 권5, 덕종 2년 8월 "命平章事柳韶 創置北境關城".

36) 邊太燮, 1971 「高麗兩界의 支配組織」 『高麗政治制度史硏究』(一潮閣).

37) 李在範, 앞의 논문, 99~100쪽.

38)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東界條.

자존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고려 성립으로부터 왕조적 영토의식의 중심에 항상 압록강의 관념이 상시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압록강을 경계로 하는 영토의식은 관념적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곽 축조를 통해 구체적인 장악 방안과 함께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서희의 국경론과 '강동 6주'

고려초기의 국경은 앞서 최승로의 시무책에서 언급된 마헐탄과 석성 지역으로 관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성종은 즉위 이후 북방 지역의 방어 구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983년(성종 2)에는 청천강 이남지역의 순주(順州)·은주(殷州)·숙주(肅州)·자주(慈州) 등에 방어사(防禦使)를 설치했는데,[39] 방어사는 931년(태조 14)에 안북부(安北府)를 설치한 이후 성종 2년에 영주 안북대도호부(寧州安北大都護府)로의 변동과 관계되었을 것이다. 이들 지역은 흥교도와 운중도 지역에 위치하였고, 서북부 지역에서 서경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에 위치하였다. 또한 984년(성종 3)에는 압록강 유역에 관성(關城)을 설치하려다가 여진의 반발로 실패한 적도 있었고,[40] 991년(성종 10)에는 압록강 밖의 여진을 축출하기도[41] 하였다. 이런 가운데 성종 12년 제1차 여요전쟁은 고려의 국경획정에 전환점이 되었다.

1) 서희의 국경론

거란의 1차 침입에 대한 고려와 거란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39)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北界, 安北大都護府 寧州. 防禦使는 군사적 행정단위가 되며(李基白, 「高麗 地方制度의 整備와 州縣軍의 成立」 『高麗兵制史硏究』, 1981, 194쪽), 970년(광종 21)에 청천강 이북지역인 泰州에도 설치된 적이 있었다.

40)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3년.

41)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0년 10월.

<표 2> 1차 여요전쟁에 대한 고려와 거란의 입장[42]

고려		거란	
대응전략	㉮ 항복론 : 군대를 인솔하여 투항. ㉯ 할지론 : ㉠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 거란에게 주고, 황주(黃州)~절령(岊嶺)까지를 국경으로 삼자는 주장. ㉡ 성종 수용. ㉰ 항전론 : ㉠ 서희 - 거란의 침략 의도는 광종 때 쌓은 가주(嘉州)와 송성(松城)의 탈취 목적. 적과 대적한 이후에 전략 논의. ㉡ 이지백 - 거란의 침략 명분을 확인하여, 신명에게 고한 연후에 항전이냐 화의냐 하는 문제는 오직 주상이 결정할 문제. ㉢ 성종 수용.	침략명분	① 거란이 고구려의 옛 영토를 영유. 고려가 자신의 강토를 침탈[侵奪疆界]. ② 고려가 거란에 귀순치 않았음. ③ 고려가 백성을 돌보지 않으므로 천벌을 주러 온 것임.
강화전략	㉱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 → ㉠ 평양에 도읍. ㉡ 거란의 동경(東京)과 압록강 안팎도 고려 경내. ㉲ 거란에 조빙하지 못한 것은 여진 때문. 여진을 쫓고 우리의 옛 땅을 돌려주어 성보(城堡)를 쌓고 도로를 통하면 조빙할 것임. ㉳ 고려의 뜻을 거란 임금이 접수하기 바람.	강화전략	④ 고려는 옛 신라 땅에서 건국하였고 고구려의 옛 땅은 거란에 소속되었는데, 고려가 침범했음. ⑤ 고려가 송나라를 섬기고 있음. ⑥ 땅을 떼어 바치고 국교를 회복한다면 무사.
성과	㉴ 성종은 방양유를 예폐사(禮幣使)로 삼아 거란에 보내 친선의 뜻을 표시하기로 결정. ㉵ ㉠ 서희는 소손녕과 약속하기를 여진을 소탕하고 옛 땅을 회복한 연후에 국교를 통하기로 함. ㉡ 이제 압록강 이남을 회복했을 뿐, 금후 압록강 너머까지 수복한 이후 조빙할 것을 주장. ㉶ 압강도 구당사(鴨江渡句當使) 파견	성과	⑦ 거란 임금으로부터 정전하라는 회답. ⑧ ㉠ 사신 왕래를 위해 요충지에 성지(城池) 구축. ㉡ 거란은 압록강 서리(西里)에 5개의 성을 수축. ㉢ 고려는 안북부(安北府)에서 압록강 동쪽까지 280리 사이에 축성. 역부(役夫)를 보내어 같은 시기에 착수함.

거란이 1차 침입을 감행했을 때 우선 '侵奪疆界'를 명분으로 내세웠다(<표 2> ①). 이 때의 '강계(疆界)'가 거란이 설정한 고려와의 국경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란이 설정한 '疆界'가 과연 어디였을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 중의 하나가 거란이 고려를 신라의 후예로 여긴 것인데, 이럴 경우 고려의 영토는 대동강 이남으로 축소될 것이다. 또 하나가 거란 침략 원인에 대한 서희의 인식에서도 드러나는데, 그는 광종이 점령하여 쌓은 嘉州와 松城을 빼앗기 위해서였다고 하였다(<표 2> ㉰-㉠). 이 두 가지 사항은 모두 청천강이남 지역을 염두에 둔 설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의 자료가 주목된다.

42) 이 표는 『고려사』 권94 열전7, 徐熙 ;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3년 2월 ;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2년 윤10월 · 13년 2월 등의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나-① 이에 앞서 거란이 여진을 칠 때 우리나라 영토를 거쳐 갔으므로[先是契丹伐女眞 路由我境] … 거란 군대가 곧 자기네 국경으로 쳐들어오니 구원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국은 그것이 허위인 것으로 의심하고 즉시 구원하지 않았다. 그 후 과연 거란군이 쳐들어와서 많은 여진족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여 갔다. 당시에 죽기를 모면한 여진족이 본국의 회창(懷昌)·위화(威化)·광화(光化) 지경까지 도망하여 왔는데 거란군이 그들을 추격하여 잡아가면서 우리 수비병을 불러서 말하기를 여진족이 늘 자기네 변방에 와서 침략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복수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였다.[契丹果至 殺掠甚衆 餘族遁逃入于本國懷昌威化光化之境 契丹兵追捕 呼我戍卒言 女眞每寇盜我邊鄙 今已復讎整兵而回] … 더군다나 거란은 요해(遼海) 밖에 위치해 있고 우리와의 사이에 두 강이 막혀 있어 그와 상통할 길이 없을뿐더러[況契丹 介居遼海之外 復有二河之阻 無路可從] …43)

나-② 압록강 밖에 있던 여진을 축출하여 백두산 밖에 살게 하였다.44)

사료 나-①에서 "契丹伐女眞 路由我境" "本國懷昌·威化·光化之境" "契丹 介居遼海之外 復有二河之阻" 등은 985년(성종 4)을 전후해서 고려에서 설정한 거란과의 국경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회창(미상)·위화[鎭, 雲州]·광화[鎭, 泰州] 등은 청천강과 압록강 사이에 위치하였고, 이 지역으로 도망친 여진족을 쫓아 거란군이 고려의 경계를 경유했다는 것은 곧 압록강을 넘어 왔다는 뜻일뿐더러 우리 군사에게 양해를 구한 것도 압록강 이남이 고려 영토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거란이 요해 밖에 있고 험한 두 하천으로 막혀 있었다는 것은 압록강 넘어 요해까지 고려의 영토로 설정했다는 것은 아닐 것이며, 이 지역은 아마 여진족이 살고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닐까 한다(<표 2> ㈐). 사료 나-②에서는 고려의 군사가 압록강 밖으로 진출하여 그곳에 거주하던 여진을 축출하여 백두산 밖에 살게 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때 거란에서의 항의나 고려에서의 양해를 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은 고려와 거란 사이에 있던 여진을 두 나라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고려의 영토의식 또한 압록강 밖으로까지 넓혀져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성종 12년 거란의 1차 침입에 대한 고려 조정의 전략으로 '항복론과 할지론'(<표 2> ㉮㉯)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이를 수용하려던 성종의 소극적인 태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성종 12년 5월에 거란의 침략이 있을 거라는 여진의 정보를 믿지 않았고,45) 그 해 8월 여진에 의해 거란군이 쳐들어왔다는 정보를 받고서야 전쟁 준비에 착수하는46) 등 대륙 정세에 대한 첩보 능력이 떨어졌던 고려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표 1>과 <지도>에서 성종 때까지의 양계 성곽 및 사료 나-②와 같이 적극적인 북방정책 등을 통해서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희는 거란 침략의 원인을 가주(嘉州)와 송

43)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4년 5월.
44)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0년 10월.
45)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2년 5월.
46)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2년 8월.

성(松城)을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보았고 적극적인 항전을 요구하였다(<표 2> ㉱-㉲). 이렇게 고려 조정의 상황 파악에 혼란을 준 것은 무엇보다 거란의 침략 형태였다.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다는 첩보가 성종 12년 5월에 있었고, 8월에서야 고려 국경을 넘었다고 하였고, 윤10월이 되어서야 봉산군(蓬山郡, 龜州)을 공격하는 등[47] 상당히 느슨한 형태의 진군을 보여주고 있었다. 80만 대군의 위용을 앞세우면서도 적극적인 전투보다는 항복만을 요구하는 거란의 태도에는 분명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고려 또한 3군을 동원했지만[48] 거란과의 적극적인 전투를 한 기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거란의 침략 명분은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를 종식시키고 고려와 국교를 맺으려는 의도가 분명했고, 고려는 북방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진을 제압할 수 있는 명분과 거란의 협조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이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회담 과정에서 양자의 입장을 수용하는 선에서 전쟁을 종식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한편 <표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종 12년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회담에서는 양국의 국경을 획정하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서희가 돌아오자마자 성종은 방양유를 예폐사로 삼아 거란에 보내 친선의 뜻을 표시하기로 결정하였다(<표 2> ㉲). 이에 비해 서희는 "제가 소손녕과 약속하기를 여진을 소탕하고 옛 땅을 회복한 연후에 국교를 통하기로 하였는데, 지금은 겨우 강 이쪽 땅을 회복했을 뿐이므로 금후 강 저편의 땅까지 회수될 때를 기다려서 국교를 통하여도 늦지 않습니다."라고(<표 2> ㉳) 했지만 성종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것이 994년(성종 13) 소손녕의 편지에서[49] 압록강을 중심으로 강동(江東)과 강서(江西)를 구분하여 양국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타협안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고려에서 '압강도 구당사'를 파견하고,[50] 성종 13·14·15년에 각각 성곽 축조의[51] 결실을 가져왔다고 하겠다.

결국 성종은 압록강 이남을 수용하는 영토의식을 가졌던 것에 비해, 서희는 압록강을 초월하는 확대된 영토의식을 보여주었다. 물론 양자의 영토의식을 소극적 혹은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고려 왕조의 전통적인 영토의식을 관철시키려는 서희의 적극적인 국경론은 높이 살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강동 6주'

성종 12년 거란과의 강화과정에서 고려가 획득한 것은 무엇보다 압록강 유역으로의 진출을 공식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왕조적 영토의식의 정체성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국경 구축의 안정적인 지역적 기반을 확보한 셈이다. 이를 일반적으로 '강동 6주'의[52] 획득이라고 명명되어 왔다. 하지만 '강동 6주'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현종 때의

47)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2년 5월·8월·윤10월.
48)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2년 10월.
49)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3년 2월.
50)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3년.
51)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3년·14년 2월·15년.
52) '강동 6주'에 대해서는 "遣刑部侍郎田拱之 如契丹 夏季問候 且告王病 不能親朝 丹主怒 詔取興

일이다. 즉 1010년(현종 원년) 거란의 2차 침입 이후 현종 3년 6월에 형부시랑 전공지(田拱之)를 거란에 보내 현종의 친조(親朝)가 불가능함을 알렸을 때, 거란에서 '흥화진(興化鎭)·통주(通州)·용주(龍州)·철주(鐵州)·곽주(郭州)·귀주(龜州)' 등 6성을 취하겠다고[53] 통고한 사실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6성을 사이에 두고 거란은 반환을 요구하는 사신을 파견하거나,[54] 통주[55]·흥화진[56]·용주[57] 등을 직접 공격하기도 했다. 서희가 성종의 명령을 받고 쌓은 성은 성종 13년에 '장흥진(長興鎭)·귀화진(歸化鎭)·곽주·귀주',[58] 성종 14년에 '안의진(安義鎭)·흥화진',[59] 성종 15년에 '선주(宣州)·맹주(孟州)'[60] 등 8개의 성이다. 또한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회담에서 '강동 6주'가 실제 논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61] 물론 거란이 요구한 '강동 6성'은 북계 지역의 요충지라는 점이 강동 지역의 포괄성을 지닌다는 상징성은 있을 수 있다.

제1차 여요전쟁에서 고려가 획득한 중요한 사항은 압록강을 기준으로 강동과 강서의 구분일 것이다. 그와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 나-③ 봄2월에 소손녕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근래에 나는 황제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고려는 우리와 일찍부터 우호 관계를 맺어 왔고 국경이 서로 인접해 있으니[境土相接] 비록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긴다고 하지만 당연히 일정한 규례가 있고 사신이 왕래해야 시종 일관하게 좋은 관계가 오래도록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미리 해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혹 중로에 사신 길이 막힐 수 있다. 너는 고려와 상의해서 그 나라로 하여금 도로의 요충이 되는 곳에 성을 쌓도록 권고하라'고 하였다. 나는 이 명령을 받고 이곳 실정을 참작하여 압록강 서쪽(鴨江西里)에 5개의 성을 쌓기 위하여 3월 초에 축성할 곳에 가서 곧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청컨대 대왕도 미리 지시하여 안북부에서 압록강 동쪽(鴨江東)에 이르는 280리 구간에 적당한 지점을 답사하고 거리의 원근을 참작하여 우리와 함께 축성하되 역부(役夫)들을 동원하여 동시에 착수하도록 할 것이며, 그 축성할 지점의 수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목적은 거마(車馬)의

化·通州·龍州·鐵州·郭州·龜州等六城"(『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 현종 3년 6월 甲子)라는 자료를 통해서 흥화진·통주·용주·철주·곽주·귀주 등으로 추정되었다.

53)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 현종 3년 6월 甲子.

54)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 현종 4년 3월 戊申·7월 戊申, 5년 9월 丙申, 6년 4월 庚申·9월 甲寅.

55)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 현종 5년 10월 己未, 6년 1월 甲辰·9월 己未.

56)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 현종 6년 1월 癸卯.

57)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 현종 6년 3월 己亥.

58)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3년.

59)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4년 2월.

60)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5년.

61) 김순자, 앞의 논문, 254쪽. 강화회담의 성과를 '강동 6주'의 확보로 설정하는 것은 그 결과를 스스로 축소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거란의 '강동 6城' 반환 요구가 '강동 6주'에 대한 관심으로 표명되었고, 이는 예종대 윤관의 9城 개척 및 반환 문제와 더불어 명명된 것으로 생각된다.

교통이 편리하도록 하여 조공의 길을 열고, 영구히 거란 조정을 받들어 자국의 평안한 길을 찾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62]

이 자료는 성종 12년 윤10월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회담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거란이 제기한 안북부로부터 압록강 동쪽 280리까지 축성하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범위였을까? 앞서 살펴보았던 서희의 성곽 축조와 <표 1>에서 보듯이 성종대 이후 흥화도 지역의 성곽 축조 역시 여기에 준해서 이루어졌고,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3, 평안도조를 참고하면 안북부로부터 '강동 6주'에 해당하는 지역이 그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거란이 설치하려던 압록강 서쪽 5개 성이 어디였을까도 관심사항이지만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거란이 압록강 밖에 성곽을 쌓았다는 것이고, 이는 곧 양국의 국경이 압록강을 중심으로 강동과 강서로 구분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회담에서도 합의된 일부로 여겨지며, 성종의 예폐사 파견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양국의 양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강화회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서희의 의도에는 고려와 거란 사이에 있던 여진족을 축출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2> ㉮㉯). 물론 여진족 축출이 어디까지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성종 10년 압록강 밖의 여진족을 축출하여 백두산 밖에 살게 했다는[63] 사례가 있다. 여진족을 축출한다는 것은 고려의 북방 안정에 중요한 관건이었지만 거란의 요구를 수용한 성종의 선택으로 압록강 이남에만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압록강 유역을 확보한 것은 현종대의 2차례에 걸친 거란의 침입을 극복할 수 있었던 토대였고, 덕종대 '고려 장성'을 구축하여 고려의 국경을 확고히 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따라서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회담에서 획득한 결과물을 '강동 6주'로 상징화하는 것보다는 여진족 축출에 이어 압록강 유역으로의 진출을 통한 국경 획정의 의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맺음말

이상에서 고려초기의 국경 획정과정을 왕조적 영토의식과 서희의 국경론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고려의 국경 획정에는 개국이후부터 꾸준하게 형성된 왕조적 영토의식이 크게 좌우하였고, 그 중심적인 관심에 압록강이 있었다. 압록강 연안이 고려의 영토의식에 포괄된 것은 관념적인 것과 실제적인 지배의 의미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현하는 방식은 성곽 축조를 통한 구체적인 장악 방안과 함께 양계제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졌다.

고려초기의 영토의식은 최승로의 시무책에서 언급된 마헐탄과 압록강가의 석성으로 관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헐탄이 어디였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압록강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고려 성립으로부터 왕조적 영토의식의 중심에 압록강의 관념이 상시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압록강 유역이 고려의 실제적인 지배권으로 들어온 것은

62)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3년 2월.
63)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0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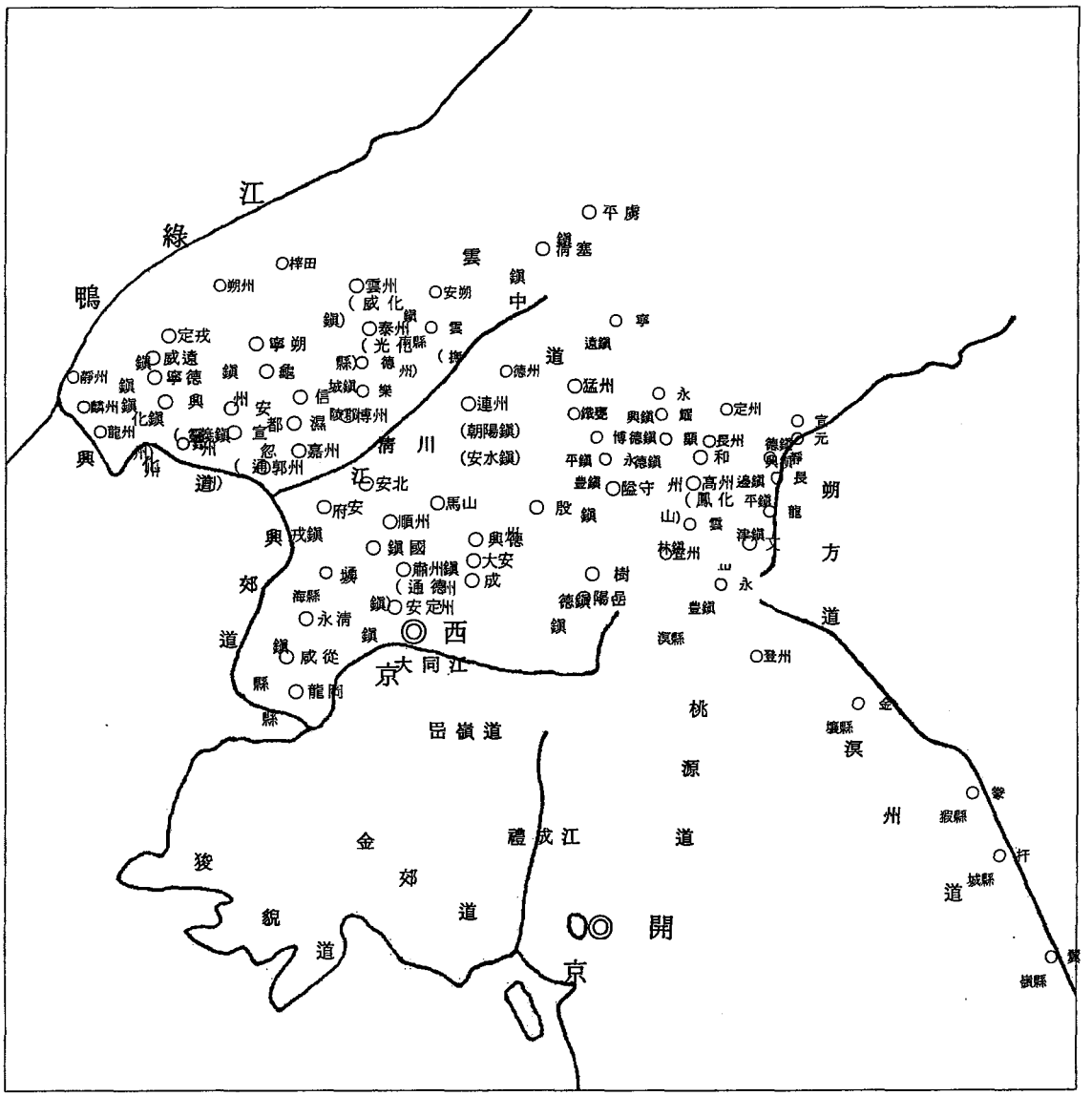
성종 12년의 거란 침략 및 이로 인한 서희와 거란장수 소손녕과의 강화회담 결과로부터 이루어졌다.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회담에서는 양국의 국경을 획정하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강화회담 이후 성종은 예폐사를 거란에 보내 친선의 뜻을 표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성종 13년 소손녕의 편지에서 압록강을 중심으로 강동(江東)과 강서(江西)를 구분하여 양국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타협안이 제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비해 서희는 압록강을 초월하는 확대된 영토의식을 보여주었다.

성종 12년 거란과의 강화과정에서 고려가 획득한 것은 무엇보다 압록강 유역으로의 진출을 공식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왕조적 영토의식의 정체성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국경 획정의 안정적인 지역기반을 확보한 셈이다. 이는 곧 현종대의 2차례에 걸친 거란의 침입을 극복할 수 있었던 토대였고, 덕종대 '고려 장성'을 구축하여 고려의 국경을 확고히 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한편 성종 12년 강화회담의 의의를 일반적으로 '강동 6주'의 획득이라고 명명되어 왔다. 하지만 '강동 6주'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현종 때의 일이다. 그리고 강화회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서희의 의도에는 고려와 거란 사이에 있던 여진족을 축출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는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여진족 축출이 어디까지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를 실현하는 것은 고려의 북방 안정에 중요한 관건이었다. 따라서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회담에서 획득한 결과물을 '강동 6주'로 상징화하는 것보다는 여진족 축출에 이어 압록강 유역으로의 진출을 통한 국경 획정의 의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제1차 여요전쟁을 계기로 해서 드러난 성종과 서희의 영토의식을 소극적 혹은 적극적 추진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고려 왕조의 전통적인 영토의식을 관철시키려는 서희의 적극적인 국경론은 높이 살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도> 고려전기(태조~문종, 918~1083) 양계의 성곽



고려 초기의 정치세력과 서희의 국가관

류 주 희(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머리말
1. 성종 대 정치세력의 구성과 성향
2. 서희의 국가관
맺음말

머리말

성종 12년(993) 10월 東京(遼陽)留守 蕭遜寧을 총지휘관으로 하는 거란의 80만 대군이 고려를 침입하였다. 이에 대한 고려 정부의 대책 회의에서는 割地論을 내세우며 거란과의 화친을 주장하는 이들이 대세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성종 또한 이들의 주장을 따라 서경 이북의 땅을 할양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徐熙와 李知白 등의 반대로 戰況을 보아가면서 결정하는 것으로 늦추어졌다.

거란 침입에 대한 대응책을 둘러싼 논쟁은 성종 대의 정치적 지향과 정치운영을 둘러싸고 갈등·대립 양상이 전개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유교적 정치이념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華風의 성행과 對宋 외교노선에 대한 갈등이기도 하였으며, 성종이 추구하는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체제의 실현이라는 정치운영을 둘러싼 갈등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전자는 고려의 위상을 송을 중심으로 한 중국적 질서 속에 위치 지우려는 측과 國風을 중요시하면서 필요에 따라 중국 문물을 선택 수용하자는 주장 사이의 갈등이었다. 후자는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정치의 추진을 둘러싸고 유교적 중앙집권정치를 추구하는 정치세력과 귀족 중심의 정치운영을 추구하는 정치세력 간의 갈등이었다.[1)]

본고에서는 성종 대 정치운영을 둘러싼 정치 주도층의 존재 양상과 성향을 구분하면서 그들이 보여주는 정치의식이나 국가관의 내용과 그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성종 대 정치 주도층의 성격 규정은 성종 대의 정치상황을 이해하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되리라 여

1) 성종 대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李基白, 「高麗 成宗代의 政治的 支配勢力－慶州·羅州 地方 出身의 儒學者들과 近畿 地方 出身의 豪族系 官僚들」 『湖南文化硏究』 6,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74 ; 李惠玉, 「高麗初期 西京勢力에 대한 一考察」 『韓國學報』 26, 일지사, 1982 ; 李基白, 「高麗 貴族社會의 形成」 『韓國史』 4(고려 귀족사회의 성립), 국사편찬위원회, 1984 ; 兪炳基, 「高麗初期 政治支配勢力에 對한 一考」 『朴性鳳敎授回甲紀念論叢』 경희대사학논총간행위원회, 1987 ; 김갑동, 「고려 귀족사회의 성립」 『한국사』 12(고려왕조의 성립과 발전), 국사편찬위원회, 1993 ; 姜玉葉, 『高麗前期 西京勢力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金塘澤, 「徐熙와 成宗代의 정치적 지배세력」 『徐熙와 高麗의 高句麗 繼承意識』 高句麗硏究會, 1999 ; 구산우, 「高麗 成宗代 정치세력의 성격과 동향」 『 한국중세사연구』 14, 한국중세사학회, 2003 등 참조.

간다.

1. 성종 대 정치세력의 구성과 성향

성종 대의 정치세력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져 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성종 대의 정치주도 세력을 신라 6두품 출신 계열이나 과거 합격자를 위주로 하는 儒臣으로 보는 경향성을 보인다. 곧 성종 전반기는 최승로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 6두품 출신 계열이 정치를 주도하고, 후반기는 서희를 중심으로 하는 近畿 지방의 유신이 정치를 주도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종 대의 정치세력을 儒學을 존중하는 학자들과 전통적인 사상을 존중하는 행정관리의 두 계통으로 나누었다. 이로써 전자에는 崔知夢·崔承老·崔亮·李夢游·王融·李陽·金審言·崔暹·白思柔·柳邦憲 등이 속하는데, 신라의 6두품 계통과 과거 급제자가 주류를 이루고, 주로 성종 전반기에 정치를 주도하여 內史門下省과 學士職에 주로 임명되었다고 하였다. 후자에는 朴良柔·徐熙·李知白·李謙宜·韓彦恭·鄭又玄·李周憲·趙之遴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들은 近畿 지방 출신의 호족 출신이 주류를 이루어 주로 성종 후반기에 정치적 진출을 활발히 하면서 어사도성·어사대 및 중추원 계통에 주로 임명되었다고 하였다.[2]

이러한 정치세력의 구분 기준은 성종 8년으로 이때는 최승로가 사망한 해이기도 하다. 이렇듯 성종 대 정치세력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보는 견해는 구산우에게도 나타난다. 그는 성종 대 정치세력의 재지 기반을 경주계·나주계·근기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경주계는 비호족 출신의 비공신 계열이며, 나주계는 중소호족 출신의 비공신계열, 근기계는 대호족 출신의 공신계열로 파악하였다. 세 집단의 유학 기반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질적으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로써 세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은 성종대의 중앙집권화 정책과 유교적 체제정비에 대한 정치노선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경주계가 적극적으로 지지한 반면에 재지 기반이 강한 근기계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정치주도는 최승로의 사후를 기준으로 성종 후반기에 경주계와 나주계가 점차 퇴조하는 가운데 근기계가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으로 귀결된다고 파악하였다.[3]

金甲童 또한 성종의 배향공신·지공거·내사문하성·어사도성·중추원의 고관들 및 대간직에 있었던 22명을 분석하여 성종 대 지배세력은 신라 6두품 계열이나 과거 합격자를 비롯한 유신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이 가운데 최승로·최량·최심·이양·김심언 등이 성종의 유교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반면에 서희·이지백·정우현 등은 성종의 지나친 유교정책과 중화정책을 비판하면서 "약간의 대립과 갈등"을 보였다고 하였다. 곧 성종 대의 지배세력은 出身이나 出自에 따른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정치이념의 차이에 따른 구분이 명확해 보인다는 것이다.[4]

선행 연구에서 성종 전반기와 후반기의 정치세력으로 구분한 인물들의 정치적 행적을 살펴보면 그러한 성격 규정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더욱이 성종 대의 정치운영 속에서 이들이

2) 李基白, 「成宗代의 政治的 支配勢力」『한국사』 4(고려귀족사회의 성립), 국사편찬위원회, 1984.
3) 구산우, 「高麗 成宗代 정치세력의 성격과 동향」『한국중세사연구』 14, 2003.
4) 金甲童, 「고려 귀족사회의 성립」『한국사』 12(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국사편찬위원회, 1993.

정치 세력으로 권력 투쟁을 전개한 양상은 찾아보기 힘들며, 국왕과의 갈등 관계도 특별한 특징을 찾기는 어렵다. 성종 대 정치 주도층의 관력을 살펴보면 이들이 유학적 소양을 토대로 관직에 진출하거나 정치행적을 보인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전반기 정치세력으로 범주화한 인물들 가운데에는 왕융·김심언·백사유 등처럼 성종 후반에도 여전히 활발한 관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들이 나타난다. 따라서 성종 대의 정치운영에서 나타나는 정치 주도세력을 최승로나 서희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그 둘이 갖는 차별성은 김갑동이 지적하였듯이 "약간의 대립과 갈등" 정도에 불과하게 된다. 곧 科擧 출신 혹은 지방 호족이나 개국공신이라는 배경의 차이와 慶州나 近畿 또는 羅州 지역의 출신이라는 사실 등은 성종 대 정치운영에서 그다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다만, 성종 전반기의 정치주도층과 후반기 정치주도층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 성종 12년(993) 거란의 침입을 당하여 그 대응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이견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침입한 거란의 항복 요구에 대한 대응을 놓고 고려 조정은 강·온 양론으로 나뉘었다. 처음에는 임금은 서울로 돌아가되 重臣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항복을 청해야 하다는 항복론과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서 거란에게 주고 黃州로부터 浿嶺까지를 국경으로 삼자는 할지론이 중론이었다.[5] 이리해 성종 또한 처음에는 할지론을 따르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서희가 항복할지론을 반박하며 거란과의 항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서희는 거란의 침공 의도는 嘉州·松城 두 성을 탈취하는 데 있을 뿐이므로 서경 이북을 떼어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전 민관어사 이지백 또한 서희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고려의 대응방침은 할지항복론에서 항전쪽으로 급선회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지백은 성종 전반기의 정치 주도층이 유교적 정치이념의 시행 속에 華風의 성행과 對宋 일변 외교정책을 추진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으로 이것은 國風을 중요시하면서 필요에 따라 중국 문물을 선택 수용하자는 주장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희 계열이 정치를 주도한 이후에도 왕권 강화나 유교적 정치이념의 시행이라는 기본노선은 동일하였다.

한편 성종 전반기에 경종의 비였던 두 사람의 간통사건이 발생하여 주목을 끈다. 獻哀王后 황보씨는 승려로 가장한 김치양과 사통하였으며, 獻貞王后 황보씨는 태조의 아들인 안종 욱과 간통한 것이다. 결국 김치양과 안종 욱 모두 귀양에 처해지는데, 이는 성종의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일어났던 일로 보인다. 성종은 경종과 헌애왕후 사이의 소생인 誦(후일의 목종)을 궁중에서 양육하였다. 이는 외척인 황보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책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6] 그만큼 왕실 외척으로서 황보씨는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성종은 황보씨의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였으나, 국왕 후계자를 배출하는 외척 세력의 정치적 위치는 아직 강고하였던 듯하다.[7] 곧 성종 대에 외척인 황보씨는 여전

5)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2년 윤10월.
6) 김창현, 앞의 논문, 50쪽.
7) 金塘澤은 성종 전반기의 정치세력을 황주황보씨의 왕실 외척 세력과 최승로로 대표되는 신라 6두품 출신 세력으로 파악하여 이 두 세력이 성종의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였는데, 성종 8년 최승로의 사망을 계기로 신라 6두품 출신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보았다. 이후 성종 12년 거란의 침입을 물리친 것을 계기로 서희를 중심으로 하는 儒臣들이 정치운영을 주도하면

히 정치집단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성종 다음의 왕위가 다시 경종의 아들인 誦에게로 되돌려지고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성종은 성종 9년(990) 12월 경종의 아들 誦을 開寧君으로 책봉한 것은 왕위 계승을 둘러싼 정치적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조처로 이해된다.[8] 특히 경쟁자였던 안종 욱과 황보씨의 결합은 간통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9] 왕위 후계자로 송을 내정한 것에 정치적 위기의식을 느낀 안종 욱이 황보씨 세력과 타협 형식이라는 것이다. 안종 욱과 황보씨의 간통은 의도적인 방화에 의해 알려지는데, 헌정왕후가 안종의 집에서 자고 있을 때 家人이 섶을 뜰에 쌓고 불을 지른 것이다.[10] 이 방화는 안종 욱과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던 헌애왕후(천추태후)가 황보씨 세력의 분열을 방지하고자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11]

성종의 유교적 집권체제 구축 하에서 호족 세력들이 제도적으로 중앙 관인으로 흡수되면서 그 세력 기반을 상실해 가고 있었으나, 외척인 황보씨를 중심으로 하는 西京勢力은 여전히 호족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2] 이리해 성종은 정책적으로 외척과 서경세력에 대한 소외 내지는 억압책을 펼쳤던 것으로 보이며, 목종 즉위 후에 외척 황보씨와 김치양을 중심으로 성종 대의 정치운영에 대한 강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겠다.[13]

정치세력으로서 김치양 일파가 정계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목종 대에 이루어지며, 그들의 출신 기반은 전통적인 호족적 면모를 강하게 갖고 있었다.[14] 그런데 성종 대에 이미 김치양과 헌애왕후(천추태후)의 정치적 결합이 간통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김치양과 헌애왕후의 간통사건은 확실한 증거 없이 소문만으로 간통죄로 유배되는데, 이는 김치양이 外族으로서 헌애왕후와 정치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말해준다.[15] 따라서 김치양의 유배에는 헌애왕후의 반대세력 곧 성종 대 정치를 주도하던 儒臣들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하여 '완전한 정치적 승리'였다고 파악하기도 한다.[16] 그리고 성종은 두 간통사건의 당사자들인 안종 욱과 김치양을 유배형에 처하면서 왕위를 위협할 만한 외척 세력을 견제할 수 있었던 듯하다. 이후 황보씨가 정치세력으로 두각을 드러내게 되는 시기는 목종 즉위 후 천추태후가 섭정을 하면서이다.

서 황주황보씨와 대립하였다고 보았다. 그런데 서희 중심의 유신들은 華風을 싫어하고 팔관회에도 관심을 표하는 등 신라 6두품 출신과는 또 다른 정치적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金塘澤, 「徐熙와 成宗代의 정치적 지배세력」『徐熙와 高麗의 高句麗 繼承意識』 고구려연구회, 1991)

8) 『고려사』 권3, 세가 3, 성종 9년 12월 무신.

9) 金塘澤, 앞의 논문, 93쪽.

10) 『고려사』 권88, 열전 1, 후비 1, 헌정왕후 황보씨.

11) 金塘澤, 앞의 논문, 93쪽.

12) 李泰鎭, 「金致陽 亂의 性格-高麗初 西京勢力의 政治的 推移와 관련하여-」『韓國史硏究』 17, 1977 87~91쪽 ; 金塘澤, 「崔承老의 上書文에 보이는 光宗代의 '後生'과 景宗 元年 田柴科」『高麗光宗硏究』 일조각, 1981, 56~58쪽.

13) 李泰鎭, 앞의 논문, 94쪽.

14) 『고려사』 권127, 열전 40, 반역 1, 김치양.

15) 권순형, 「고려 목종대 헌애왕태후의 섭정에 대한 고찰」『史學硏究』 89, 2008.

16) 김당택, 앞의 논문, 94쪽.

2. 서희의 국가관

성종 12년(993) 10월 東京(遼陽)留守 蕭遜寧을 총지휘관으로 하는 거란의 80만 대군이 고려를 침입하였다. 소손녕이 이끄는 거란군은 蓬山郡을 쳐서 先鋒軍使인 급사중 尹庶顔 등을 사로잡고는 사신을 보내 고려에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다. 거란이 고려를 침입한 가장 주된 원인은 고려와 송의 친선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데 있었다.[17] 고려와 송의 유대는 양국 사이에 경계를 맞대고 있는 거란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거란이 고려 침입의 직접적인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거란이 이미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했는데, 고려가 강토의 경계를 침탈"[18]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고려 정부의 대책 회의에서는 "임금은 서울로 돌아가서 重臣을 시켜 군대를 거느리고 항복을 청하자"거나 "서경 이북 땅을 떼어서 거란에게 주고 黃州로부터 浿嶺까지를 국경으로 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성종 또한 그 의논을 따르고자 할 정도로 처음에는 割地論을 내세우며 거란과의 화친을 주장하는 이들이 대세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中軍使 徐熙와 前 民官御事 李知白 등이 그러한 추이에 반대하면서 할지론은 戰況을 보아가면서 결정하는 것으로 늦추어졌다. 서희는 거란의 출병 의도가 嘉州와 松城의 두 성을 탈취하는 데 있을 뿐 영토 확장에 있지 않다고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거란과 한번 결전을 한 다음에 割地 여부를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지백 또한 서희의 이와 같은 주장에 동조하면서 할지항복론의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거란 침입의 대응책을 둘러싼 논쟁은 외견상으로는 할지항복이냐 혹은 항전이냐 하는 갈등으로 전개된 듯이 보인다. 그러나 "국토를 떼어 적에게 준다는 것은 만세의 치욕"이라는 서희의 주장이나 이지백의 건의에서 드러나듯이 그것은 국제관계에서 고려국의 위상을 어떻게 규정지을 것인가와 성종 대의 정치운영에 대한 평가까지 연결되어 있다.

정치성향에서 서희 계열로 파악되는 이지백은 성종 전반기의 정치적 지향과 정치운영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유교적 정치이념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華風 우위의 정치운영이 초래한 폐단을 지적한 것이며, 또 한편으로 고려의 위상을 宋을 중심으로 한 중국적 질서 속에 위치 지우고자 한 對宋 우위의 외교노선을 비판하는 입장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지백의 주장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종이 화풍을 즐기는 데에 대한 國民들의 반대 의사를 대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희 계열이 비판한 華風 우위의 정치운영은 주로 성종 전반기에 행해진 정치개혁을 가리킨다. 성종은 즉위 후 최승로의 시무책을 채택하여 유교적 정치이념이 고려 사회에 구현되도록 힘을 기울였다. 최승로는 성종에게 올린 시무책에서 광종의 지나친 慕華的인 태도에서 빚어진 혼란을 반성하고, 중국에 대하여 긍지와 독자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되 맹목적인 도입을 삼가고 우리의 현실에 알맞게 취사선택해

17) 최규성, 「거란 및 여진과의 전쟁」『한국사』 15(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1995, 302쪽.

18)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2년 10월.

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려의 정치체제를 중국 제도를 토대로 개편하되 고려 사회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19] 그러나 최승로 또한 기본적으로 이상적인 중국의 제도는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성종은 유교적인 이상 정치를 표방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최승로는 중국의 문물 수용에 대한 주체적 입장을 강조했지만, 성종 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중국 문물 수용이 더욱 강화된 시기였다. 이상적으로는 민족적 주체성과 독자성을 강조했지만, 현실에서는 중국 문물에 경도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이다.

이로써 서희 계열은 성종 전반기의 정치체제 또한 지나친 유교정책과 중화정책으로 추진되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20] 서희 계열은 國風을 우선시하면서 필요에 따라 중국 문물을 선택 수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중국 문물의 선택적 수용이 가능할 정도로 고려의 문화적 역량이 높다는 자부심의 표출이기도 하다.

이러한 서희의 입장은 서희 계열이 정치를 주도한 성종 후반의 정치운영에서 잘 나타난다. 고려 외교가 對宋 중심에서 벗어나 거란과의 현실적 외교로 전환되고, 화풍 우위에서 벗어나 國風을 중요시하면서 필요에 따라 중국 문물을 선택 수용하여 개선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서희 계열이 정치운영을 주도하면서 단행된 성종 14년(995)의 官制 개혁에서는 唐制가 원형 그대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고려의 실정에 맞게 변형되어 소화 흡수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21]

서희는 중국 문물의 우수성과 수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고려인이라는 의식과 고려라는 국가의 위상을 우선시하였다. 중국의 문물을 수용의 대상 혹은 객체로 바라보고, 그것을 수용하는 고려를 수용 주체자로 분명히 인식한 것이다. 이는 고려의 주체성과 독자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고려가 중국과는 다른, 독립적인 하나의 국가로서 국제관계 속에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중국 문물을 도입하여 고려를 선진국가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였던 것이다.

고려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서희는 민족의식에 대한 강렬한 의식을 보여주었다. 바로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 또는 계승자라는 자부심의 표출이 그것이다. 소손녕이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거란의 소유인데 고려가 이를 침식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서희는 "고려는 옛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다. 그런 까닭에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을 정한 것이다."라고 반박하였다. 더 나아가 서희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으므로 압록강 안팎은 물론 거란의 東京이 설치된 요동 지역까지 고려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소손녕의 정통성 논란을 서희는 역사적 근거와 정연한 논리로 굴복시킨 것이다.

이와 같은 고구려 계승의식은 태조 王建이 고구려의 후예로 출자한 데에서 비롯한 고려인들의 전통적 자부심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서희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정신적인 기반으로 하여 거란의 침입에 당당히 맞서는 진취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

19) 河炫綱, 「高麗初期 崔承老의 政治思想 硏究」『梨大史苑』 12, 1975, 25~27쪽.
20) 『고려사』 권94, 열전 7, 서희.
21) 金大植, 『高麗前期 中央官制의 成立과 六典制의 影響』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3, 122~123쪽.

인물사로서의 서희(徐熙)에 대한 재평가

이 재 범(경기대 사학과 교수)

머리말
1. 서희의 출신과 이천서씨의 유래
2. 서희의 성품
3. 서희의 활동
4. 서희에 대한 평가
맺음말

머리말

서희는 국난극복의 영웅으로 우리 역사에 기념이 되는 인물이다. 그에 대한 재조명이나 숭모사업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희에 대한 숭모 내용은 그의 활약과 업적에 관한 것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가 거란과의 외교적 담판에서 강동육주를 획득한 쾌거에 대한 찬사이다. 더욱이 우리 역사상 중국과의 충돌에서 영토를 획득한 예가 거의 없었는데, 서희는 강동 6주라는 영토를 고려에 편입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외교적 승리는 더욱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서희의 업적에 비하여 그의 인간적 측면, 혹은 기타 그가 그러한 치적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온 경향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무릇 역사란 객관성과 보편성 등이 기반이 되었을 때 그 사실의 신뢰가 더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희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보편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서희에 관한 연구가 자칫 그의 외교에 대한 영웅적 활동에 대한 사실만 반복적으로 나열함으로써 그를 영웅화하고 신격화한다면, 이러한 점은 오히려 서희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사료와 물증을 증빙으로 하여 서희에 대한 인간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보다 객관화된 서희의 민족사적 공헌에 다가가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비단 서희 연구에 그치지 않고 한국사 전반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서희의 재조명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 서희의 출신과 이천서씨의 유래

서희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한 가지 방향에서만 이루어져 왔던 점에서 약간의 반성을 요한다. 서희에 관한 연구는 거란의 제1차 침입 때 소손녕과의 담판에서 거둔 외교적 성과를

반복하기에 바쁘다. 분명한 것은 서희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데 대한 연구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신성성을 깨뜨린다는 의미에서이지는 몰라도 소홀했던 점이 없지 않다.

본고에서는 먼저 그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서희는 고려시대의 명문가인 이천서씨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출신에 관해 『고려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서희의 소자는 염윤(廉允)이다. 내의령 필(弼)의 아들이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서희의 어렸을 적 이름이 염윤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내의령 서필이라는 점이다. 서희의 아버지 서필에 대해서는 별개의 전기가 『고려사』에 수록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하고, 또 서필의 아버지 서신일(徐神逸)에 관한 일화가 서희 열전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이천 서씨의 내력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 지난날 서필의 아버지 서신일이 시골에 살고(郊居) 있을 때 어느 날 사슴 한 마리가 그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신일이 본즉 사슴의 몸에 화살이 꽂혀 있으므로 그것을 뽑아주고 또 숨기고 있노라니 얼마 되지 않아 사냥꾼이 쫓아와서 찾다가 잡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날 밤 꿈에 신인이 나타나서 치사하기를 "사슴은 나의 아들이었는데 그대의 덕택으로 죽지 않았다. 앞날에 당신의 자손들은 대대로 경이나 상의 높은 벼슬을 하게 되리라"고 하더니 서신일이 나이 80이 되어 서필을 낳고 또 서필, 서희, 서눌이 과연 대대로 이어서 재상이 되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이천서씨가 어느 시기에 이천 일대에서 확실하게 존재를 부각시키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위의 내용 가운데서도 주목되는 것은 '서신일이 시골에 살고 있을 때'와 '서신일이 나이 80이 되어 서필을 낳고'이다. 서신일이 시골에 살고 있을 때란 아마도 이천에 거주하고 있었던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본 내용은 서희 전에 부속되어 있으므로, 그 때는 이미 서희의 문중은 경기 일대로 이주한 다음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대략 어느 정도의 시기였을까? 다음의 서필의 몰년 기록이 참고가 된다.

> 서필 --- 광종16년(965)에 죽으니 향년 65세였다.

위의 기록에 의하면 서필은 901년에 태어났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서필은 '서신일의 나이 80이 되어 서필을 낳고'라고 하였으므로, 서신일의 나이는 서필의 생년에서 80을 제하면 대개 추정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하면 서신일은 821년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서희는 998년(목종 원년)에 57세로 임종하였으니, 941년 혹은 942년생이 된다. 서필이 42-3세경에 얻은 아들이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그의 할아버지 서신일이 이천에 정착한 시기는 서

신일의 선대가 이천에 왔다고 한다면, 821년 이전부터였을 것이다. 만약 서신일 당대에 왔다면 그의 나이에 따라 이천에 정착하게 된 시기가 추정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것은 어떻든 서신일의 탄생을 즈음한 820년대에는 적어도 이천서씨 집단이 이천 일대에서 일정한 존재를 과시하였다고 보아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위의 설화를 보면 서신일은 이미 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은 인물로 보인다. 그러므로 도망온 사슴을 피난시켜 줄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는 추격자들이 서신일에게 어떤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물러 나갔던 것으로 근거를 삼을 수 있다.

이 시기는 신라 헌덕왕 13-4년에 해당되는 때로 당시의 신라는 822년의 공주의 김헌창의 난 이래로 진골들 간에 왕위쟁탈전이 격화되어 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틈을 타 지방에서는 점차 신라정부로부터 반독립적 태도를 유지하는 지방의 호족들이 성장해 나가는 시기였다. 이천서씨도 이러한 호족의 한 집단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형성해가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의 이천군과 관련된 이야기는 서씨집안의 형성과 관련이 있을 것을 여겨진다.

> 이천군 : 본래 고구려 남천현(남매라고도 함)인데, 신라가 병합하여 진흥왕이 승격시켜 주로 삼았고, 군주를 두었다. 경덕왕이 황무로 고쳐 한주의 영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태조가 남으로 정벌할 때에 군인 徐穆이 인도하여 쉽게 건널 수 있었던 까닭에 이름을 이천군이라 사하여 그대로 소속하였다가 인종 21년에 감무를 두었고 고종 41년에 永昌이라 칭하였으며 공양왕 4년에 祖妣 신씨의 고향이므로 올려 남천군으로 삼았다.(『고려사』 권56 지리지1 광주조)

이천의 지명이 생기게 된 것은 서목이라는 인물과 관련이 있다. 서목은 이천에 토착하고 있었던 호족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하면 고려 태조 때 이 일대는 서씨가 호족으로서 기반을 잡고 있다가 고려 태조를 도와 후삼국통일전쟁에서 큰 전공을 올렸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는 아주 세력이 컸던 집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왕건과의 혼인을 할 정도로 밀접하거나 큰 세력을 형성하였던 것 같지는 않다. 당시 태조의 집안과 혼인관계에 있었던 호족들은 대체로 각 지역의 대표격인 호족들이었다. 충주 유씨, 황주 황보씨, 정주 유씨 등이 모두 그러하다. 태조의 공신들이었던 박술희, 신숭겸, 복지겸, 배현경 등 4공신과는 태조가 통혼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사류의 서술과는 달리 이천서씨의 자신들의 내력에 대한 서술은 훨씬 더 고대로 소급하고 있다.

> 이천서씨는 신라(新羅) 효공왕(孝恭王) 때에 아간(阿干)벼슬에 이르렀던 서신일(徐神逸)을 시조(始祖)로 현양(顯揚)하고 누대(累代)를 이어오고 있다.

서씨(徐氏)의 득성설화(得姓說話)는 고래(古來)로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기자(箕子)의 후예설(後裔說)로, 기자의 四十代 孫 기준(箕準)<箕氏馬韓朝鮮=箕氏朝鮮哀王準>이 위만(衛滿)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남천(南川)<지금의 이천(利川)>의 서아성(徐阿城)으로 피(避)하여 와서 우거(寓居)하게 되면서 그 후 자손(子孫)이 번창함에 이르러 그 세거지명(世居地名)인 서아성(徐阿城)의 서자(徐字)를 따서 성(姓)으로 삼아 쓰게 되었다 한다.

둘째는 그보다 훨씬 전대(前代)인 단군(檀君)의 후예(後裔)인 여수기(余守己)라 하는 자가 예맥(濊貊)의 추장(酋長)으로써 아들 아홉(九)형제(兄弟)를 두었는데, 모두가 각기 고을의 장(長)이 되어 선정치적(善政治績)하여 여러 백성<중민(衆民)>에게 공(功)이 많았으므로 여(余)자(字)에 두인(二人:衆人)변(邊)을 붙여서 서씨(徐氏)의 성(姓)이 되었다는 설(說)이 있고,

셋째는 백제(百濟)가 라·당연합군(羅·唐聯合軍)에 의해 패망(敗亡)하게 되여 백제(百濟)왕자 여융(餘隆)이 당(唐)에 들어가니, 당나라에서 금자광록대부를 봉하고 여융의 여(餘)자(字)를 고쳐 서(徐)자(字)를 만들어 성(姓)을 내려 주었다 하니 지금 부여 서씨가 온조(溫祚)를 시조로 삼는 것이 이 까닭이다.

그러나 어느 한쪽도 확증(確證)할만한 고증(考證)이 없어 그저 전설적인 설화(說話)로써 그치고 있을 뿐이다.

위의 인용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천서씨의 계보 상 확실한 선조는 서신일이며, 그 밖의 설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고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 설은 모두 서신일 보다 훨씬 이전의 사실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천서씨 가승의 태도는 상당히 실증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설은 그렇다 하더라도 서신일의 관직이 아간대부였다는 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 서신일이 신라 효공왕대의 아간이라는 지위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한다. 이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천서씨가 역사에 자취를 드러내기 시작한 시기는 신라하대부터라일 것이라는 사실과 부합한다. 단지 그 시기가 효공왕 때인가 아닌가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앞에서 추정한 바와 같이 서신일의 출생년을 821년(헌덕왕13)으로 본다면, 그가 효공왕대에 벼슬을 하였다는 사실이 그다지 무리일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효공왕은 897년에서 912년 월까지 신라를 통치하였으므로, 앞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효공왕이 즉위하던 해에 서신일의 나이는 76세가 된다. 서신일은 80세에 서필을 낳았으므로 이 무렵에 벼슬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무리일 것 같지는 안다.

다음으로 밝혀 두어야 할 것이 서신일이 76세경에 역임하였다는 아간이라는 벼슬이다. 다른 가승에는 아간대부라고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아간은 실제로 신라의 관제에 나오는 관직이 아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아간은 아찬과 같은 용어라고 하여 골품제상의 관등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찬은 진골의 다음 신분인 6두품이 올라 갈 수 있는 최고의 관등이었다. 6두품은 잘 아는 바와 같이 최치원 같은 인물들이 속한 신분으로서 진골들이 오로지 하는 신라

국정과 골품제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반신라적 경향을 띠고 있었다. 실제로 서신일의 신분이 6두품의 아간이었다면 그 성향을 최치원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쉽게 추정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서신일이 이 시기에 이천지역의 상당한 신분이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간은 관등이므로 벼슬이라기보다는 관등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다른 가승에는 아간대부라고 나오기도 한다. 아간대부는 엄밀히 말하면 신라 골품제나 관제상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아간은 아찬이므로 관등이고, 대부는 관직에 대한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둘을 붙여서 사용하는 예는 없다. 그러나 이 무렵에는 이러한 법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아간대부는 자신이 자칭하거나 후대에 미화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예는 왕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왕건의 가계에서는 자신의 선조를 신라의 성골장군이라고 하였다. 성골은 신라 최고의 신분이며, 장군은 무관직이다. 이 둘의 결합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아간대부도 성골장군과 같은 경우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서신일이 아간의 벼슬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신라 효공왕대는 신라의 통치력이 실질적으로 이천 일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효공왕대의 이 일대는 궁예의 세력권이었다. 궁예는 897년경 송악의 호족 왕건가의 귀부를 받는다. 그리고 송악을 도읍으로 하여 한반도의 중부지역을 장악하게 된다. 따라서 효공왕대 전시기가 궁예의 통치기였다. 물론 이 지역을 정벌하러 나선 장군은 왕건이었지만, 그는 당시에는 궁예의 휘하 장군이었으므로 서신일이 받았을 아간대부와 같은 관등 혹은 관직은 궁예의 위임을 받아 왕건이 수여한 것일 수도 있다. 왕건도 궁예로부터 한찬대장군에 봉해지기도 하였으므로, 이렇게 관등과 관직이 결합하여 주어진 아간대부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장군이 아니고 대부를 붙였을까? 그 이유는 서필의 성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고려사』에 기록된 서필의 사회적 진출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필 --- 刀筆進累官至大匡內議令

위의 내용을 보면 서희의 아버지 서필은 도필에서 출발하였다고 하였다. 도필은 지금의 서기와 같은 하급 문신 관리이다. 서필은 문관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성향은 그의 아버지 서신일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서신일을 아간대부라고 하여 무관직이 아닌 문관직으로 서술한 이유가 여기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천서씨의 지역적 배경아래 서희는 사회적 진출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부친의 배경도 무시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고려시대는 음서제와 같은 관리 채용방식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배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희의 사회적 진출은 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고려사』는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고려사회에서는 과거에 합격을 하였더라도 배경이 없으면 고위직에까지 올라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서희는 과거출신자로서 가문의 배경도 뒷받침이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의 관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서필의 관직은 내의령이다. 내의령

은 내의성의 최고관리였다. 내의성은 성종원년 내사문하성이 이전까지 고려 최고 관부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므로 내의령인 서필은 음서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것이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서희는 자신의 능력의 뛰어남을 말할 것도 없고, 가문이라는 것도 고려 귀족사회에서 무시할 수만은 없었던 배경이 되었다.

2. 서희의 성품

서희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을까? 『고려사』 서희 열전에는 그의 성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성품이 엄하고 삼갈 줄(嚴恪) 알았다.

서희의 성품은 엄하고 삼갈 줄 알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분수를 알고 판별력이 뛰어났다는 의미이다. 그의 엄하고 삼갈 줄 알았다는 성품과 관련된 사례는 『고려사』에 적지 않게 그 예가 보인다.

> 광종 23년(?)에 사명을 받들어 송에 갔는데 그 때 송에 조회하지 않은 지 십수 년인 지라. 희가 이르매 용의가 법도에 맞으니 송 태조가 가상히 여겨 검교병부상서를 제수하였다.

> 성종 2년에 좌승으로부터 병관어사에 제배되어 서경에 종행하였는데 성종이 미행하여 영명사에 놀고자 하거늘 희가 글을 올려 간하니 이에 중지하고 안마를 사하여 이를 상주었다. 뒤에 내사시랑으로 개수하였다.

위의 예를 보면 서희는 법도가 맞아 중국에서도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검교병부상서를 제수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도에 어긋나면 임금에게도 간언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인용한 내용 가운데 성종이 미행으로 놀러 다니려고 하자, 글로서 간하여 중지를 시켜 오히려 상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아마도 이러한 간언을 하는 품성은 서희 개인의 성향이기도 하겠지만, 집안의 분위기나 전통일 수도 있다. 그의 아버지 서필의 경우를 보자.

> 광종이 재상 왕함민, 황보광겸 및 서필에게 금으로 만든 술그릇을 주었는데 서필만은 이것을 받지 않았으며 말하기를 "저는 외람되게 재상 자리에 앉았으니 이미 받은 총애와 혜택만 하여도 과분한데 또 금 그릇을 주시니 분수에 넘치는 것이라 더욱 송구스러우며 또한 의복은 등급을 밝혀야 하며 사치와 검박은 치란에 관계됩니다. 신하가 금 그릇을 사용하면 임금은 무슨 그릇을 써야 하겠

습니까?"라고 하니 광종은 말하기를 "그대는 보물을 보물로 여기지 않으나 나는 그대의 말을 보물로 여기겠다"라고 하였다.(『고려사』 권 제 93 서필전)

일찍이 서필은 자진하여 왕을 배알하고 말하기를 "원컨대 성상은 공 없는 자에게 상 주지 말고 공 있는 자를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니 광종은 잠자코 있었다. 이튿날 측근자를 보내어 "공 있는 자란 누구이며 공 없는 자란 누구인가?"라고 물으니 그는 대답하기를 "공 있는 자는 원보 식회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공 없는 자란 바로 너희들이니 이대로 아뢰라"고 하였다.(『고려사』 권 제 93 서필전)

광종은 귀화하여 온 중국 사람들을 특히 후대하기 위하여 신하들의 주택 중에서 취택하여 주택을 배정하여 주고 처녀들도 택해서 주곤 하였다. 어느 날 서필은 왕에게 아뢰기를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좀 넓으니 바치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광종이 그 까닭을 물어 본즉 그는 대답하기를 "지금 귀화하여 온 사람들은 관직을 골라서 벼슬하고 집을 택해서 거처하는 반면에 世臣 故家들은 도리어 거주할 곳을 잃은 사람이 많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참으로 자손을 위한 계획을 생각한 바 있습니다. 재상이 거처하는 집은 자기 소유로 되지 못하니 그럴 바엔 저의 생전에 제 집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봉록의 나머지로써 다시 작은 집을 짓겠습니다. 이것은 앞날에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니 광종은 노하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뉘우치고 다시는 신하들의 집을 빼앗지 않았다.(『고려사』 권 제 93 서필전)

내구의 말이 죽었는데 광종은 주관자를 처벌하려 하니 서필은 "공자가 사람의 부상 유무는 물었으나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는 옛말을 인용하면서 간행하였기 때문에 주관자가 처벌을 면하였다.(『고려사』 권93 서필전)

『고려사』 서필 전에 수록된 그의 행동을 보면 서필이 오히려 서희보다도 더 엄격하고 신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필 전에는 서필의 성격에 대하여 '성격이 활달하고 명민하였다(性通敏)'라고 하였지만, 서필 전에 수록된 그와 관련된 일화들은 그가 얼마나 법도에 충실하고 검박하며 삼갈줄 알았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

위의 자료들의 공통점은 모두 서필과 왕과의 대화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이 서필이 광종을 질책하는 것이라는 특이한 점이 있다. 서필이 왕에게 사치를 경계하라고 하였고, 신하들의 신상필벌을 바르게 하라고 충고하였다. 그리고 광종이 지나치게 귀화인만을 우대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또한 인간을 중시하라는 훈계조의 내용도 말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서필은 왕의 앞에서도 결코 굴함이 없이 자신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도리를 전하고 있다. 이른바 간신(諫臣)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데에

서 그의 엄격함과 삼가함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내용들은 서필의 활발함과 영민함보다도 더한 엄격함을 전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고려사』에 서필을 '통민(通敏)'하였다고 한 것은 그의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엄하고 삼가는 성향은 이천서씨의 가풍으로 추정하여도 무리는 아닐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직언을 잘하는 서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서희는 엄격한 집안에서 성장하였고, 그러한 분위기는 후대에 서희의 인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광종과 성종에게 직언을 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서희가 거란의 제1차 침입 때 당당히 맞서서 외교적 승리를 이끌어 온 것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아버지와 가계가 배경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엄격하고 삼갈 줄 알았다는 성격상의 공통점 이외에도 서필과 서희의 닮은 점이 있다. 그것이 바로 대외관이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듯이 서희는 외교관이다. 그러나 서희가 주장했을 때의 외교는 전쟁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교를 택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일반적으로 외교 혹은 강화론의 제기는 주전론에 반대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서희의 경우는 이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 당시의 고려 정국으로 본다면 주전론에 해당되는 주장이다. 당시 고려는 거란의 요구에 대하여 완전히 수긍을 하였다. 그리하여 고려군이 보유하고 있던 식량조차 강에 버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서희는 바로 이때 자신이 거란군에게 가서 침략의 부당함을 논박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미 끝난 싸움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다음의 서희가 성종에게 올린 내용을 보면 그러한 점은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 그(서희)는 또 아뢰기를 '거란의 동경으로부터 우리나라 안북부에 이르는 수백리 어간은 모두 생여진이 차지하고 있던 것을 광종 때에 이를 도로 찾고 가주 송성 등의 성을 쌓았었는데 이제 거란이 침공하는 의도는 이 두 개의 성을 탈취하려는 데 불과한 것이며 그들이 고구려의 옛 땅을 찾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인즉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병력이 성대한 것만을 보고 갑자기 서경 이북을 떼어 준다면 이것은 올바른 계책이 아닙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삼각산 이북은 모두 고구려의 옛 강토인데 그들이 한없는 욕심으로 끝없이 강요한다고 해서 다 주겠습니까? 하물며 국토를 떼어 적에게 준다는 것은 만세의 치욕입니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수도로 돌아가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적과 한번 판가름 싸움을 하게 하신 후에 다시 논의하여도 늦지 않으리다'라고 결심을 표명하였다.(『고려사』 권94 서희열전)

위의 내용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서희가 생각하는 고구려의 국계의식(國系意識)이다. 그는 고구려의 영토를 삼각산 이북까지로 생각하였으며, 한번 밀리면 그곳까지 거란이 밀려 올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누구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서희 역시도 거란에게 국토를 떼어 준다는 데에 대해서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그는 강화가 실패하여도 순순하게 영토를 떼어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성종에게 개경으로 환도하도록 촉구하면서 자신들이 최후를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1] 그런데 여기서 특히 돋보이는 부분이

적이라고 표현된 대외관계에 있어서 고려의 자주성에 대한 부분이다. 이 점에 있어서 서필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음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다. 앞에서 서필은 광종이 귀화인들을 우대하고 재상까지 업신여기자 자신의 집을 기증하겠다고 하였던 것이다. 서희의 자주적인 태도도 개인의 품성이 받침이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의 집안의 그러한 속성이 있었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서희의 사회적 진출과 활동

명문가에서 태어난 서희의 사회적 진출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졌을까? 그에 관해서 『고려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광종11년에 18세로 갑과에 발탁되어 광평원외랑에 임명되었다. 계속하여 벼슬이 올라 내의시랑이 되었다.(『고려사』 권94 서희전)

서희가 처음 사회적 진출을 시작하게 된 시기는 자신의 나이 18세였다. 광종 11년의 과거에서 서희는 갑과로 발탁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서희의 사회적 진출을 과거로 시작하였다는 것은 서희와 이천서씨의 중앙진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려에서는 관리 임명에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었다. 하나는 음서제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제에 의한 것이었다. 음서제는 고려 문벌귀족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세습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였다. 음서제에 의하면 5품 이상의 관리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관직을 물려 줄 수 있었다. 이에 비하면 과거제는 신분이나 관직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에 임명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과거제는 기존의 세력들의 기득권을 보호하지 않는 제도로서 귀족들은 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고려에서는 이 과거제가 처음 광종 때 도입되었다. 광종은 자신의 치세 9년(958)에 후주의 쌍기를 지공거로 삼아 처음 과거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서희의 갑과 발탁 시기는 광종 11년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광종은 고려 왕실의 존엄을 세우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신 및 귀족들의 세력을 견제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가 시행한 노비안검법도 대표적인 귀족들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조처였으며, 과거제의 도입 또한 그런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거제를 통하여 초기에 등용된 인물이 바로 서희이다. 서희는 불과 18세에 갑과로 선발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아마도 개혁을 꿈꾸는 광종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러한 신진 세력의 진출 경로인 과거제로 서희가 사회적 진출을 꾀하여 재상직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출신인 이천서씨의 성장단계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고려 초의 지배세력의 성격이 태조 때 왕실과 혼인을 맺었던 호족들이었던데 비해 이천서씨는 서희 이전에는 왕실과 혼인한 사례가 없다. 이천서씨가 왕실과 혼인한 사례는 서눌의 딸로 현종(?)의 비가 된 원목왕후 서씨의 예가 유일하다. 이러한 사실로 본다

---

1) 성종은 중국 풍습을 좋아하여 나라사람들이 이를 싫어하였다고 한다.(『고려사』 권94 서희전)

면 이천서씨는 고려 태조가 건국할 당시 대호족으로까지 성장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그러다가 서희에 이르러서 광종 때에 실시된 과거제를 통하여 중앙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그 뒤 현종 때는 마침내 왕실과 혼인을 통하여 관계를 맺게 된다.[2)]

그 뒤 서희가 고위관직에 오르게 된 계기는 거란의 제1차 침입이다. 거란의 제1차 침입은 성종 12년에 발발하였다. 이때의 거란은 거대한 세력을 성장하였다. 이러한 거란의 침입에 고려의 조정은 매우 당황하였다. 그리하여 자비령 이북의 땅을 떼어주고 강화할 것을 조정에서는 중론으로 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서희는 이를 반대하고 담판을 벌여 강동 6주(흥화, 요우, 철주, 통주, 곽주, 귀주)를 획득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서희에 관하여 주목할 점은 그가 외교 만능이나 절충론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서희는 성종을 비롯한 고려 조정의 관심을 주화에서 주전으로 돌려놓자는 주장으로서 외교론을 편 것이지, 강화를 위하여 담판을 고집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위의 내용을 보면 서희는 이미 조정의 의견이 할지론으로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외교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한 번 판가름을 위한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서희는 전투에 앞서서 한 번 더 거란의 진의를 파악하자는 것이었지, 무턱대고 전투를 피하자고 꾀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서희의 속내가 그러했기 때문에 서희는 거란의 장군 소손녕과의 담판에서 당당하게 기선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의 내용은 서희의 당당한 기개를 다시 알게 해준다.

> 서희가 국서를 가지고 소손녕의 영문으로 가서 통역을 시켜 회견하는 절차를 문의한즉 소손녕이 말하기를 '나는 대국의 귀인이니 그대가 나에게 대하여 뜰에서 절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희가 대답하기를 '신하가 임금에게 대할 때 당하에서 절하는 것은 예법에 있는 일이나 양국의 대신들이 대면하는 좌석에서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고 반대했다. 재삼 왕복하면서 교섭하였으나 소손녕이 고집하므로 서희가 노하여 숙소로 돌아 와서 움직이니 아니하니 소손녕이 내심으로 그의 인품이 비범함을 생각하고 마침내 당상에서 대등하게 대면하는 예식절차를 승낙하였다. 이리하여 서희가 거란의 영문 앞에서 하마한 후 들어가서 소손녕과 뜰에서 마주서서 읍한 후에 마루로 올라가서 동편과 서편으로 마주대해 앉아서 담판을 시작했다.(『고려사』 권94 서희전)

4. 서희에 대한 평가

서희에 대한 평가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그의 외교적 승리에만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서희는 단순히 외침에 맞선 것 뿐 아니라 재상으로서의 정치에서도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겼다. 특히 그는 청렴한 관리로서 직언을 잘하는 것으로도 귀감이 되었다. 그리하여 국왕으로부터 순간적으로 미움을 사기도 했으나, 바로 다시 전보다 더한 신뢰를 얻곤 하였다. 이러한 신뢰는 서희의 투병과 임종을 맞을 때 대한 국왕들의 태도에서 잘 나타난다.

---

2) 이천서씨와 왕실과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성종 15년에 서희가 병을 얻어 개국사에서 치료하였는데 성종이 친히 가서 문병하고 어의 한 벌과 말 세필을 사원에 나누어 주고 또 개국사에는 곡식 1000석을 희사하고 무릇 기도와 축수할 만한 일은 아니한 바 없었다. 이듬해에 관리의 녹봉을 줄 때에 서희의 병이 완치되지 못하였는데 왕은 주관 부서에 대하여 '서희의 연령이 아직 치사할 때는 되지 않았으나 병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니 치사록을 주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고려사』 권94 서희전)

목종 원년(998)에 나이 57세로 죽었는데 부고를 받고 왕이 몹시 애도하였으며 베 1000필과 보리 300석, 쌀 500석, 뇌원차 2백각, 대차 10근, 전향 300량을 부의로 주고 예식을 갖추어 장사를 치르게 했으며 장위라는 시호를 주었다. 현종 18년에 성종의 묘정에 배향하였다. 그 후 덕종 2년에 태사벼슬을 추증하였다. 그의 아들은 눌과 서자 주행이 있다(『고려사』 권94 서희전)

서희의 사후로도 국가의 동량으로서의 서희는 후대의 모범이 되었다. 고려 현종 18년(1027년)에 성종 묘정에 배향되었다. 이때 배향된 인물들은 최승로·최량·이지백·이몽유 등이었다. 이때 서희는 태사내사령으로 모셔졌다.

그 뒤로도 서희와 소손녕의 담판은 커다란 외교적 귀감이 되어 많이 회자되었던 것 같다. 선종 5년(1088) 9월, 태복소경 김선석을 요나라에 보내서 각장(榷場)[3]을 없애 줄 것을 청했는데, 김선석이 가지고 간 표문에 '세 번 우러러 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으니 비록 번거롭게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이 두렵지만 어찌 우리가 바라는 바를 말하지 않고 침묵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중략) 그 때 배신 서희가 경계를 맡아 관할하고, 유수 소손녕이 황제의 명령을 받들고 상의하여 각각 양쪽 경계에다 여러 성을 나누어 쌓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뒤로도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동국통감』, 『신증동국여지승람』, 『동사강목』, 『휘찬여사』, 『증보문헌비고』 등의 역사서와 고문헌에는 서희의 고사가 실려 있을 뿐 아니라, 이천의 설봉서원에 제향인물로 모셔져 있다.

맺음말 - 서희의 외교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서희에 대하여 그의 가계와 그의 출신배경, 성장과 활동 등 주로 인간적 측면과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았다. 서희는 이천서씨 출신으로 이천서씨는 고려의 호족으로 출발하여 국가의 재상에 오른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그의 관직 생활보다 외적과의 충돌에서 호국의 공을 세운 인물로 더 평가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그러나 서희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와 같이 외교적 성과만으로 숭모되기보다는 그의 인간적 측면이나 출신배경과도 아울러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먼저 서희는 우리 역사상 최고의 국토개척자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외교에 대한 재평가는

3) 국가가 교역을 허가한 시장.

이점에 있다. 우리 역사는 전쟁 보다 항쟁으로 기억하는 외국과의 충돌이 많은 나라였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국난극복의 역사가 있었고, 항쟁이 있었을 뿐이다. 침략전쟁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의 정벌전쟁이 없었고, 다른 나라의 영토를 획득한 경험이 거의 없다. 그러나 서희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강동 6주를 영토로 획득한 인물이다. 우리가 꼽는 영웅들 가운데 국토 개척과 관련이 있다면 광개토왕, 사군 육진의 김종서와 최윤덕 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개척지가 여진이었다면 서희는 강대국 거란을 상대로 영토를 획득하였다. 그 수단도 병사하나 움직이지 않고 적장과 당당한 설전을 벌여 얻은 것이었다.

서희의 강동 6주 획득은 고려가 압록강을 국경으로 삼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고려의 압록강 시대를 열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업적은 그가 성장한 엄격한 가문에서 성장하였고, 그의 가풍이 고려인의 기개를 심어주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서희 연보

연번	시기	관직	활동사항	비고
1	960년 (광종 11)	18세로 갑과(甲科) 급제 광평원외랑(廣評員外郞)		
2	972년 (광종 23)	검교병부상서(檢校兵部尙書)	송에 사신으로 가서 10여 년간 외교 단절 회복	송 태조가 수여
3	? 년	좌승(佐丞)		
4	983년 (성종 2)	병관어사(兵官御事)		
5	? 년	내사시랑(內史侍郞)		성종 때 내의시랑 (內議侍郞)
6	993년 (성종12)	중군사(中軍使)	거란 소손녕(蕭遜寧)과 담판	
7	?	평장사(平章事)		
8	994년 (성종 13)		여진 구축. 귀화진(歸化鎭)·장흥진(長興鎭)· 곽주(郭州)·귀주(龜州) 축성	
9	995년 (성종 14)		안의진(安義鎭)·흥화진(興化鎭) 축성	
10	996년 (성종 15)		선주(宣州)·맹주(孟州) 축성	
11	?	태보내사령(太保內史令)		
12	998년 (목종 원년)	57세로 돌아가심. 장위(章威) 시호 내림.		
13	1027년 (현종 18)	성종 묘정 배향		
14	1033년 (덕종 2)	태사(太師)를 추증		

종합 토론

여 백

제3발표 「서희의 현실외교론의 형성과 1차 여요전쟁」에 대한 토론

박종진(숙명여대)

안녕하세요. 박종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번 발표회 주제와 관련된 제대로 된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토론을 하게 된 것은 연구책임자인 한정수 선생님과의 인연 때문인 듯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발표문을 비롯해서 관련된 공부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용한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임용한 선생님은 이번 발표에서 1차 여요전쟁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전쟁사적으로 분석하고 서희의 현실외교론의 의미와 그 공적을 재평가하려고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쟁초기에 고려정부가 절령 이북의 땅까지 떼어주면서까지 강화론을 주장한 것은 당시 고려군의 병력규모와 평남지역의 방어역량을 고려할 때 전쟁수행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할지론이란 것은 거란에 대한 완전한 항복과 영구적인 영토의 포기가 아니라 청천강 방어선을 지킬 수 없다면 절령 이북의 땅은 어차피 없는 땅이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강화회담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고려의 두 가지 과제는 거란군의 철수와 청천강-압록강 지역의 탈환이었는데, 서희는 당시 거란의 목적이 고려의 점령이 아니라 여진의 축출에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이를 토대로 여진에 대한 협공이라는 협상전략을 창출하여 소손녕과의 회담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희의 최대공로는 거란군의 철군이나 영토적 의미에서 강동육주의 회복이 아니라 청천강 이북지역에 구축한 고려의 방어선이었고 이 방어선은 이후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임용한 선생님의 견해는 이전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면서도 새로운 해석을 덧붙인 것으로 1차 여요전쟁과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서희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토론자의 기본 의무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성종 12년 전쟁 발발 직후인 10월 성종은 시중 박양유를 상군사, 서희를 중군사, 최량을 하군사로 삼아 북계에 주둔하여 거란을 막게 하였으며, 이어서 윤달에 성종은 서경에 행차하여 안북부까지 나아갔다가(『고려사절요』 권2) 봉산군에서 고려군이 패하자 돌아왔습니다. 이 사실과 관련하여 임선생님은 성종의 행차를 '성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서경을 거쳐 안북까지 진격했다.'고 보았고 더 나아가서 성종이 친정한 것은 부족한 중앙군을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임선생님은 당시는 군사제도 개편을 진행하던 때로 중앙군의 수가 부족하고 지방군의 동원체제 역시 부실하였으며, 지방군의 충성도도 의심스러운 상황으

로 보고 있습니다.)

1) 우선 당시 성종이 군사를 이끌고 친정을 했다고 볼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고려사』 서희열전의 서술은 성종이 3군을 편성한 후 스스로 막으려고 서경에 행차한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十二年, 契丹來侵, 熙爲中軍使, 與侍中朴良柔·門下侍郎崔亮, 軍于北界備之, 成宗欲自將禦之, 幸西京, 進次安北府), 앞에서 본 것처럼 성종이 서경에 행차한 것은 3군 편성 다음 달입니다.

2) 더 나아가서 성종이 12년 윤10월에 서경에 행차한 배경에 대해서도 덧붙일 말이 있을 듯합니다. 성종은 9년 9월 서경에 분사(分司)를 설치하고 그해 10월과 그 다음해 10월에 서경에 행차하였습니다. 따라서 12년 윤10월의 서경 행차 역시 성종의 전쟁독려뿐 아니라 예정된 서경행차와 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서경과 그 이북지역을 강조하려는 성종 후반기의 정치 분위기와 연관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은 서희가 소손녕에게 한 말 중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하여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다'는 것과도 연관될 듯합니다. (당시 고려의 군사제도 개편 과정과 군사력의 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즉 성종 12년 윤10월의 서경 행차는 성종이 중앙군을 이끌고 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서경을 수도의 하나로 생각하였던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관례적인 행차에 더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서희의 회담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2. 이 발표문에서는 고려초의 외교노선을 '불간섭주의'라고 표현하셨는데, 내용으로 보아서는 불'간섭'이란 표현보다는 '불개입'이란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제5발표 「고려초기의 정치세력과 서희의 국가관」에 대한 토론

채 웅 석(카톨릭대)

1. 이 논문은 成宗代의 정치를 주도했던 세력들의 구성과 성격을 검토하고, 그 가운데 徐熙계열이 지향한 국가관, 문화관을 조명하였다. 학계의 관련 연구성과들을 충실히 섭렵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 점이 주목된다.

특히 돋보이는 점은, 성종대 정치세력의 성격을 검토할 때 科擧 출신 혹은 지방 豪族이나 開國功臣이라는 배경의 차이와 慶州나 近畿 또는 羅州라는 출신지역의 차이는 정치운영에서 별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고 파악한 것이다. 거란의 침략에 대한 대응책을 둘러싸고 이견들이 제기된 것은 정치이념의 차이에 따른 것이지 출신배경과 지역의 차이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파악은 고려시대 정치세력을 구분할 때 출신기반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연구경향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2. 머리말에서 학계의 연구성과들을 정리한 것에 따르면, 성종대의 정치적 지향과 정치운영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 갈등에 대하여, 華風을 중시하면서 고려를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위치시키려는 측과 國風을 중시하면서 중국문물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자는 측 사이의 갈등, 유교적 중앙집권정치를 추구하는 측과 귀족 중심의 정치운영을 추구하는 측 사이의 갈등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파악하려면 보완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에 유교적 중앙집권정치와 귀족 중심의 정치운영이 서로 대립적인 개념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고려의 문벌귀족은 향촌사회의 자립적 질서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고려 초 이래 추진된 중앙집권화과정의 산물로서 중앙관료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본다면, 유교적 중앙집권정치와 귀족중심의 정치운영은 보완적일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崔承老의 정치이념을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하에서 유교적 도덕정치가 행해지는 귀족 국가를 지향"한 것이라고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고려의 귀족사회적 면모는 빨라야 성종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데, 그 초기에 귀족 중심의 정치운영을 추구하는 측이 정치세력을 형성하여 과연 그로 말미암아 정치적 갈등이 벌어졌다고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외교론 내지 문화정책론을 둘러싼 갈등과 정치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정치세력과 연관시켜 파악한다면, 화풍을 추구한 세력이 왕권강화와 유교적 중앙집권정치를 추구한 세력이고 국풍을 중시한 세력이 귀족 중심의 정치운영을 추구하는 세력이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각 갈등양상은 별개의 것으로 성종대에 적어도 4개의 정치세력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인지 발표문상에서 분명하게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한 보완설명을 부탁드린다.

3. 이 논문에서는 성종대 유교적 집권체제 구축에 대립하는 존재로 外戚 黃州 皇甫氏를

중심으로 하는 西京세력이 아직 호족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던 것에 주목하였다. 고려초기 황주 황보씨, 忠州 劉氏, 貞州 柳氏 등의 3王后族의 존재를 중심으로 정치사를 설명하는 연구가 있지만, 그 세력들이 외척세력으로서만이 아니라 성종대까지 호족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고 파악하려면, 보완설명이 좀더 필요할 듯하다.

(1) 千秋太后와 金致陽일파의 이른바 서경세력이 갖고 있었다는 호족적 성격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들이 중앙집권화에 반발하는 지방세력으로서 존재했다는 증거는 별로 없고, 다만 유교이념과는 상이한 전통신앙적 요소가 많이 드러난다는 정도가 아닌가?

(2) 지방호족 기반의 서경세력이 강력하였다면, 그 지역을 위협하는 거란의 침입에 대하여 서경세력이 이렇다 할 만한 대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穆宗 때 왕위 계승을 둘러싼 김치양세력의 동향에 서경지역의 호응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4. 이 논문의 강조점 가운데 하나는 서희가 중국 문물 수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수용하는 고려의 주체성을 분명히 인식하여 선택적 수용의 입장에 섰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런 서희의 주체적 입장은 문화역량의 자각과 고구려 계승의식을 정신적 기반으로 하였고 그런 바탕에서 거란의 침입에 당당히 맞섰다고 파악하였다.

그런데 중국 문물의 수용문제와 고구려 계승의식을 같은 맥락으로 파악하는 것은 다소 의문이 든다. 최승로의 경우 중국문물의 수용에 주체적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그가 정치를 주도한 시기에는 중국문물에 경도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파악하였는데, 이는 최승로가 新羅系 儒臣로 파악된다는 점과 관련시켜 본다면 현상적으로 볼 때 일부 선행연구자들이 파악한 대로 신라계 유신=신라적 요소의 강화=화풍 추구, 근기계 관료=고구려 계승의식=국풍 추구라고 이해하게 되어, 류선생님이 강조했던 출신기반에 기초한 정치세력 분류와 모순될 가능성도 보인다.

또한 최승로의 時務28條에도 太祖의 渤海遺民 포섭, 발해에 대한 경계와 북방 진출을 칭송하는 등, 당시 고려 지배층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고구려계승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영토의식, 역사계승의식과 중국 선진문화 수용문제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6발표「인물사로서의 서희(徐熙)에 대한 재평가」에 대한 토론

김 대 중(전쟁기념관 학예연구관)

이재범 선생님의「인물사로서의 서희(徐熙)에 대한 재평가」논문은 이제까지의 서희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온 '서희의 활약과 업적과 관련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주목한 논문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서희에 관한 연구가 외교에 대한 영웅적 활동에 대한 사실만 반복적으로 나열함으써 서희를 영웅화 · 신격화 하는 것을 경계하고 사료와 물증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서희를 바라보는 것이 서희의 민족사적 공헌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 정면적으로 주목하지 못한 '서희의 출신과 이천서씨의 유래'에 착목하여 신라말에서 고려초라는 전환기의 이천서씨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천서씨가의 가풍이 서희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지를 기반으로 하여 서희의 성품과 서희의 활동, 그리고 서희에 대한 평가를 매우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토론자는 선생님의 서희 연구를 신라 효공왕대부터 고려 광종·성종, 그리고 목종대에 이르는 시기로 바라보는 관점에 크게 공감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제게 주어진 임무가 있는 만큼 선생님의 글을 읽고 궁금한 점 세 가지를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대신할까 합니다.

1. 선생님의 연구에 의하면, 이천서씨는 시조인 서신일(徐神逸) 때 혹은 그 이전부터 이천에 거주하였습니다. 신라의 중앙인 경주에서 볼 때 지방의 한 호족집단으로서 자신들의 세력을 형성했다고 여겨집니다(2쪽).

그런데 이천서씨가는 "고려 태조가 남으로 정벌할 때에 군인 서목(徐穆)이 인도하여 쉽게 건널 수 있었던 까닭에 이름을 이천군이라 사하였다"는 기록에서 후삼국통일전쟁에서 큰 전공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서필 또한 도필에서 출발하여 내의성의 최고관리인 내의령에 이르렀습니다. 서희 또한 광종11년 18세의 나이로 갑과에 발탁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고려시대의 이천서씨는 신라시대의 지방민이 아닌 개경의 중앙 신료로서 활동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따라서 서희의 외교관으로서의 역량을 이천서씨가의 가풍에서 찾는 것은 다소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풍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중앙 신료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했다는 점이 서희가 외교관으로서의 역량을 나타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서필은 광종의 정책과 그의 측근에 대해서 비판을 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관의 책무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볼 수는 없는지요.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선생님께서는 서희가 고려 조정의 관심을 주화에서 주전으로 돌려놓자는 주장으로서 외교를 편 것이지 강화를 위하여 담판을 고집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은 공감합니다만,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서희가 무엇을 믿고 저렇게 과감하게 밀어붙였을까 하는 생각을 합

니다. 자신의 논리가 먹히지 않을 때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3. 서희의 외교담판에서 적장 소손녕의 주장은 현대판 '동북공정'으로 이해됩니다.

소손녕 주장의 핵심은 옛 고구려 영토를 현재 거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고구려가 바로 거란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오늘날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다고 여겨집니다. 오늘날의 동북공정처럼 비역사적인 주장이 이미 지난 1000년 전 거란 장수 소손녕에 의해서 제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서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다. 그런 까닭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을 정한 것이다. 만약 땅의 경계를 논한다면 거란의 동경(東京)도 모두 우리 땅 안에 있다" 고 하여 소손녕의 주장을 비판하여 결국 강동육주를 획득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 중국의 동북공정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서희에게서 구해볼 수는 없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전쟁기법과 정신을/
호국인물을 근대~~사~~시대 4명 - 서희, 강감찬, 을지문덕, 최영

《 종합토론 》

- 바람직한 (공동체) 사회는
① 갈등 없는 사회 vs 갈등의 해결 능력
② 서로 장점이다. 서로 단점이다.
③